

2016. 6. 27.

대천 ~ 원산도 ~ 태안간 국도77호선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선임연구위원
이 인 배

【 목 차 】

1. 해양관광의 정책동향과 사례

- ① 해양관광 정책동향과 개발방향 1
- ② 해양관광 관련 계획과 법규 11
- ③ 해양관광자원과 관광객 현황 25
- ④ 연육교 및 해저터널 관련 사례 검토 35

2. 대천-태안간 연육교 건설의 변화전망과 과제

- ① 대천-태안 연육교 건설 현황 54
- ② 연육교 주변 관광여건과 관련계획의 검토 57
- ③ 교통수요 및 관광객 이용패턴 변화 전망 64
- ④ SWOT분석과 해양관광의 활성화 대응과제 71

3. 보령과 태안 77호선 주변의 해양관광활성화 방안

- ① 연육교 주변 관광활성화 기본구상 75
- ② 력키세븐 해양관광벨트 관광거점과 관광지 조성 78
- ③ 대천·태안지역 해수욕장 다계절 이용 활성화 방안 .. 96
- ④ 어촌과 인근 도시를 연계한 해양관광 활성화방안 ... 129
- ⑤ 연육교 주변과 천수만의 해양레포츠 활성화방안 .. 157

1.

해양관광의 정책동향과 사례

1 해양관광 정책동향과 개발방향

① 해양관광 활동패턴의 변화

■ 해양관광 활동패턴의 변화

-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건강유지 및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추세로 이러한 사회변화는 관광형태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관람위주의 정적관광에서 체험위주의 동적 관광으로 변화되고 있음.
- 해양관광 활동패턴은 해수욕과 단순 해안조망형에서 참여·체험형으로 급변하고 있고, 해양관광 활동공간도 해안가에서 해상·해중·해저로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세계의 해양도시들은 크루즈, 비치, 마리나를 중심으로 다양한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배울거리의 해양관광 상품개발은 물론이고 해상항공레저, 관광위그선, 해중전망대, 해양수족관, 해중관람선, 해륙관광버스, 해상관광택시·버스, 해중·해상호텔, 해중레스토랑, 테마보트 등과 같은 차별성 높은 해양관광 상품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음

② 해양관광 정책추진체계

- 관광개발 정책 추진은 정부조직법 제30조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며, 해양관광 육성 및 진흥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관광의 기본 방향 제시 및 관광개발 진흥과 개발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항만법, 어촌어항법 등에 따라 해양 관광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정책을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양관광자원 등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여 양부처간 협력체제 움직임도 전개되어 왔음.

해양관광 관련 중앙부처 기능과 법률

구분	기능	관련법률
문화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레포츠를 포함한 체육육성 전반의 주무 부처 •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 관광지 지정 및 개발 - 관광시설 인허가 등 • 국민체육진흥법 -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설치·운영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의 적정 설치를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규정
해양 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관광육성의 일환으로 해양레포츠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 -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필요 시책 마련·시행을 위한 정부의 책무 규정(선언적 의미로 이해됨) • 항만법 - 요트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시설을 항만시설 중 항만친수시설로 규정 • 어촌·어항법 - 모터보트·요트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을 어항시설 중 관광·레저시설로 규정
해양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안전법 - 동력수상레저기구(최대출력 5마력 이상)에 대한 등록, 조정면허 취득, 수상레저 안전준수 - 수상레저사업자 등록, 사업자의 보험가입, 안전검사 의무를 규정

자료 : 전북발전연구원, 전라북도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2008.

-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양관광정책과는 별도로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원 개발을 목적으로 어촌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양공간에 포함되는 수산자원의 관리와 어업공간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의 해양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공간 및 자원활용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
- 이와 더불어 지식경제부(해양관광산업 관련 지원육성, 금융/세제지원)와 행정안전부(도서지역개발) 등도 해양관광정책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함.
- 해양관광정책의 구성 체제를 바탕으로 할 때 해양공간에서의 자원개발이나 이용의 문제, 해양관광 관련 사업의 인허가는 각 부처가 상호 연계되어 있음. 따라서 해양관광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수적 사항임.

- 따라서 해양관광정책은 주무기관인 해양수산부를 바탕으로 하여 해양공간의 이용, 관광지원사업의 인허가, 각종 지원사업의 육성 등 각 부처 간의 역할에 따라 상호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함.

③ 해양관광 정책동향

■ 개발영역의 다원화

- 국민소득의 증가와 체험적 활동 영역 확대 추세에 따라 기존 해수욕장 관리나 해양형관광지 개발 등에서 마리나, 크루즈, 해양레저·스포츠시설 등으로 시설 공급에서도 확대되고 있음.
- 해양관광행태의 활동성 추구와 낙후지역의 개발 필요성 등에 따라 해양관광개발의 공간적 영역은 관광지, 해수욕장 등의 해변에서 해상과 해중, 해저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추진방식의 전환

- 해양이라는 환경적 취약성에 대한 고려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추세에 따라 하드웨어 위주의 기반시설 개발과 더불어 교육, 축제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정책적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짐.
- 독립적인 지구 및 시설 개발에서 어촌, 어항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관광 개발을 추진하여 생활과 생산이라는 단일 공간에서 문화와 관광이라는 복합공간으로 전환하고 있음.
- 관광객의 이동성 증대에 대한 대처, 해양관광자원의 비수기 타개, 관광개발간 경합 가능성 저감 등을 위하여 기존 해양관광개발 정책은 점적 개발에서 관광벨트 등 면적 개발로 발전하고 있음.
- 관광지와 관광단지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항만재개발사업이 공공성과 상업성으로 사업방향이 구분되면서 기존 공공개발 위주에서 공공과 민간 개발이 분리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타부처의 사업진출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존 육역 중심의 해양관광개발과 해양수산부 중심의 사업으로 다원화되면서 관광행정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행정 주체인 해양수산부와의 정책적 중복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 외에도 행정안전부의 도서 개발, 환경부의 갯벌

보전·개발, 해상국립공원 관리 등 해당부처의 고유영역을 중심으로 관광개발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임.

■ 마리나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법 제정 및 정비

-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 법) 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마리나 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마리나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해양레저·스포츠의 보급과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창출하기 위해 마리나 법률의 제정을 추진.
- 동 마리나법률의 적용범위는 해양레저 선박을 계류·보관하기 위한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시설(클럽하우스, 레스토랑, 쇼핑센터, 주차장, 연수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시설 등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있음.
-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마리나 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함.
- 마리나 항만 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마리나 항만 구역의 지정, 행위에 제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행 절차를 둠.
-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 항만 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마리나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의 징수 근거, 마리나 항만 구역안에서 행위의 금지 및 이를 위반시 원상회복·제거 명령 등 마리나 항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마리나 선박의 건조, 상품개발·제작 등 마리나 산업에 관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고 지원하기 위한 마리나 산업단지의 지정 추진 근거를 둠.
- 마리나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 수면점·사용료 등의 각종 부담금, 세제 등을 감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융자 할 수 있도록 하며, 방파제,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④ 관광자원별 정책 및 제도

■ 해수욕장

- 관광자원으로서 해수욕장의 중요성에 비해 해수욕장 관련 법제 및 관리 체제는 매우 부실한 편으로 해수욕장의 시설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전문휴양업의 세부시설로서 그 기본적 요건만 제시되어 있음.
- 현재 시·군 및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의해 대형 해수욕장과 이보다 작은 일반 해수욕장들이 관리되고 있음. 즉, 시군에서는 시군 조례에 의해 해수욕장을 지정하여 해수욕장 시설 관리·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비지정 해수욕장은 마을 등 지역사회나 민간기관에 의해 임의로 개발 이용되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2005년부터 전국해수욕장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해수욕장을 평가하여 우수 해수욕장을 선정·발표하고 있음.

■ 해양문화시설

- 해양문화 관련 시설은 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별·해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해양박물관·어촌민속전시관 등 해양 관련 전시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를 활용하여 세계 10대 해양국의 위상에 맞는 국립해양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해양연구시설 및 해양조사선박 등의 해양시설은 안전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관 설치 및 정기적인 해양 강좌 개최 등을 통해 체험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중 교통수단 등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 자연경관이 수려한 유인등대 49개 중 22개를 개방하였음.

■ 해양리조트

- 해양리조트 관련 정책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 관광레저형기업도시, 해양관광자원개발 사업 등으로 구분됨. 현재 관광지는 225개소, 관광단지는 15개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해양형 관광지는 46개소, 관광단지 5개소가 해당됨.
- 이에 대한 지원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53호)’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발표1에 따라 기준 보조율은 50%로 설정되어 있으며, 토지매입비 등은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음.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관광레저산업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 등을 위하여 기업도시 유형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2005년 3개 지역(무주, 태안, 영암·해남)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음. 이중 태안과 영암·해남은 간척지에 입지하여 해양관광개발 사례에 포함됨.

-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자체의 해양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지원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양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시행하였음.

■ 어촌관광

- 어촌관광정책은 2000년부터 어촌체험마을을 지정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어업인의 주도적인 어촌관광 능력을 배양하고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음.
- 2004년 ‘어촌관광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어촌·어항법을 제정하면 3개의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등 어촌관광정책 수단이 다각화되고 있음.

어촌관광 관련 사업별 시설 지원 현황

구분		주내용	사업년도
어촌관광개발사업		67개소에 61억씩 지원	1990~1996년
어촌종합개발사업		한 권역에 35억원씩 투자	1994년 이후 계속/ 150여 개 권역 지원
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한 지역에 30억원씩 투자	1997년 이후 2개소 지원
어촌체험관광마을 선정사업		지원중	2005년까지 50개소 지원중
어촌 어항 관광지	어촌어항복합단지	7개소(개소 당 150억원)	2005~2009년
	어항관광단지 (다기능어항)	6개소(개소 당 500억원)	2005~2009년
	어촌관광단지	11개소(개소 당 60억원)	2005~2009년

자료 : 김성귀(2006), 어촌관광 진흥사업의 현황과 과제, 계간 한국관광정책 통권 제26호.

- 어촌관광마을체험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아름다운 어촌마을 100선 선정 및 홍보사업, 어촌체험관광마을 컨설팅 사업 등의 소프트웨어 지원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음. 아름다운 어촌마을 100선은 매년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지역 11개 시·도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부산 송도마을, 경기도 대부도, 전북 하전마을 등이 여기에 포함됨.

어촌관광 관련 사업별 시설 지원 현황

구분	주내용	사업년도
어촌관광마을 체험사업	일반인 대상 어촌체험 방문 프로그램 시행	2005년부터 국토해양부 예산 지원 한국어촌어항협회 사업 시행
아름다운 어촌마을 100선	전국 100개 어촌 선정, 홍보	2004년부터 국토해양부 시행
어촌체험관광마을 컨설팅 사업	어촌관광마을 체험사업 대상 지원	2006년부터 국토해양부 예산 지원 한국어촌어항협회 사업 시행

자료 : 김성귀(2006), 어촌관광 진흥사업의 현황과 과제, 계간 한국관광정책 통권 제26호.

- 또한 2006년 해양수산부에서는 제1회 어촌체험마을 혁신 경진대회를 주최하여 모범적으로 잘 운영한 어촌체험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발전자금을 지급하였음.

⑤ 해안관광지 형태별 개발방향

■ 해수욕장 중심형 관광지

- 지형적으로 모래해변이 길고 넓으며, 조용한 바다와 비교적 온화하고 쾌청일수가 많은 기후여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해수욕을 중심으로 한 해양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개발에 적합한 형태임.
- 활동 종류는 해수욕이 주가 되나 급류타기, 담수풀장 등의 육상위락단지의 활동종류도 함께 구성할 수 있으며, 각종 이벤트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해변축제의 성격을 띠기도 함. 또한 비수기 대책의 일환으로 낚시나 모래스키(Sand buggy), 랜드요트(Land yacht)등의 활동을 도입하기도 함.
- 해수욕장 중심형 관광지의 도입 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다음 <표>와 같음. 이와 같은 시설의 도입과 레저 활동의 편의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넓은 모래사장이 요구되며, 배후지와 기온, 바람, 태풍, 천기일수 등의 기상조건, 수온, 수질, 조류, 파고, 해양지질 등의 해양조건 등이 고려 갖추어져야 함.
- 특히, 최근에는 해수욕과 활동을 공유하는 레저활동들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해변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공유 활동의 도입을 위해서는 서로 활동장에서의 중복이 생기거나 어업, 양식 등 생산활동과 마찰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해역 및 육지의 설정에 유의해야 함.

해안관광지의 개발형태해수욕장 중심형 해안관광지의 도입시설

구 분	필 요 시 설
수 영 시 설	• 수영해수역, 보트전용 출입구역, 다이빙대, 임대 보트, 용구대출소, 담수풀장, 미끄럼대, 보트세일링 수역, 서핑수역, 방파제
위생/탈의시설	• 탈의장, 귀중품 보관소, 화장실, 샤워장, 세면장, 욕실
휴게/편의시설	• 간이휴게소, 식당, 매점, 음수전, 피크닉장, 광장, 벤치, 시계탑, 보관시설, 수영용품 대여소
관 리 시 설	• 관리사무소, 감시전망대, 구호소, 파출소, 매표소, 유실물 관리소, 미아보호소, 안내소, 식당, 보호 울타리
경관/보호시설	• 수림지, 야생지, 화단
놀 이 시 설	• 어린이 놀이장, 야외 경기장, 피크닉장, 야외공연장, 산책로
교 통 시 설	• 도로, 주차장, 대중교통터미널
숙 박 시 설	• 호텔, 여관, 민박, 캠핑장, 휴양촌, 보양촌, 연금생활자촌

■ 마리나형 관광지

- 마리나형 관광지 개념은 개별시설인 마리나를 핵으로 하고는 있으나, 부대시설 설치와 일체적인 주변정비를 통해 바다를 배경으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및 레저활동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마리나 기지로서의 시설집적 및 번창과 지역과의 연계를 어떠한 방법으로 고려할 것인가가 주요 관건이 됨.
- 입지조건에 따른 분류로는 자연지형을 이용한 형태와 매립 등에 의한 신규개발형, 기존의 어항을 이용한 재개발형 등으로 구분됨. 개발주체에 따라서는 공공개발형과 민간개발형으로 나누어지며, 이용보트의 특성에 따라 소형보트 중심 또는 소형요트 중심, 마리나와 중·대형보트 중심 또는 중·대형요트 중심 마리로 나누어짐.

마리나형 관광지의 시설구성

구 분			구 성 시 설
기본 적 기 능	외 형 시 설		• 방파제, 이안제, 돌제 등 파랑방어 및 해안보호시설
	보 관/ 계류시설	수역	• 고정잔교, 부잔교, 계선항, 부표, 급수/급전 시설
		육역	• 선박보관소
	상하이동시설		• 램프(Ramp), 지게차, 크레인
	수리/급유시설		• 기계수리시설, 선박수리시설, 급유시설
	클럽하우스		• 레스토랑, 탈의장, 보관함, 샤워실, 쇼핑시설, 매점, 연수실, 화장실, 로비
	관 리 시 설		• 관리사무소, 구난구조시설, 통신시설, 감시전망대, 관제시설, 기상 및 해상정보제공시설
능 부 가 기 능	주 차 시 설		• 주차장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시설		• 담수풀장, 테니스코트, 낚시터, 유원지, 이벤트광장
	숙 박 시 설		• 임대별장, 리조트 호텔

■ 종합형 해안관광지

- 종합형 해안관광지는 연중 온화하고 저습한 기상조건, 대도시 시장과의 근접성, 교통조건의 편리성 등 혜택받은 환경조건,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장기체제를 염두에 둔 종합적인 관광지 개발을 지향함.
- 본격적인 종합관광지를 위해 육상에 골프장, 승마 클럽 테니스 클럽 등 각종 스포츠 시설, 박물관, 고급의류, 악세사리 등의 쇼핑시설, 공예품 및 미술품 전시판매장, 식도락을 위한 레스토랑 및 식당 등을 집적시킨 도시 시설 및 여가 시설의 설치도 필요하게 됨.
- 유럽의 경우는 해양성 관광지가 주류를 이루나 일본의 경우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산악고원형 관광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우리 나라는 산악형 관광지가 주류를 이루는데, 해안관광지는 대규모의 평탄한 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지가도 그만큼 비쌀 뿐만 아니라 방파제 등의 주변시설의 설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임.
- 그러나 관광패턴의 변화, 경제적 수준의 상승,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관심 등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에서도 해양관광지개발을 시작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특히 국내관광시장이 협소하고 계절적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단일 아이템(Item)에 의한 위험요소를 줄이고, 다양한 관광계층을 수용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으므로, 대규모 시설의 설치에 따른 초기투자에 대한 계획이 마련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음.

- 해양종합 리조트단지에 필요한 시설로는 다음 <표>와 같은 것들이 있음. 또한, 주변관광지의 도입활동 및 시설은 대상지구의 자연, 인문조건, 이용상황 등을 기초로 도입활동 및 시설을 검토하고, 관광객욕구에 부합되는 기본시설, 보완활동시설 등을 결정함. 이러한 도입기능 선정의 지구여건과 개발성격에 적합한 기능 등을 도입하여 주변지역과의 연계이용체제를 감안하여 선정하게 됨.

종합형 해안관광지의 시설구성

구 분	주 요 시 설 형 태
해양레크리에이션 시설	• 마리나, 해수욕장, 해안공원, 바다낚시공원, 다이빙대, 보트세일링 구역, 서핑구역, 담수풀장, 유람선, 해양조류공원
주변레크리에이션 시설	• 골프코스, 승마장, 테니스코트, 라켓볼장, 롤러스케이트, 볼링장, 공원, 실내체육관, 유원지, 산책로, 야간 레저시설
관광/문화 시설	• 회의장, 극장, 음악홀, 야외음악당,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수족관, 관광잠수선, 해중전망탑, 해상자료관, 선박박물관, 어업자료관, 지방특산물 전시장
숙 박 시 설	• 호텔, 콘도미니엄호텔, 여관, 연금생활자촌, 민박, 휴양소, 별장, 리조트맨션, 캠프장, 방갈로
행정/서비스시설	• 행정기관, 관광안내소, 여행사 대리점, 대중교통시설, 경비행장, 택이소, 하수처리장, 주차장
의 료/건강시설	• 병원, 진료소, 요양소, 의료원
상 업 시 설	• 음식점, 토산품점, 식료품점, 일용잡화점, 고급잡화점

주제별 도입활동 및 시설검토

주 제	도 입 활 동	시 설
물 (바다)	• 스킨스쿠버다이빙, 스노켈링, 수상스키, 제트스키, Ballon Tour, Para Sailing, 수영, 보트타기, 낚시, 겨울바다구경, 조정, 카누타기, 유람	• 수상분수쇼, 수상스타디움, 주변 조각공원, 유람선, 관광돛단배, 산호초, 페달보트
갯 벌 (해변)	• Air Boat타고 갯벌질주, 관찰, 해산물 채취대회, 해변에서 Race, 해변승마코스, 해변콘서트, 레이저쇼, 연날리기, 불꽃놀이, 캠프파이어, 기타 special events 개최, 갯벌바자회, 체력단련, 낙조구경	• 보트, 해변무대시설, 체력단련코스
야간 (night)	• Night Magic Show, 야간식물원관람, 밤 낚시, 야간관광코스개발, 야간에 개장하는 주제공원관람, 야간축제행사, 문화행사참가	• 식물원, 주제공원시설
악천우 또는 비수기	• 실내 Water Fun Park, 실내 Sauna, 승마, 눈썰매, 스키, 스릴, 겨울바다낚시, 겨울수상활동, 전시관, 박물관 관람	• 유희위락시설, sports complex, 승마 course, 인공눈썰매장, 겨울 등반course, Ice rink (호수), Race Park

활동에 따르는 도입시설 검토

활동구분	주요도입활동	주요도입시설
관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탐방 • 야생동물, 조류, 식물, 해양관찰 견학 • 역사유적지탐방 • 드라이브여행 • 특정목적지의 위락시설 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중전망탑, 해상, 산악전망탑, 수족관, 전망시설, 유적지, 사적지, 자연탐방로, 하이킹코스, 관광도로, 해양순환도로, 방목장, 주제공원(민속촌, Race Park, Water Park, Sea Life Park 등), 화훼단지, 조각공원, 수변공원
휴양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 • 휴식, 휴게 • 쇼핑 건강진단, 삼림욕 • 스포츠활동 • 연수, 집회, 교육활동 • 산책,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 해상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 야영장 등의 숙박시설, 골프장, 마리나, 해수욕장, 옥외 pool 피크닉장, 다목적 잔디광장, 테니스 코트, 낚시터, 레스토랑, 연수원, 청소년종합센터, 인공호수, 휴양촌, 재래식 수렵장
운동 및 놀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활동 • 수상활동(Motor boating, Water Skiing, Jet Skiing, Para Sailing, Yachting, Sailing, Winf Surfing 등) • 수변활동 • 유희(오락, 볼링, 당구, 양궁, 사격, 승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체육관, sports complex, 낚시장, 계류장, 물놀이장, 수상교육시설, 야외운동공원, Skate Rink, 승마course, Ski장, 눈썰매장, 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교양 및 문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관람 • 행사참가 • 정보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센터, 컨벤션센터, 기념공원, 도서관, 박물관, 실내외잔시관, 미술관, Art center, 문화이벤트 플라자, 방송국, 상설시장, 뮤지극장, 영화관, 야외concert hall

② 해양관광 관련 계획과 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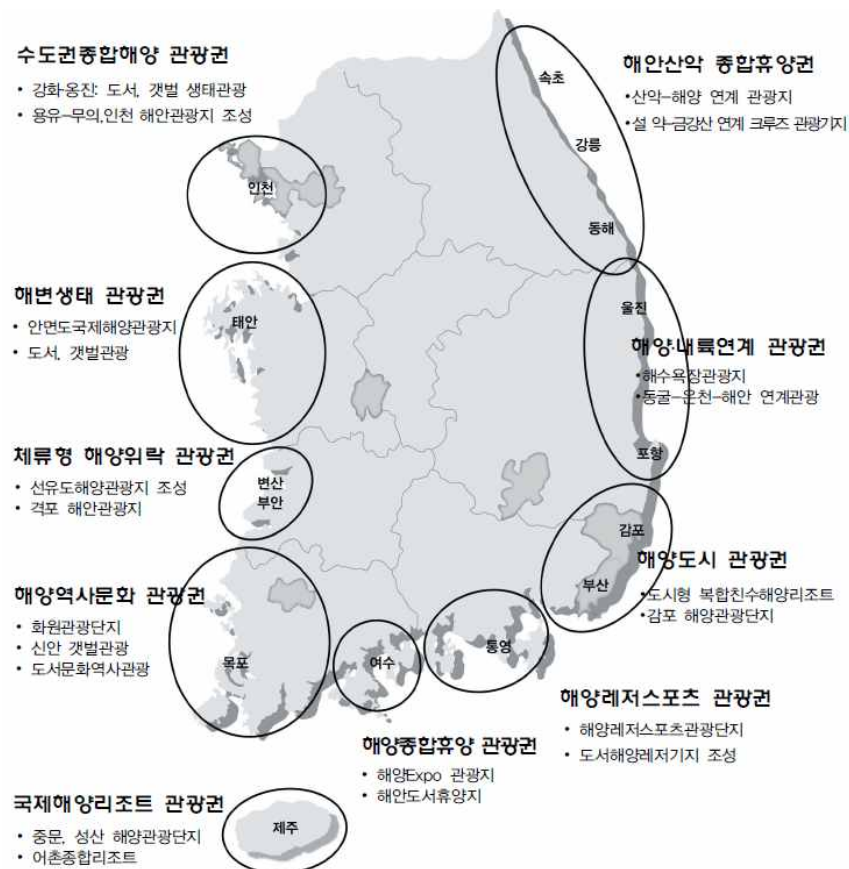
① 해양관광 관련 계획

■ 해양개발기본계획(2000~2010)

-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2000~2010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서비스산업을 창출이라는 정책과제의 세부과제로 해양관광을 포함.
- 전국 권역별 거점해양관광도시 지정·육성으로 전국 해안을 10개 해양관광개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마다 특색있는 해양관광도시 지정·육성으로 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계된 동·서해안 해양관광벨트 개발과 거점 도시 육성하고 국립 해양박물관 및 지역별 해양과학관 건립으로 국가를 종합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추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문 해양박물관 건립, 권역별 거점 해양관광도시에 해양과학관 및 수족관 건립 등임.

- 다음으로 해양레저·스포츠산업진흥은 여가시간 증대와 휴가제도의 다양화, 여행과 건강 증진을 겸한 연수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부응한 활동형 해양관광기반 조성, 마리나 시설 확충 및 레포츠 기반 조성, 해양레포츠 연수시설 건립 및 민간 해양체육활동 활성화, 경쟁사업 활성화로 국민에게 해양을 통한 여가기회 제공임.
- 선진국형 해양친수문화공간 조성은 항만친수공간 정비 및 새로운 해양관광 시설 설치, 해수욕장 자원 보전과 정비, 해양생태공원 조성 등이며, 마지막으로 2010 세계 박람회 개최는 2010년 세계 박람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여 해양관광의 획기적인 발전 전기마련, 행사 개최 후 박람회단지를 남해안의 해양관광거점으로 활용 등임.



권역별 해양관광개발권 기본구상

■ 해양 관광진흥 기본계획(2004~2013)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는 해양관광진흥을 위한 시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관광진흥계획 및 계획의 효율적 집행방안 등으로 해양개발기본계획 및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해양관광분야의 계획을 구체화한 계획으로 본 계획에 따라 각 분야별로 수립되는 개별 해양관광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주요 추진내용은 먼저 연안친수·문화공간조성으로 해안친수공간의정비·확충, 생태·문화관광의촉진, 해양문화 체험공간의 조성, 국민에게 다가서는 친수 향만의 조성 등이고 어촌관광의진흥으로 아름다운 농촌을 농촌관광의 추진 거점으로 육성,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관광부문 투자 강화, 관광 등 다기능 종합어항개발 촉진, 내수면관광 기반조성 등이고 해상교통관광기반확충으로 항로 다양화 및 여객선 현대화 적극 지원, 크루즈 관광사업 지원을 제시하였으며, 해양레저·스포츠기반조성으로 레저 선박의 대중화, 해양레저·스포츠 육성 및 지원, 레저 낚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음.

■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14~2024)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이며, 동법 제28조에 따른 해양관광 진흥시책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동법 제28조 제5항의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 포괄하여 수립하였음.
- 주요 추진과제는 첫째, 휴식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바다관광으로 먼저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촉진으로 해수욕장 매력도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콘텐츠 확충,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강화, 해수욕장 웹 사이트 개선 및 모바일 앱 개발 등 다각적 홍보 지원 등이고 해양치유관광 육성으로 해역별 해양치유자원 특성화 사업모델 개발, 해양헬스케어산업 육성 기반 마련, 해양헬스케어단지 조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해양휴양공간 조성·정비로 연안유희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해양레저·관광 지역 특화 시설사업 추진, 친수연안 조성 사업 추진, 해안 도보여행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제시하였고 항만구역내 해양친수공간 확충으로는 노후·유희 항만의 국제 해양레저·관광거점화, 국가미항프로젝트 추진 기반마련, 테마형 관광어항 정비사업을 제시하였음.
- 두 번째, 체험과 학습이 있는 즐거운 바다관광 부문으로 첫째 생태관광 활성화

화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해양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해양생태관광 정보서비스 강화를 제시하였고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 확대,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위상 제고 및 각종 대회 개최, 레저낚시의 대중화 기반 조성, 해중레저의 대중화 기반 조성 등을 제시하였고 마리나산업 고도화를 위해 마리나산업 육성 기반 마련, 한국형 레저선박 개발 지원, 요트관광 콘텐츠 개발 및 이용 편의강화, 마리나항만 등 레저선박 계류시설 확충 등을 제시하였음.

- 세 번째, 문화와 예술이 있는 아름다운 바다관광을 위해 먼저 해양문화자원 발굴 및 산업화 자원을 위해 유·무형 해양문화자원 발굴, 해양문화 콘텐츠산업 육성, 해양문화엑스포 개최 추진 등을 제시하였고 해양문화시설 확충 방안으로 국립해양박물관 운영 고도화, 지역별로 차별화된 해양문화시설 조성 등을 제시하였고 해양문화도시 브랜드 개발 방안으로 지역별 관광 특화 전략 수립 지원, 연안도시 축제를 통한 해양문화관광 활성화 추진 등을 제시하였음.

- 네 번째, 주제로 생활 속 이야기가 있는 정겨운 바다관광을 위해서는 어촌의 관광자원화로 어촌체험마을 확대 조성, 어촌관광 서비스 품질 제고, 어촌경관 개선사업 추진, 수산물 먹거리 관광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고 테마가 있는 연안 조성을 위해 해안테마마을 조성, 등대를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 해양디자인대전 개최 등을 제시하였고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 섬관광 기반 정비, 연안해상교통 여건 개선을 통한 섬관광 접근성 제고, 환경친화적인 무인도서 이용·개발을 통한 관광·휴양지 조성, 무인도서 현황도 및 GIS 기반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을 제시하였음.

- 다섯 번째,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바다관광을 위해 먼저 동북아 크루즈 허브 구축으로 크루즈 국내 기항 유치기반 마련, 관광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기항 매력도 제고,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마케팅 확대,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국민 크루즈 여행 대중화 등을 제시하였고 마리나 국제네트워크 구축으로 동북아 마리나 허브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동아시아 요트 크루징루트 개발 등을 제시하였고 여수박람회장의 국제해양관광허브화를 위해 박람회 준치시설 활용을 통한 해양관광 리조트 조성, 박람회장 집객 강화 등을 제시하였고 국제대회 및 행사 참여·유치를 위해 국제요트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해양관광 국제회의 참여 및 유치 추진 등을 제시하였음.

■ 광역권 해양관광개발계획

- 광역권 해양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51조(권역계획)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서 현재 해양관광벨트 사업은 3개가 계획되어 졌고 그 중 남해안권 관광벨트개발계획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서해안권과 동해안권 2개는 추진 중임.
- 광역권 관광개발계획은 지역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하는 면적계획으로서 관광객 이동성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자체의 분절적인 관광개발계획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임.

광역권 해양관광개발계획 현황

구 분	남해안권 관광벨트개발계획	동해안권 관광벨트개발계획	서해안권 관광벨트개발계획
계획기간	2000~2009	2003~2020	2008~2017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공간범위	부산, 경남, 전남 23개 시군	강원, 경북, 울산, 부산 11개 시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20개 시군
사업내용	총 64개 사업	총 25개 사업	총 22개 사업
사업비	41,455억원	4,681억원	40,967억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7),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2차 평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06),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2006), 서해안권 관광개발계획.

-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은 국가정책상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에 맞추어서 서해안 지역의 관광밀그림을 그린 계획으로 비전은 21세기 웰빙시대를 위한 한반도 해양관광 중심축 형성으로 설정하였고, 목표는 웰빙시대와 부합하는 국민관광 휴양지역, 해양, 생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통합 관광지역, 개발과 보전의 역사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선도지역, 장기적으로 국제적 수준의 동북아관광 거점지역으로 설정하였음.
- 이중 권역별 관광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는데, 경기도는 수도권 당일형 관광명소화 개발, 충청남도는 국제적인 종합해양관광 중심지대 조성, 전라북도는 자연과 지역문화가 공존하는 위락형 관광지대 조성을 제시하였음.
- 충청남도의 계획내용은 안면도-대천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레포츠 및 휴양거점으로 개발, 수도권 및 충청남도권을 당일 관광권으로 하는 관광지 개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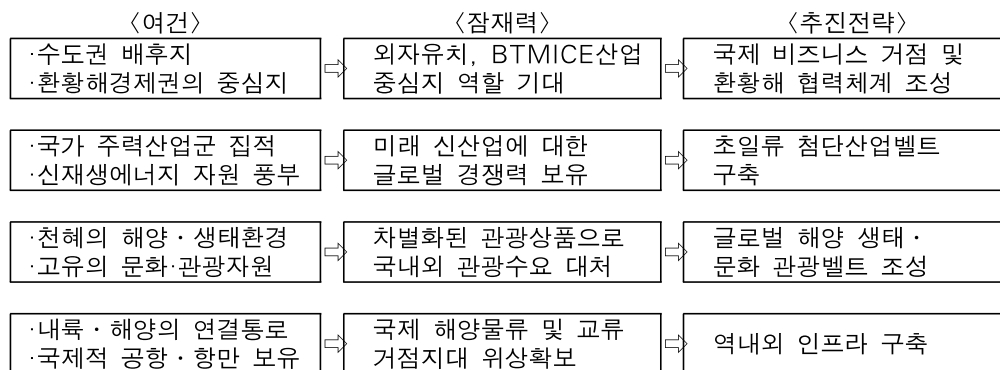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10~2020)

-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 마련하기 위해서 수립된 계획이지만, 계획적 배경은 환황해권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¹⁾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함.
- 계획의 성격은 서해안권을 환황해권 핵심지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안권 인접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초광역적 장기 발전종합계획, 서해안권의 지역적 특성 및 잠재력을 바탕으로 성장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선택하여 관련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략계획, 서해안권의 지역적 특성 및 잠재력을 바탕으로 성장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선택하여 관련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략계획적 성격을 가짐.
- 서해안권발전계획 수립의 의의는 환황해권에 대응한 서해안지역의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다는 점과 더불어서 세계적 차원, 국가차원, 서해안 차원에서의 기능과 역할²⁾을 정립하였고, 이를 위해 다양한 측면의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는 정책상 구호적인 측면에 그치던 서해안 지역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하위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결정에 많은 도움 및 지침을 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음.
- 비전은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이고, 목표는 지식과 기술이 융합된 동북아 첨단산업의 거점 육성- 국제비즈니스·첨단기술·생태관광 등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글로벌 경제의 관문이자 환황해권의 네트워크 허브 조성-인접국 및 국내 주요 거점도시와의 연계강화 및 대내외 인프라 확충임.
- 주요 전략은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권 협력체계 조성, 초일류 첨단산업 벨트 구축,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역내·외 연계 인프라 확충을 제시하고 있음.

1) 배경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고도성장, 한-미 FTA, 한-EU FTA, 한중일 FTA 등 대외적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해안권 초광역벨트 구축방안 마련, 서해안권을 국가경제를 선도하고 환황해권 소비와 투자를 유인할 성장축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수도권 및 내륙과 상생할 수 있는 서해안권 초광역개발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내적으로는 국토전체의 경쟁력을 제고이다.

2) 서해안권의 역할은 글로벌 경제의 관문(Global Gateway)이자 환황해권의 허브(Hub), 지식과 기술이 융합된 녹색성장의 교두보로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견인차, 사람과 문화, 지식과 정보 및 자본의 융합으로 제시하였다.

비전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			
목표	지식과 기술이 융합된 첨단산업의 거점		글로벌 경제의 관문이자 환황해권의 네트워크 허브	
추진 전략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역내외 연계인프라 구축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주요사업은 아래 표와 같으며, 충청남도는 국제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북부권의 아산, 서산, 당진의 항만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고, 산업과 관련해서는 북부권의 아산, 서산, 당진이 남부의 서천이 계획되어 있음. 관광과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에 계획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대부분이다. 연계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당진-대산간 고속국도, 충청선 산업철도, 당진항, 보령신항이 계획되어 있음.
-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의 계획내용은 국가차원의 계획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국가지원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 중심의 사업계획임을 알 수 있으며, 충청남도는 북부권 중심의 산업과 관광중심의 사업계획에 집중되어 있음.

서해안발전 종합계획의 관광부문 주요사업

전략	과제	사업	시도			
			인천	경기	충남	전북
글로벌 해양생태문 화관광벨트 조성	권역별 관광거점 육성	인천문화관광레저복합도 시	중구, 강화, 옹진			
		시화화성호권 해양레저콤플렉스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충남(태안)국제관광거점 조성			서산, 태안, 보령, 아산, 홍성, 서천	
		새만금권 복합휴양레저도시조성				부안, 고창, 김제
		국제관광객 유치를 위한 크루즈 기반 구축	인천	평택 항	당진 항	군산항 새만금 신항
		해양농경역사문화권 정비				김제, 부안, 고창, 정읍
	학습·체험형 관광벨트	강화역사문화관광지 조성	강화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학습공간 조성			서천	군산
	자연환경의 보전과 활용	서해안 하구역 보전을 위한 하구역 센터 건립	강화	김포		
		자연·생태자원의 보전과 관리			서천	고창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새만금

주)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재정리

② 해양관광 관련 법규

■ 유형별 법률 검토

-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양관광에 관한 통합 법령은 없으며, 대신 관광지개발, 시설 건설, 해양관광 활동 및 사업 등에 관한 35개의 개별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이러한 해양관광 관련 법률을 성격 및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기본계획으로서의 절차법적 성격을 갖는 기본법과 해양관광개발과 관련된 특별법, 둘째 해안과 해수면의 용도 및 구역 지정과 행위제한 등을 담고 있는 공간 관련법, 셋째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 관련법, 넷째 레저활동 및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이 있음.
- 기본법 및 특별법, 공간 관련법, 환경 관련법은 해양관광 시설 조성 및 관광개발에 있어 기초하여야 할 법령이며, 해양레저활동 관련법은 해양관광 활동 및 사업 영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해양관광 관련 법령

구 분	관련법	비고
기본법 및 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관광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5개
공간 관련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관리법, 연안관리법, 항만법, 수산업법,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염관리법, 도서개발촉진법, 방어해면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영해및접속수역법	12개
환경 관련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환경관리법,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호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자연공원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7개
해양레저활동 관련법	해운법, 선박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선박법,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11개

자료 : 국토해양부(2008),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방안.

- 먼저 절차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본법을 살펴보면 5개의 관련 법률이 있으며, 이 법률에 의거해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책은 하위 실천계획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구속력을 갖게됨. 따라서 해양관광지 개발 및 시설 조성 시 먼저 관련 기본법 및 계획을 검토하여 개발 및 건설 행위가 적법한지 혹은 상위 계획 및 시책과 상반되진 않는지 확인하여야함. 한편 법의 효력이 연안지역에 한정되는 특별법은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는 연안지역의 해양관광산업 진흥시책에 대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있음.
- 다음으로 공간과 관련된 법률은 총 12개가 있음. 연안지역의 구역을 지정하여 행위를 제한하는 연안관리법과 국토의 이용 용도 및 구역을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해역의 개발 및 이용행위를 제약하는 역할을 하는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관리법이 있음. 그리고 항만, 어항, 염전, 어장, 군사 지역을 개발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항만법, 어촌·어항법, 염관리법, 수산업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방어해면법의 적용을 받게 됨. 한편 농어촌정비법과 도서개발촉진법은 어촌과 도서지역의 개발을 유도 및 촉진하기 위한 법률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기본법적인 성격과 함께 개발 용도 및 구역을 설정하는 실체법적인 성격도 갖고 있음.
-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와 관련한 법률은 총 7개의 법령이 있으며, 그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개발 및 관광활동 행위를 제한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해양시설의 관리 및 관광활동을 규제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이 해양환경을 관리하는 핵심법령임. 한편 국립공원 혹은 도립공원 등으로 지정된 해안 및 연안은 자연공원법에, 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규제를 받음. 그 밖에 자연환경보호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은 연안지역보다는 육지의 오염원을 통제·관리하는 법령으로 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해양관광 활동 및 사업 영위를 위한 면허 및 인·허가, 해양 질서 유지, 안전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레저활동 관련법은 총 11개가 있음. 이중 수상레저안전법,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낚시어선법은 선박을 이용한 각종 해양레저·스포츠업, 바다낚시사업, 유람선(크루즈 포함)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허가 사항이나, 일반 레저인들이 관련 활동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면허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안전한 해양관광활동을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해두고 있음. 그리고 관광진흥

법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광업을 명시하고 있음.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트경기장은 공공체육시설에 포함되고, 요트장업은 신고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 소관부처별 법률 검토

- 다음 <표>는 소관부처별 해양관광 관련 법령을 보여주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개발 및 시설조성에 필요한 해양관광관련 기본법과 연안 공간의 용도 및 구역 지정,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을 관장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해양 활동과 관련된 선박, 항만, 수상레저활동, 해상질서를 관장하고 있어, 해양관광 진흥정책 및 관리업무의 주무부서라 할 수 있음.

소관부처별 해양관광 관련 법령

소관부처	관련법	비고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관리법, 연안관리법, 항만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선박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선박법,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15개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수산업법,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낚시어선법,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6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본법, 문화재보호법,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4개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호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자연공원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5개
지식경제부	염관리법	1개
행정안전부	도서개발촉진법	1개
국방부	방어해면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2개
외교통상부	영해및접속수역법	1개
소방방재청	유선및도선사업법	1개
합 계		35개

자료 : 국토해양부(2008),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방안.

③ 해양관광 관련 주요 법제도의 한계

■ 기본법 및 특별법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의 개발과 보전의 기본이 되는 법령이고, 관광기본법은 관광개발의 기본이 되는 법령임. 그러나 관광기본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육지위주로 관광개발계획 및 관광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해양관광 육성에 미흡한 면이 있음.
- 그리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는 해양관광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되게 다루고 있지 않으며, 해양관광개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방향 및 전략 수립이 미비한 실정임. 한편 해양관광은 위에서 법체계를 살펴보았듯이 여러 정부부처와 연계되어 있는데, 부처간 연계방법이 미흡함. 동·서·남해안특별역시 해양관광진흥 정책 수립과 국가 지원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만, 다른 법 및 계획의 연계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공간 관련법

- 어항 혹은 항만구역에 해양관광시설을 조성하거나 해양관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항(주로 국가어항)기본계획 혹은 항만기본계획에 시설 조성계획을 포함시켜야함. 한편 어항 혹은 항만구역이 아닌 해역 대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어장은 물권으로써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어촌이 발달한 지역의 연안에서 해양관광시설을 조성하거나, 해양관광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지역 어업인의 이해와 협조한 필요함.
- 한편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허가를 받고 사용료는 지급하여야 하는데, 마리나 및 해양레저사업자에게 이러한 사용료가 부담을 작용하여 민간의 마리나시설업 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해양관광 관련법

- 우리나라에서 모터보트, 요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자를 영위하려면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해 등록하여야 하고,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려면 조종면허를 취득해야함.
- 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하여 모터보트, 요트 등

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과 검사, 그리고 안전운항 규정도 마련해 두고 있음.

- 동 법은 수산동식물의 채취에 대한 조항이 없어, 레저보트 이용객들이 바다낚시를 즐길 수 없음. 그러나 레저보트 이용객들은 운항 자체를 즐기거나 해안경관을 감상하는 것과 함께 바다낚시를 흔히 즐기며, 레저보트 사업자들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등록함과 동시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으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한편 요트조종면허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 특히 국제대회 개최 시 문제가 되고 있음. 즉 해외 요트선수들은 모두 조종면허를 갖추고 있지 않아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요트대회에서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되는 것임. 향후 국제요트대회 개최 및 외국 국적의 선수들이 국내에서 요트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유람선 및 크루즈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거하여 유선으로 면허를 받거나 해운법에 의거하여 순항(巡港)여객운송사업으로 면허를 받아야함. 대체로 유선은 규모 적은 선박을 이용하여 연안을 순회하는 사업을 영위함.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선박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갖춘 대형 크루즈선으로 2천톤 이상이어야함.
- 바다낚시 사업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유료낚시터로 지정받거나 낚시어선으로 신고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낚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제한은 없음. 즉 바다낚시는 유어장과 낚시어선에서의 낚시에 대해서만 관리 및 규제를 하고 있으며,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 낚시행위에 대한 안전조치나 해양환경 오염 방지규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 그리고 어장이외 지역에 바다낚시시설에 대한 관리근거가 부족함.

③ 해양관광자원과 관광객 현황

① 유형별 해안관광자원 현황

■ 해안의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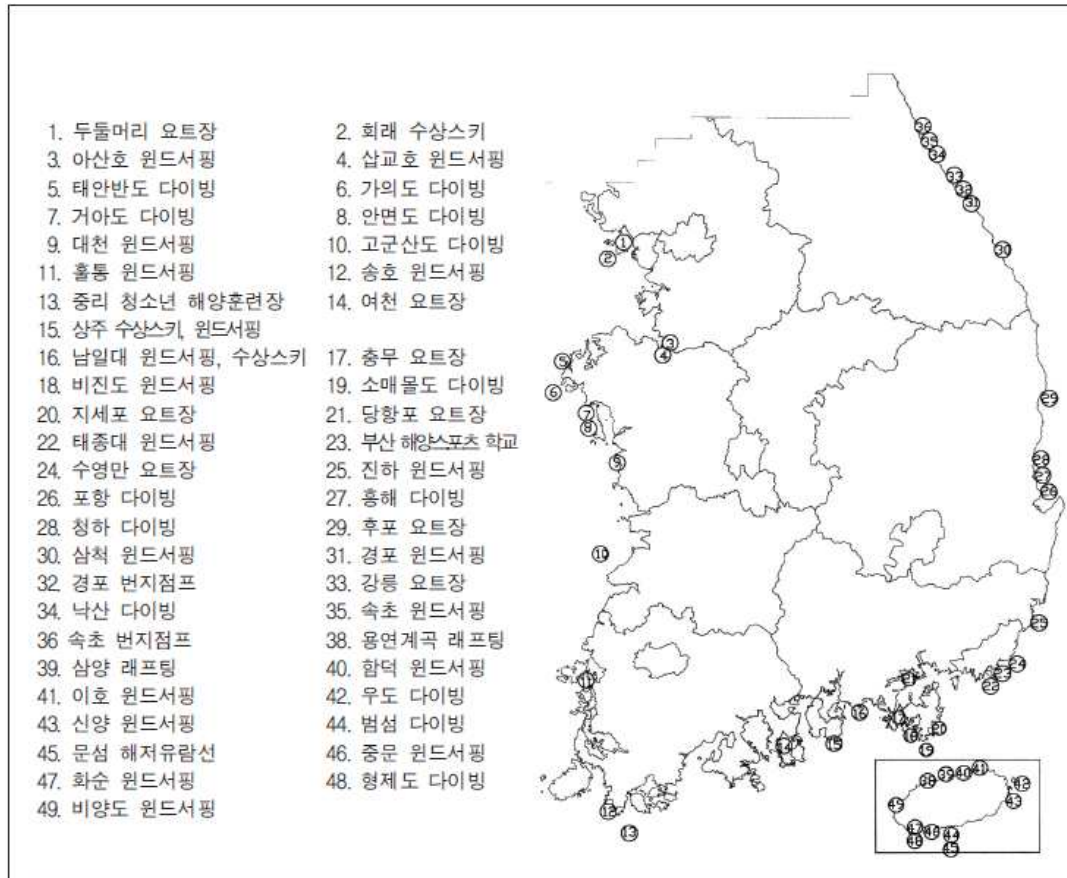
해양관광은 시장별 유형에 따라 해양의존형과 해양연관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양의존형은 스포츠형, 휴양형, 유람형으로 세분됨

- 스포츠형 : 해상공간에서 파도, 해류 등 자연조건을 활용하는 수면·수중 공간의 스포츠 형태
- 휴 양 형 : 해안을 배경으로 휴양과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
- 유 람 형 : 해상 및 해저에서 선박 등을 활용하여 관광지를 기항·운항하는 형태

◎ 스포츠형

- 해역별 요트장 개발 여건은 동·서·남해안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형적 조건은 남해안이 최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요트장을 개발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동해안은 개방성 해역이 많아 요트장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남해안은 지형적 조건이나 기후로 보아 요트를 즐기기 위한 최적의 자연조건을 지니고 있지만 수산양식업이 발달하고 수심이 얕거나 조차가 큰 지역이 많아 요트장 개발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윈드서핑과 해양다이빙은 각 해안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충남은 대천해수욕장과 태안반도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전국적으로는 제주도 신양해수욕장, 이호해수욕장,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전북 고군산군도, 광주 인근의 홀통해수욕장, 거제도 지세포, 부산 태종대, 울산 진해해수욕장, 강원도 속초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해양다이빙은 충남의 경우 태안반도와 안면도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전북의 고군산군도, 강원도 낙산, 경북의 포항, 청하, 홍해, 제주도의 범섬, 문섬, 섣섬, 추자도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해양레저스포츠의 장비 이용은 모터보트, 워터슬래드, 래프팅보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해양수산개발원(2006)에 의하면 통영시가 140,37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활동에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고비용의 요트는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이용객 현황이 전무한 실정

임. 워터슬래드가 전 지역에서 고르게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래프팅 보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은 활동 빈도가 높아 안전성 문제와 장비의 저림화가 이용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국내 주요 스포츠형 해양레크레이션 공간

◎ 휴양형(해수욕장)

- 해수욕장은 강원도와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해수욕장은 346개소로서 관리방법에 따라 시범, 일반, 마을 해수욕장으로 구분됨.
- 시범 해수욕장은 35개소(10.1%), 일반 해수욕장은 154개소(44.5%), 마을 해수욕장이 157개소(45.4%)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강원도가 102개소(29.5%)로 가장 많은 해수욕장이 분포하고 있고, 전라남도가 60개소(18.2%), 충청남도 46개소(13.3%)의 순으로 나타남.
- 해안별 지리적·자연적 여건에 따른 특성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특성을 활용한 개발방안이 요구됨. 서해안은 수심이 낮고 해변지역의 갯벌 등이 양호하며,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물이 맑고 모래사장도 발달하여 다양한 해변, 해중 이용이

가능하며, 남해안은 서해안과 동해안의 중간적 성격이 나타남.

우리나라 해수욕장 등급별 지역별 분포현황

구분	시범	일반	마을	계	
				개소(%)	해수욕장 길이 (km, %)
부산광역시	3	4	0	7(2.0)	6.97(2.3)
인천광역시	0	35	2	37(10.7)	35.80(11.6)
울산광역시	2	0	0	2(0.6)	2.40(0.8)
경 기 도	0	0	4	4(1.2)	7.60(2.5)
강 원 도	14	26	62	102(29.5)	43.64(12.9)
충청남도	1	11	34	46(13.3)	70.60(22.9)
전라북도	4	5	0	9(2.6)	10.56(3.4)
전라남도	9	25	29	60(18.2)	79.38(25.7)
경상북도	0	19	14	33(9.5)	26.94(8.7)
경상남도	2	18	7	27(7.8)	17.14(5.5)
제 주 도	0	11	5	16(4.6)	7.88(2.6)
계	35	154(44.5)	157	343(100)	308.90(100.0)

자료 : 해양수산부(2006), 해수욕장 유형별 관리·평가모델 개발연구.

◎ 휴양형(바다낚시)

- 해양수산부(2014)의 ‘2013년 낚시어선업 운영현황’에 의하면 '98년 2,628척에 불과했던 낚시어선은 '06년 5,198척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어선감척 사업 등 전반적인 어선세력 감축으로 현재는 4,390척이 신고되어 있음.
- 또한 낚시어선 수입액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13년 척당 소득액은 2천 8백만원을 기록하였고, 어민들의 주요 어업 외 소득증대 수단 중 하나가 되었음.

연도별 시도별 낚시어선업 신고 척수

(단위 : 척)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4,423	5,191	5,115	5,198	5,124	5,027	3,992	4,060	4,359	4,708	4,390
부산	183	196	185	183	199	156	200	233	236	212	198
인천	260	315	339	283	297	258	220	234	204	304	286
울산	66	56	79	89	94	63	71	71	70	71	61
경기	134	185	197	187	198	193	164	129	135	121	116
강원	752	787	693	640	593	624	377	325	306	518	461
충남	1,109	1,289	1,312	1,178	1,160	1,142	692	986	1,306	1,049	1,052
전북	191	185	204	214	209	191	189	220	219	223	194
전남	639	755	766	1,043	904	871	828	545	599	814	756
경북	79	96	84	101	108	135	140	145	157	126	110
경남	802	1,087	993	1,040	1,121	1,178	912	979	907	1,080	968
제주	208	240	263	240	241	216	199	193	220	190	188

자료 : 해양수산부(2014), '2013년 낚시어선업 운영현황'

- 그리고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13년 1,957천명을 기록하였고, 최근 10년간 연간 2백만명이 낚시어선을 이용하고 있는 추이를 볼 때, 안정적인 고객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96년 도입된 낚시어선 제도는 국민 소득 증대 및 주 5일제 등 여가 환경 개선과 더불어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현재는 체험어장과 더불어 대표적인 어촌의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았음.

연도별 시도별 낚시어선 이용객 수

(단위 : 명)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2,023,826	2,305,937	1,993,277	2,077,781	2,403,637	2,247,512	2,372,531	2,155,248	1,956,580
부산	79,546	72,599	77,221	92,906	106,588	169,537	132,075	127,288	107,052
인천	77,265	51,209	55,678	137,318	146,714	134,020	139,456	85,424	93,967
울산	11,958	15,747	10,408	14,823	26,930	24,671	22,779	13,750	14,610
경기	52,613	66,498	67,782	50,251	88,450	52,452	76,170	73,096	58,418
강원	87,630	99,605	96,717	114,987	95,131	156,103	104,024	133,721	117,393
충남	388,414	647,737	380,743	329,101	389,674	426,557	531,241	545,746	568,015
전북	96,034	83,401	80,238	72,736	119,000	169,985	97,505	133,469	152,269
전남	455,504	778,061	657,453	658,602	726,657	415,268	574,669	354,238	286,424
경북	52,780	37,263	119,693	97,793	177,271	154,110	106,052	112,898	147,996
경남	630,475	369,672	376,838	398,701	391,810	329,449	394,360	445,908	309,115
제주	91,607	84,145	70,506	110,563	135,412	215,360	194,200	129,710	101,321

자료 : 해양수산부(2014), '2013년 낚시어선업 운영현황'

◎ 유람형

- 해양의존형 중 유람형은 주로 연안 크루즈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 해상유람 수준임. 현재 우리나라의 소형 해상유람선(크루즈) 운항은 부산, 인천, 남해 도서 지역, 제주도 해안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거의 대부분이 특정항 주변의 해안 및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차별성이 낮은 단순 해상유람 수준에 불과함.
- 충남에 관광유람선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보령시에 2곳으로 보령해상유람선관광(주)과 (주)신한해운이 있음. 유람코스는 보령항-보령화력발전소&펭귄부부바위-악새섬(남근바위)&월도-허육도(삼형제바위)-몽덕도(거북이섬)-추도&소도-안면도 영목항-효자도-원산도-보령항 코스와 대천→녹도→호도→외연도가 있음.

■ 해양연관형

해양연관형은 활용유형에 따라 해양문화관광형, 관람교육형, 경관감상형으로 세분할 수 있음.

- 해양문화관광형 :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해양축제, 친수공간 등을 활용하는 형태
- 관람교육형 : 생태, 갯벌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람 및 체험위주의 교육 형태
- 경관감상형 : 도서, 일출·일몰 등 해변경관을 감상하는 형태

◎ 해양문화관광형(문화시설)

-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양문화와 관련된 시설로는 박물관 4개소, 과학관 3개소, 어촌민속전시관 3개소,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개소, 생태체험과 3개소가 구성되어 있다. 충남에는 박물관으로 태안군에 고남패총박물관, 서천군 서천해양박물관이 있음.

◎ 해양문화관광형(해양리조트)

- 해양리조트란 일정기간 동안 해안지구에서 휴양을 목적으로 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제형의 종합위락시설이 갖추어진 관광지를 말하며, 해외의 경우 활동유형에 따른 해양리조트와 기능전환 및 신규 개발을 통한 해양리조트가 잘 발달되어 있음. 국내의 해양리조트는 주로 비치형과 종합휴양형이 잘 발달되어 있으나, 기능전환을 통한 사례 및 대규모 인공개발을 통해 형성된 신규 개발형은 부족한 실정임.
- 충남의 경우 비치형으로 보령시에 한화콘도, 비체펠리스, 대천리조트가 있고,

태안군에 (주)리솜리조트, 한화호텔&리조트(주)가 있음.

충남 해양리조트

시·군	콘 도 명	객 실 수			
		계	66㎡ 이하	66~132㎡	132㎡ 이상
보령시	한화콘도	305	299	5	1
	비체팰리스	236		234	2
	대천리조트	100	32	68	
태안군	(주)리솜리조트	248	58	154	36
	한화호텔&리조트(주)	56		56	

해양리조트 시설의 개발 유형

형 태		내 용	해외사례	국내사례
활 동 유 형	비치형	해수욕을 중심으로 하고 그 밖의 해변 이용을 포함하는 해양성 레크레이션을 진흥하는 형태	파타야 비치(태국) 존스 비치(미국) 구다비치(인도네시아) 코파카바나(브라질)	해운대(부산) 경포대(강릉)
	마리나 형	마리나를 핵으로 하여 해양성 레크레이션 기자화를 목표로 하는 형태	마리나 델 레이(미국) 천사의 마리나(프랑스) 실 솔 베이(미국) 롱비치마리나(미국)	도남(충무) 수영만(부산)
	종합 휴양형	장기 체제를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휴양지 개발을 지향하는 형태	마이애미 비치(미국) 와이키키 비치(미국) 코스타 델 솔(스페인)	돌섬(마산) 중문(제주)
신 규 여 부	기능 전환형	어항, 창고 등을 포함하여 기본 기능을 전환시켜 새로운 레크레이션적 수변 이용을 촉구 하는 형태	센토사카린독(영국) 미스테이크시보트 페뉴얼 홀마켓(미국)	-
	신규 개발형	대규모적인 인공개발을 통하여 해양성 레크레이션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는 형태, 타 기능도 포괄적으로 개발을 전개	랑독루시옹(프랑스) 미션베이파크(미국) 아라모아나파크(미국)	화원(해남) 중문(제주)

자료 : 김성귀(2007), 해양관광론.

◎ 관람교육형(어촌관광 및 체험마을)

- 국내 어촌관광의 유형은 수산물 구매·시식형, 바다낚시형, 해수욕형, 생태체험형, 해양스포츠형, 어촌관광·휴양형, 어촌역사문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관광유형에 따라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및 즐길거리 등으로 세분되며, 갯벌, 철새, 일출·일몰 등의 어촌자원을 활용한 형태로서 주로 서해안 지역에서 나타남.

- 어촌체험마을조성 사업은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관광기반시설을 통한 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2년 기준 전국에 104개소가 조성되어 있음.

◎ 관람교육형(생태관광)

- 국내의 해안은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갯벌, 철새 등을 활용한 체험 및 조망과 관련된 관광상품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 갯벌을 이용해 체험관광 상품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경기도의 제부도, 대부도 지역, 강화도 남부해안, 충남 아산만, 천수만, 태안지역, 금강하구, 전북 줄포만 지역, 전남과 경남 지역 등 서해안과 남해안임. 특히 서해안은 북미 동부해안, 북해 및 아마존강 유역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갯벌 및 철새도래지

연번	습지지역	국제적으로 중요한 종수	습지유형	총개체수
1	새만금	16종	해안갯벌	126,278
2	금강 하구	16종	해안갯벌	55,603
3	낙동강 하구	13종	해안갯벌	28,162
4	아산만	12종	해안갯벌	75,880
5	남양만	12종	해안갯벌	29,613
6	순천만	10종	해안갯벌	35,261
7	강화도	10종	해안갯벌	24,037
8	영종도 남단	8종	해안갯벌	24,966
9	목포 압해도	8종	해안갯벌	26,660
10	함평만	7종	해안갯벌	10,573
11	서산 간척지 AB지구	5종	매립지 호수	48,379
12	금강	5종	하구둑 주변	47,786
13	해남만	5종	해안갯벌	13,187
14	무안 매안	5종	해안갯벌	8,012
15	영암 금호호	4종	매립지 호수	123,347
16	남해	4종	갯벌과 바다	16,361
17	천수만	4종	해안갯벌	11,485
18	영광백수	4종	해안갯벌	5,223
19	광양 갈사만	4종	해안갯벌	3,922
20	영종도 북단	3종	해안갯벌	2,031

자료 : 해양수산부(2000),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 경관감상형(도서관광)

-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는 3,139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산재해 있으며, 그 가운데 유인도 482개소, 무인도 2,710개소가 분포하고 있음.

갯벌 및 철새도래지

합계	유인도	무인도	면적	총인구(명)
3,139	482(429)	2,710	3,681.250(1,621.255)	817,871(160,084)

자료 : ()안의 수치는 행정안전부 도서 통계 중 연육 도서 53개 제외 수치.

- 도서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도서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주 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5년 이후 섬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897만명, 2012년 10,951만명으로 증가하였음.
-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한 국민여행실태조사 총량을 살펴보면 2012년의 경우 전체 관광객 수는 36,914만명으로 이 중 여객선 승선 인원으로 추정한 섬 관광객은 10,951만명으로 전체 대비 2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경관감상형(경승지)

- 현재 우리나라 경승지는 전국해양관광자원 실태조사(해양수산부, 2013)에 따르면, 전망대/조망시설이 전국에 61개소, 일출/낙조/경관도로 31개소가 있음.
- 전남이 1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이 15개소, 경남이 14개소, 충남이 12개소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② 해양관광객 현황

■ 국내 해양관광객 현황

- 해양관광은 국내 관광 전체의 50% 수준으로, 해수욕장, 낚시 등 전통적 강세분야와 함께 도보여행, 스킨스쿠버 등 신규 분야의 증가세가 뚜렷함. 이는 관광형태의 고급화, 장기화에 따라 숙박여행의 증가비율이 당일 여행의 증가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당일여행은 수도권(경기/인천),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숙박여행은 강원(33.0%), 충남(16.9%) 등 해수욕장이 발달된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관광활동은 성수기인 7~8월에 집중(당일여행의 56.2%, 숙박여행의 81.1%)되어 계절적 편중이 심각함.
- 해양관광객의 전망은 여가문화 확산에 따라 국민 국내여행이동총량은 '10년 3.4억일에서 '23년 약 7.7억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중 해양관광은 '23년 국민

국내여행이동총량 대비 65%인 약 5억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연평균 성장률을 약 8.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세부 활동별로는 요트·보트 등 수상레저, 스킨스쿠버 등 해중레저 및 크루즈 관광분야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해양관광 증가 전망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국내여행이동총량	339백만일	554백만일	675백만일	765백만일
해양관광분야	169백만일	305백만일	406백만일	497백만일
비중	50%	55%	60%	65%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2013), 국민여행실태조사 및 해양관광실태조사 인용 추정.

■ 주요 분야별 해양관광객 현황

◎ 크루즈산업

- 한국 방문 크루즈관광객은 '05년 3만명에서 '13년 80만명으로 부산(109회 20만명), 제주(185회 39만명), 인천(95회 17만명), 여수(17회 3만명) 등 최근 8년간 2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13년 국내 기항 414회 중 1박2일 이상은 60회로 전체의 14% 수준으로 체류기간은 1일 미만이 대부분임. 내국인 크루즈관광객은 3만명 수준이며, 국적 크루즈선(하모니호)이 '12년 한-일 노선에 최초 취항하였으나 실적 악화로 운항을 중단하였음.

연도별 크루즈관광객 증가추이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기항횟수	40	67	66	88	97	145	144	226	414
여객수(만명)	3.0	3.3	3.7	6.9	7.7	17.4	15.3	28.2	79.5

자료 : 해양수산부(2013),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안).

◎ 해양생태관광

-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체험·학습관광 시장의 형성으로 갯벌탐사, 탐조관광 등이 지속 성장하여, 국내는 '08년 랍사르협약 총회 창원 개최를 계기로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순천만의 경우 연간 300만명이 방문하고 있음.
- 순천만, 신두리 해안사구, 증도 습지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해양생태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국내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수는 '09년 5개소 246만명에서 '12

년 7개소 272만명으로 증가하였음.

◎ 해수욕장

- 전국에 총 358개 해수욕장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어촌계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해수욕장이 150개에 이름.
- 해수욕장 이용객은 매년 7천만명 이상으로 '11년 7,808만명, '12년 7,527만명, '13년 8,770만명이 이용하였으며,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특히, 해운대 등 상위 5개 해수욕장 이용객이 전체의 52.3%를 차지할 만큼 이용객 집중 현상이 뚜렷함.
- 한편, 이안류 발생, 해파리떼 및 상어 출현 등 해수욕장 안전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낚시산업

- 레저낚시인구(연 1회이상 활동)는 '05년 573만명에서 '10년 652만명으로 지난 5년간 13.8%가 증가하였음.
- 시장규모는 낚시용품 3,269억원, 서비스 분야 1조3,386억원 등 국내 낚시산업 시장규모는 1조7,141억원으로 추산됨.
- 정부는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13.12)하고 낚시터 환경개선, 용품시장 확대, 낚시업자 전문교육 등에 '18년까지 308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해중레저산업

- 국내 해중레저 동호인은 약 30만명이고 다이빙숍은 190여개소로 추산되고 있으며, 한국수중협회, 한국잠수협회 등 10여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교육 및 자격증 발급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경 집계에 따르면 연간 12만명이 해중레저를 체험하고 있음.
- 현재 해중레저와 관련한 법령 규정이 없는 실정이며, 해중레저 안전사고 방지 및 이동수단 합법화를 위해 입법이 필요한 상황임.

4 연육교 및 해저터널 관련 사례 검토

① 국내 거가대교 사례 : 부산과 거제도간 사장교과 해저터널

■ 거가대교 건설의 개요

- 경상남도 거제시와 부산시는 2004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사업기간 6년 공사로 2010년 12월 11일 개통되어, 시험운행을 거친 뒤 2015년까지 40년간 유료로 운영됨.
- 주요 특징으로는 대죽도와 가덕도 구간을 국내 최초의 침매터널로 시공함으로써 대형 컨테이너선 등 선박의 항해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음.

연도별 크루즈관광객 증가추이

구 분	내 용
사업구간	경남 거제시 장목 ~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천성동
사업규모	도로건설 L=8.2km, B=20.5km(4차로), 휴게소 1, 영업소 2 - 침매터널 3.7, 사장교(2개소) 1.6, 접속교(4개소) 1.9, 육상구간 1.0
총사업비	31,183억원 - 본선구간 21,395억원, 접속도로 8,838억원 (부산 3,992억원, 경남 4,846억원), 보상비 950억원
사업기간	2004. 12 ~ 2010. 12, 공사 6년, 운영기간 40년 BTO 방식

자료 : 김태영·김한도(2011), 거가대교, KTX 개통에 따른 경남관광활성화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거가대교 구간 및 사장교 전경

■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영향권

-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영향권 분석결과(경남발전연구원, 2011), 1차 영향권은 부산, 김해, 양산, 창원시, 거제, 통영, 고성, 사천, 진주, 울산남구, 울주군 등으로 나타남.

- 거가대교 개통 전후 비교에서 거제를 중심으로 60분 미만 권역의 변화는 크게 없으나, 90분 권역에 있어서는 창원, 김해, 부산시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거가대교 개통이후에 지역 간의 시간거리가 단축됐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120분 권역에 있어서는 밀양, 양산시가 포함되는 등 거가대교 개통 이후 거제와 경남 동부권과의 공간적 격차해소가 많이 해소되었음.
-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통행수요는 60분 미만 권역의 변화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아 출·퇴근 통행수요보다는 관광, 쇼핑, 업무 등의 수요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경남발전연구원(2011).

(그림2) 거가대교 영향권(개통 전)



자료)경남발전연구원(2011).

(그림3) 거가대교 영향권(개통 후)

거가대교 개통 전후 영향권 비교 분석

■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경남 교통영향 분석

-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개통에 따라 부산~거제 구간을 기존 130.6km에서 67.3km로 단축됨.
- 김해~거제구간은 기존 112.2km에서 64.3km로, 양산~거제 구간은 146.3km에서 88.6km로 단축됨.
- 통행거리의 단축으로 기존 부산~거제간 통행시간이 110.9분에서 65분으로 46분 단축되었으며, 김해~거제구간이 89.6분에서 56.8분으로 양산~거제 구간은 기존 120.6분에서 78분으로 감소함
- 거가대교 개통은 육로교통효과 뿐 아니라 부산역을 통한 KTX와 김해공항을 통한 항공수요의 증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 기존 울산, 부산, 김해, 양산, 창원에서 거제로 가는 통행경로는 통행시간의 감축 등으로 남해고속도로의 이용에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음
- 이외에 밀양도 일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대

적으로 통영은 거리감소가 적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감이 증가할 여지가 높으며,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일정 지역의 관광객을 일부 감소할 수도 있다고 예상함.

- 거제와 부산이 인접지역이 바뀔에 따라 거제시민의 부산지역 시설이용(김해공항이용, 문화관광, 병원진료 등)과 부산시민의 거제지역 관광활동에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개통으로 인한 통행거리 단축결과

(단위 : km, %)

구 분	거 제				통 영			
	개통전	개통후	차이	감소율 (%)	개통전	개통후	차이	감소율 (%)
부 산	130.6	67.3	63.3	48.5	116.6	90.6	20.9	18.8
김 해	112.2	64.3	47.9	42.7	93.1	84.3	8.8	9.5
양 산	146.3	88.6	57.7	39.5	127.2	111.9	15.3	12.0
창 원	91.7	72.3	19.4	21.1	72.7	66.2	6.5	8.9
울산(남구)	177.9	118.8	59.0	33.2	158.8	142.2	16.6	10.5

자료 : 김태영·김한도(2011), 거가대교, KTX 개통에 따른 경남관광활성화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주변 관광지 등 영향 분석

-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영향으로는 거제~부산간 여객선의 승객감소에 따른 휴업이 가장 큼.
- 아래의 <표>와 같이 거가대교의 건설에 따라서 거제, 통영의 대표관광지인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한려수도조망케블카의 관광객수는 각각 199%, 44% 상당의 증가폭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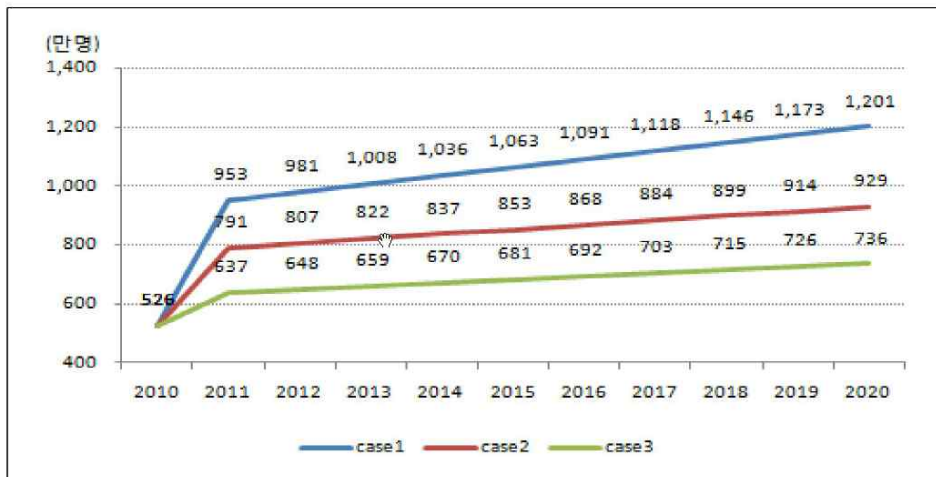
거제와 통영 관광지 방문객 수

(단위 : 명)

관 광 지		2008. 12	2009. 12	2010. 12
거 제	해금강, 외도	31,913	34,973	32,754
	옥포대첩기념공원	3,558	3,417	14,940
	거제도해수온천	37,247	50,834	56,620
	조선해양문화관	4,716	9,402	16,495
	포로수용소유적공원	33,091	36,166	108,163
	거제삼성호텔	2,779	2,472	3,183
통 영	한산도 제승당	16,855	20,822	20,072
	욕지도	12,342	27,517	20,106
	통영수산물과학관	8,924	9,840	11,954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	67,718	68,168	98,118

자료 : 거제시(2010), 통영시(2010) 내부자료.

- 2005~2008년 거제시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4%, 동기간 거제시 관광객 증가율은 8.61%로 나타남
- 거제시는 거가대교의 완공과 함께 2011년을 거제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도로 개통에 따른 효과를 기대함



자료 : 정대철(2011),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거제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거가대교 완공에 따른 관광객 영향 분석

- 거가대교의 개통과 성공적인 2011년 거제방문의 해 개최 시 최상일 경우 2011년 방문객이 순간 약 40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보통일 경우에는 약 250만명이 증가, 성과가 미비할 경우에는 약 10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2020년 성공적인 개최 경유를 가정하면 2010년보다 2배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거가대교의 개통은 타 산업보다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함.

② 거가대교 개통에 대한 거제·부산 주민여론의 검토

■ 관광객수와 주거인구 예상 변화

-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객 수 변화를 예상하는 문항에서 부산지역의 관광객 증가가 42.3%로 감소 25.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거제지역의 관광객 증가도 47.0%로 감소 24.8% 보다 높게 나타나 주 지역 모두 관광객 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음.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객수와 주거인구(통근 및 통학) 예상 변화

(단위 : %)

구 분		거 제	
관광객 증가	42.3	관광객 증가	47.0
관광객 감소	25.1	관광객 감소	24.8
주거인구 증가	24.9	주거인구 증가	7.5
주거인구 감소	21.4	주거인구 감소	16.0

자료 : 정대철(2011),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거제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개통시 이용의사와 목적

- 거가대표 개통시 이용의사 및 목적에서 이용할 의사가 82.5%로 집계되고, 주요 목적이 관광 29.6%, 쇼핑 23.4% 등이란 응답이 나와 향후 거제는 관광목적 방문과 부산으로의 쇼핑, 문화 측면의 유출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

거가대교 개통 시 이용의사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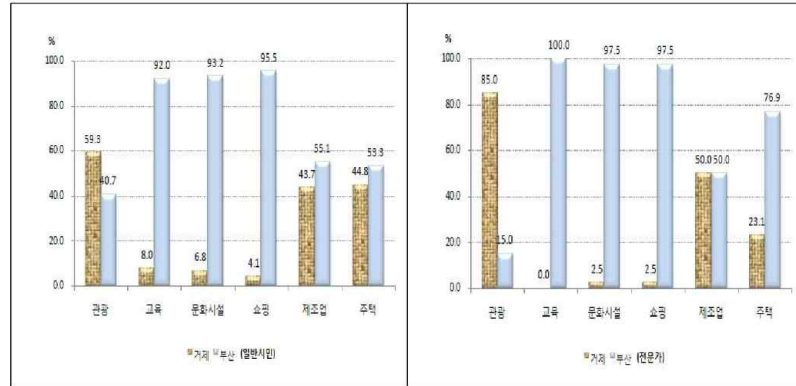
(단위 : %)

이 용 의 사		응답률
있다		82.5
이 용 목 적	관광	29.6
	쇼핑	23.4
	업무	19.2
	의료	9.7
	출퇴근	4.5
	기타	13.7
없다		12.5
잘모름		6.0

자료 : 정대철(2011),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거제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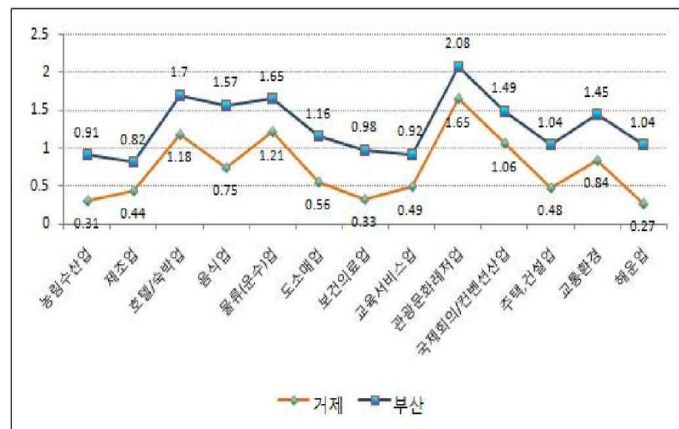
■ 부산과 거제의 경쟁력 비교와 산업별 영향분석

- 부산과 거제의 경쟁력을 비교에서 관광부문이 경쟁력을 가진다고 응답했으며 교육, 문화시설, 쇼핑, 주택분야가 부산이 거제시보다 경쟁력을 가진다고 응답.
- 즉, 거제시는 관광분야외의 타 분야에서는 부산시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많았으며, 향후 거가대교 개통에 따라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각 지역의 산업별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부산시민 및 거제시민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음.



자료 : 정대철(2011),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거제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부산과 거제의 경쟁력 비교

- 부산의 경우 관광·문화·레저업에서의 영향이 2.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호텔숙박업(1.70), 물류(운수)업(1.65), 음식업(1.57), 국제회의/컨벤션업(1.49)의 순서로 나타남.



주1) 영향도는 -3(부정적) ~ 0(영향없음) ~ +3(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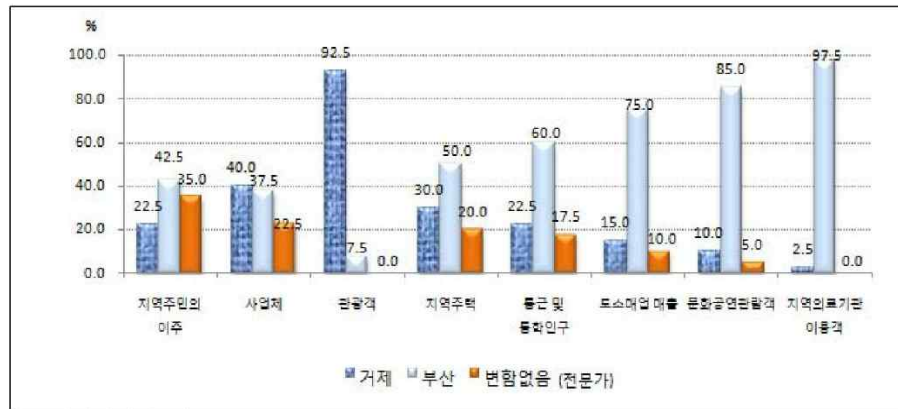
자료 : 정대철(2011),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거제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산업별 영향분석 설문 결과

■ 거가대교 개통 후 예상 변화

- 거제지역의 경우 역시 관광·문화·레저업에서 영향이 1.65로 가장 높았으며 물류(운수)업(1.21), 호텔숙박업(1.18), 국제회의/컨벤션산업(1.06)으로 나타남.
- 모든 산업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거제지역보다 부산에서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거가대교 개통 후 예산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문분석 결과, 거제시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란 응답이 92.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사업체 증가부문이 40.0%의 응답을 보이며 부산의 사업체가 증가할 것이란 응답 37.5%보다 2.5%

높은 결과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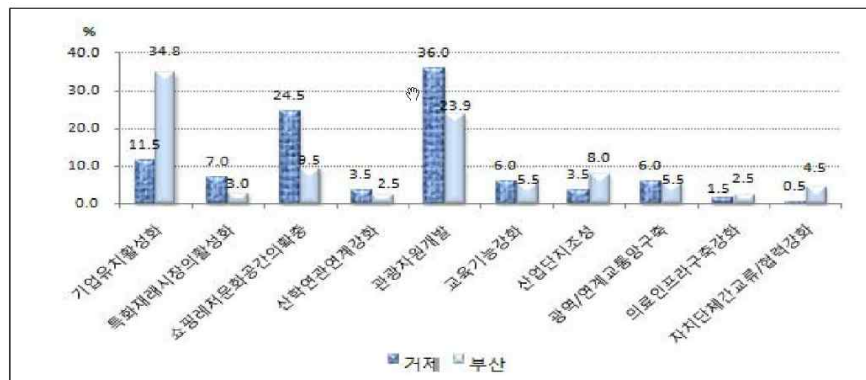
- 즉, 전문가들은 관광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부산으로의 이용률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여 거제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부문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발전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됨



자료 : 정대철(2011),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거제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거가대교 개통 후 예상변화

■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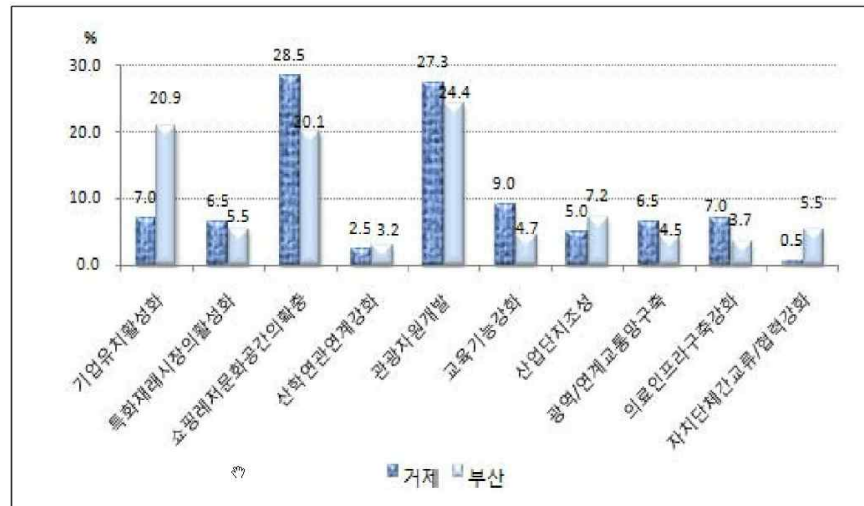
-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활성화 방안(1순위) 설문에서 부산은 기업유치 활성화 (34.8%)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거제는 관광자원개발(36.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쇼핑레저문화공간의 확충(24.5%), 기업유치 활성화(11.5%) 순임.
- 부산과 거제의 경제활성화 방안(1+2순위) 설문에서 부산은 관광자원개발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거제는 쇼핑레저문화공간의 확충이 28.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관광관광개발(27.3%), 교육기능강화(9.0%), 기업유치활성화와 의료인프라구축 강화(7.0%)의 순서로 나타났음.



자료 : 정대철(2011),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거제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활성화 방안(1순위) 설문결과

- 따라서 거제시는 쇼핑레저문화 부문의 부산으로의 유출 감소·거제시로의 유입 증가와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한 거제관광산업의 발전에 중점을 둔 경제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교육과 의료 등의 인프라 구축 강화를 위한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임.



자료 : 정대철(2011),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거제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활성화 방안(1순위+2순위) 설문결과

■ 경남의 대응정책

- 경남의 대응정책에 관한 설문에서는 관광개발 활성화가 52.5%, 도로교통 및 주차장 확충·정비 20.0%, 주거환경 개선·교육시설 확충이 각 7.5%, 산업개발 활성화 2.5%, 모름/무응답이 10.0%순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 상 거제시의 활성화는 관광자원개발 등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 확립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따라 거제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관광자원개발과 쇼핑레저 등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거가대교 개통 후 경남의 주요 대응정책

(단위 : %)

설문문항	응답률
관광개발을 활성화해야함	52.5
도로교통 및 주차장을 확충·정비해야함	20.0
주거환경을 개선해야함	7.5
교육시설을 확충해야함	7.5
산업개발을 활성화 해야함	2.5
모름/무응답	10.0

자료 : 정대철(2011),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거제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② 해외 관광활성화 사례분석3)

■ 일본 세토대교

◎ 세계최장의 도로·철도 겸용의 대교

- 1988년 전장 9.4km(해협부)의 도로·철도겸용 대교로 혼슈와 시코쿠섬을 잇는 세토대교는 9년 반 동안 1조 1,200억엔의 건설비가 투입되었음
 - 해협부 9.4km에 6개의 교량이 현수교, 사장교, 트러스교의 형식으로 다섯 개의 섬을 징검다리 삼아 연결됨
 - 세토대교는 세토 내해의 5개 섬인 ‘히츠이시섬’, ‘이와구로섬’, ‘와사섬’, ‘요섬’, ‘미즈고섬’ 등, 5개의 섬에 6개의 다리가 건설
- 세토대교의 현수교는 2층 구조로 상부는 4차로 자동차 전용 도로, 하부는 JR(Japan Rail-road) 세토대교선이 지나감
 - 장래 신간선 복선을 병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내진설계가 되어있음
- 또한 세토대교 건설로 교통시간이 절감되었으며 건설전의 120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되었음
- 세토대교를 통해 경제활성화 및 문화교류 촉진 등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것으로 평가됨



자료 : <http://www.setoohashi.com/index01.php>

세토대교전경

◎ 세토대교 가교기념관

- 세토대교의 개통을 기념하여 지어진 10.2ha의 메모리얼 파크로 다리를 테마로

3) 태안군(2015),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거점 조성 타당성 연구

하는 특이한 기념관임

- 돔 형태의 독특한 외관을 지니며, 반원형의 북 모양에 교각이 있음
- 건물 지붕이 다리로 되어 있어서 계단을 걸어 올라갈 수 있음

○ 세토대교기념관은 출입구 홀과, 전시관, 체험코너, 영상관으로 구성됨

- 출입구 홀은 대형 멀티영상과 지형모형으로 교통과 경제, 문화의 대동맥인 세토대교의 웅대한 모습을 소개함
- 전시관은 9년에 걸친 교량건설 공사를 움직이는 모형과 영상 등을 소개
- 체험 코너에는 세토대교를 건너면서 섬을 관광할 수 있으며 세토대교와 세계의 교량들과 기념 촬영할 수 있는 곳임
- 영상관에는 세토대교의 웅대한 아름다움과 사람, 정보 등의 가교역할로서 세토대교를 그린 영상물을 상영하는 곳임



자료: <http://www.encyber.com/travelworld/theme.php?masterno=560959&order=1>

세토대교 가교 기념관

- 기념관 외부의 높이 132m의 전망타워와 잔디광장, 공연장, 분수대 등도 있으며 세토대교 관광의 거점지로 각광받고 있음
- 오미 섬의 ‘하나구리세토 전망대’와 하카타 섬의 ‘호코 산’에서 세토대교를 조망 할 수 있음

◎ 주변지역의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유치

-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단지 조성 등의 대규모 개발계획은 없으며, 주로 주변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추진
- 기존도시를 이용한 역사중심의 관광활동과 교량 자체관광명소화가 되어있음
 - 테마별 관광투어(전통공예기술코스, 사찰순례코스, 일본문학·시감상 코스 등)

를 통한 관광객 유치 증대

- 세토대교 관광시 유람선투어, 버스투어, 유람선 및 버스복합투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주변 관광자원 연계 관광코스 개발 사례

구 분	투어명	내 용
유람선투어	세토나이카이 유람선	세토나이카이주변이 역사유적지를 둘러보는 프로그램
	다도해정기유람선	사카이가함해상공원과 세토대교 운행
버스투어	도모테쓰버스시내 정기관광	후쿠야마주변의 유적지를 운행
	쥬코쿠버스 정기관광	후쿠야마주변 다이샤쿠코계곡 운행
	오카야마의 버스관광모델코스	오카야마주변 및 세토나이카이 관광
유람선 및 버스 복합투어	오카야마유람선·버스복합투어	오카야마주변 및 쿠라시키, 세토나이카이를 유람선 및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1박2일, 2박3일코스)

- 세토대교의 차도아래 철골구조물인 ‘우즈노미치’는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조성

- ‘우즈노미치’는 소용돌이길이라는 뜻이며, 입장료를 받음

◎ 지역홍보를 위한 광역협의체 구성

- 세토나이카이 주변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광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노력
 - 공공과 민간이 현 및 시의 레벨에서 각종 관광지원기구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홍보 및 안내활동을 수행함
 - 현 및 시 관광담당기구: 관광진흥과, 관광물산과, 상업관광과, 관광진흥실, 물산관광사무소 등
 - 현 국제교류기구: 국제교류센터, 국제교류협회 등
 - 현 및 시 관광협회, 시 관광안내소, 기타 관광안내 : 숙박연맹, 버스관광회사, 철도관광서비스센터 등

■ 일본 아카시해협대교

◎ 아카시와 아와지섬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현수교임

- 아카시해협대교는 1998년 4월 개통한, 길이 3,991m, 중간경간장이 1,991m로 가장 긴 현수교 임

- 아카시대교는 계획, 조사, 설계, 시공까지 약 40여년이 걸림
- 최대풍속 80m/sec(설계풍속 60m/sec)의 풍하중 및 리히터 규모(Richter scale) 8.5의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는 방풍 및 내진설계로 건설됨
- 아카시해협대교 건설을 통하여 오사카, 고베와 이와지, 시코쿠와 등의 교통접근성이 더욱 좋아짐

◎ 교량 주변의 관광시설 조성

- 아카시해협대교는 ‘꿈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불리며 주변에 많은 관광시설이 갖춰져 있어 새로운 관광지역으로 부상함.
- 야경이 아름다워 ‘펄·브리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계절이나 요일·시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빛깔의 조명이 켜져 야간의 경관이 매우 아름답음

① 마이코해상공원

- 마이코 해상공원은 아카시해협대교를 체험할 수 있는 해상프롬나드, 다리의 과학관, 메이지천황 와카를 새긴 비나, 중요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중국의 혁명가 손문(孫文)의 기념관, 그리고 한가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지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 <http://www.soapdoll.pe.kr/658>

마이코 해상공원 전경

- 다리의 과학관은 아카시해협대교를 비롯해 최고수준의 교량건설기술을 알기 쉽게 해설해 놓은 사이언스뮤지엄로 아카시해협대교를 지척에 두고 밝은 남서유럽의 항구를 컨셉으로 하여 탄생한 워터프론트임
- 손문(손중산)을 기념하는 박물관으로 2001년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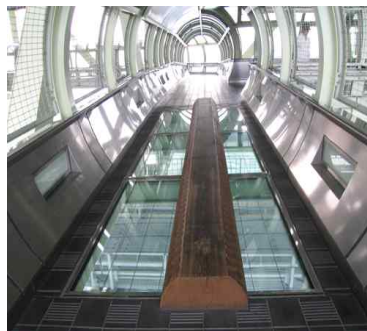


자료 : <http://www.feel-kobe.jp/hangul/sightseeing/suma.html>

마이코해상공원 주변 관광시설

② 마이코해상프롬나드

- 마이코해상프롬나드는 아카시해협대교와 동시에 시공되어 높이 약 47m, 육지로부터 약 150m 아카시 해협에 돌출한 연장 약 317m의 유람식 산책길임
- 마이코해상프롬나드는 아카시해협대교 내부에 마련된 전망시설로 해협을 왕래하는 선박을 다리위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1층은 아카시해협대교를 알기 쉽게 해설한 자료와 DVD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 교육의 장소로 활용됨
- 또한 바닥이 유리로 되어있는 유람식산책로(해상47m)를 통해 바다를 볼 수 있으며, 전망광장과 커피숍, 레스토랑 등이 있는 전망라운지가 있음



▲해상 47m의 나무다리



▲유리바닥에서 보이는 바다

자료 : <http://www.soapdoll.pe.kr/658>

마이코해상프롬나드

③ 아와지 하이웨이 오아시스

- 아와지 하이웨이 오아시스는 아카시해협대교를 건너 아와지휴게소에서 바로 직결되는 아와지섬 공원 안에 있음
- 이 시설은 고속도로의 휴게시설과 도시공원, 휴양공간, 집회공간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추어 다양한 목적의 이용객을 유도함

- 아와지 하이웨이 오아시스는 아카시해협이 보이는 수려한 경관과 꽃과 숲으로 야생조수의 공간이 어우러져 있음
- 또한 레스토랑, 쇼핑센터, 숙박시설, 결혼식장, 수영장, 놀이시설을 갖춰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갖는 도로로서 새로운 도로의 전형을 보여줌
- 별관 폰테메일과 오아시스관이 있으며, 오아시스관 1층에는 관광지의 백화점 지하 식료품 코너를 이미지한 물산관과 카페, 2층에는 본고장 아와지섬 근해에서 잡힌 신선한 제철 어패류를 사용한 향토 생선요리 전문점 ‘미케야’, 별관에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폰테멜’ 있음



▲아와지하이웨이오아시스위치도



▲아와지하이웨이오아시스 전경

아와지 하이웨이 오아시스

③ 국내 연육교 관광활성화 사례분석4)

■ 창선·삼천포대교

◎ 창선-삼천포대교 주변 개발사업

- 주변 개발사업을 통해 관광수요를 흡입할 수 있는 남해안 관광명소 개발을 방향으로 함
 - 기간 : 2001년~2010년
 - 사업비 : 7,700백만원
 - 사업규모 : 경남 남해군 204,100m² 규모
 - 시설 : 콘도, 산장형 여관, 상가(Hits 집, 레스토랑), 수산물 직판장

4) 태안군(2015),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거점 조성 타당성 연구



자료 : <http://www.nongchon.or.kr/krmain/>

남해·창선 연육교 주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조감도

○ 추진현황

- 2001년 4월 남해·하동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경남도로부터 승인 확정(개발 촉진지구내 투자개발 가능)
- 2000~2004년까지 공공부분 사업비 60억원, 민자 152억원을 투자하여 33,057m² 규모의 창선대교타운상가 조성 완료
- 재원조달계획 공공 60억원, 민자유치 724억원

○ 2003년 지역균형발전 연찬회 우수사례에 선정됨

-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으로 급증할 관광수요에 발빠르게 대처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다양한 민간투자 유치로 주변지구를 개발함으로써 관광객 편의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음

○ 주변 개발사업으로는 주차장 확보와 도로 확장공사, 방파제 공사 등 공공 기반 시설을 조성함

○ 민자사업으로 3층 규모의 단항 회센터, 범선형 수협 활어위판장 및 회센터, 자동차 극장 등을 유치하였음

◎ 창선 진동지구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과 향후 제2남해대교와 여수를 잇는 한려대교 건설이 가시화됨에 따라 복합휴양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마련
- 남해군이 종합휴양도시로 급부상 하는 기반 마련
 - 기간 : 2007년~2012년
 - 총사업비: 1,360억원(공공 160억원, 민자 1,200억원)

- 개발면적 : 1,642,667m²

- 공 공 : 도로, 주차장, 오수처리장, 공중화장실

- 민 자 : 콘도미니엄, 체육휴양시설(골프장 18홀)클럽하우스, 레저타운, 요트장

○ 개발효과

- 체육휴양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종합휴양도시로의 급부상

- 주변의 광양만권 및 진사공단을 비롯한 남부권 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관광 수요 급증

- 군내 관광인프라 확충(스포츠파크, 해안절경)에 따른 관광객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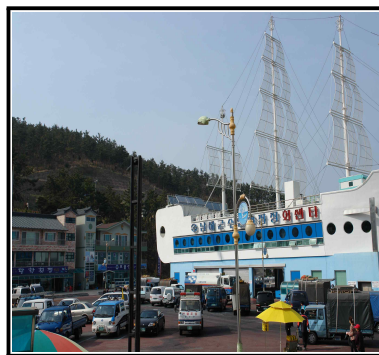
◎ 주변지역 이용현황

① 창선대교타운

○ 창선-삼천포대교 주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는 조성완료 상태임

○ 주차장, 자동차극장, 수협 활어위판장, 유람선 선착장, 관광안내소, 농수산물판매장, 횃집타운이 잘 갖춰져 있음

○ 창선대교타운에서 바지락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치함



▲ 횃집타운



▲ 자동차극장



▲ 바지락축제 행사장



▲ 창선유람선대표소

창선대교타운

② 삼천포 야경축제 및 삼천포대교 마라톤 대회

- 삼천포 노을마라톤대회는 사천시가 주최하고 하프, 10Km, 5Km이며, 4,000여명이 참가한 대회임
- 삼천포대교마라톤대회는 삼천포대교의 개통을 기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대회임
- 전국에서는 드물게 개최되는 특색 있는 마라톤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함

③ 남해 다랭이마을

- 2002년 농업진흥청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에 선정됨
 - 참가자들은 직접 논에서 씨레질을 할 수 있으며, 낱 새끼줄로 줄씨름을 하며, 모내기, 지게지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음
 - “다랭이 축제”는 인간씨레질, 새끼줄 씨름, 모내기, 논두렁 달리기, 지게지기 경연을 내용으로 한 체험축제임
- 국가특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다랭이논이 있음
 - 다랭이 논은 계단 모양의 논은 보통 평지가 없는 산간오지마을의 비탈진 경사에 만들어진 논을 말함
- 다랭이마을은 영화 “맨발의 기봉이”촬영지로서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음

■ 여수 돌산대교

◎ 돌산공원

- 돌산대교의 개통을 기념하기 위하여 공원이 지정
 - 1986년 4월 25일이고 공원이 지정되었고, 1987년 5월 19일에 공원조성이 결정되었음
- 돌산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면적은 289m²(국유지 77. 사유지 212)임
- 주요시설물로는 상가, 산책로 등이 있음
 - 상가(횃집)가 5동 29칸이며, 주차장은 3,554m², 화장실 4동, 매점은 2동 등이 있음
 - 충혼탑, 산책로가 있으며 좌, 우측으로 여수 시내 전경을 볼 수 있음
 - 공원 정상에서 여수 시내, 장군도, 돌산대교 야경 등을 감상할 수 있음
- 여수타임캡슐 1999
 - 타임캡슐은 1999년 10월 15일 매설하였으며, 2098년 4월 1일 개봉할 예정임

- 그러나 공원진입로가 좁고 굴곡이 있어 차량 통행 시 어려이 있음

◎ 모형 거북선

- 돌산공원 아래 유람선 선착장부근에 위치하고 있음
- 모형 거북선은 각종 고증을 통해 실물 크기로 건조하였음
 - 선내구조는 2층으로 단층은 당시 병사들이 전투하는 모습을 인형 130개로 재현하였으며 전투장비로서는 현자포, 천자포 등 14문을 복제 배치
 - 하층은 24칸의 각 선실에는 병사들의 생활상을 인형으로 재현
 - 16본의 노와 두개의 돛을 겸용하고 선도에 있는 용머리에는 유황염초를 태워 연기를 뿜을 수 있도록 제조됨
- 외부에서 뿐만 아니라 내부도 직접 들어가볼 수 있어 관광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됨
 - 모형거북선에 유료입장을 통하여 수입을 창출하고 있음(입장료: 1200원)

◎ 전라남도 수산종합관

- 부지면적은 6,443㎡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어 98년 5월 개관하였음
- 전남수산종합관은 해양자원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전시관임
 - 전남도내 해양수산문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곳에 전시하여 해양수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교육장으로 이용됨
- 3개의 전시관, 수족관, 수산종묘배양장, 시청각실 등이 있음
 - 해산열대어와 각종 수산동식물의 박제·화석·표본 278종 461점이 전시되어 있음
 - 체험조타실은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설이 갖춰져 있어 선박을 조종하는 듯한 느낌을 줌



▲ 돌산공원 전경



▲ 여수타임캡슐



▲ 모형거북선

돌산대교 주변 시설

④ 국내외 사례검토의 시사점

■ 연육교 건설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

- 연육교 건설을 통하여 단순히 교통수단으로의 이용뿐만 아니라 야간조명 및 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관광시설화 함
- 교량과 주변지역의 특성을 살린 워터프론트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도모 함
- 일본 아카시 해협대교의 예처럼 연육교 건설시 보행 및 조망을 위한 해상 산책로, 전망대, 레스토랑 등을 조성함
- 교량 주변에 공원, 상업시설, 주차장, 등을 건설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단지로의 개발
- 일본 아와지 하이웨이 오아시스의 예처럼 고속도로의 휴게시설과 도시공원, 휴양공간 등의 시설을 복합화 하는 방안

■ 주변 관광지와 연계할 도모

- 관광활동을 위한 대규모의 개발 보다는 주변 자원을 연계 하여 활용하는 관광 개발을 추진함
- 주변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관광 투어를 개발(유람선 투어, 낚시 투어, 해양 레포츠 투어 등)

■ 지역홍보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 주민과 공공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홍보 및 안내활동을 수행함
- 군의 관광담당기관 및 지역의 주민단체, 상인 단체들 간의 공동 노력

■ 연육교를 활용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 삼천포 대교의 예처럼 야경축제 및 불꽃놀이, 마라톤 대회 등 지역과 연육교를 활용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 및 연육교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 마련

2.

대전-태안간 연육교 건설의 변화전망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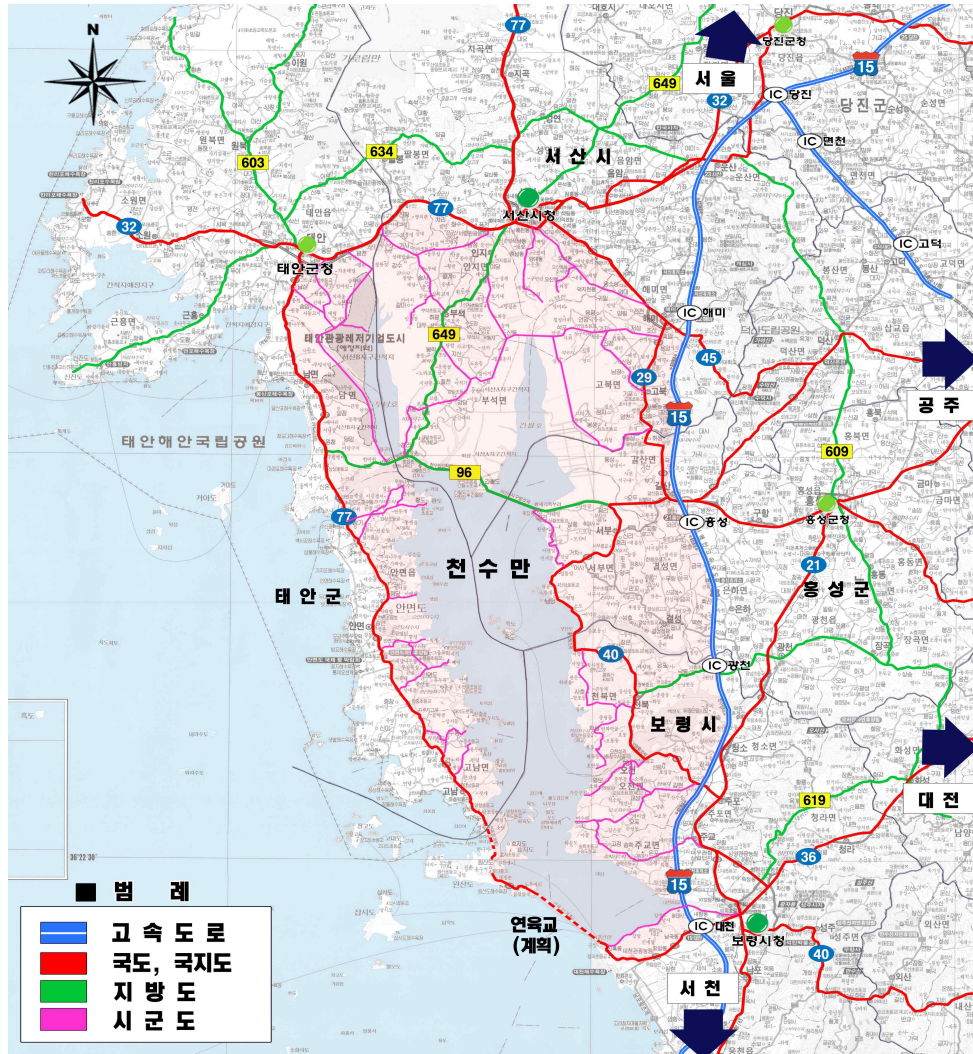
1 대전-태안 연육교 건설현황

① 접근성 분석

- 도로현황은 서해안고속국도가 남북축의 중심이고 일반국도는 동서축연결 위한 3개 노선과 남북 3개 노선이 있음
- 천수만 지역의 광역교통접근 체계는 서해안고속국도를 이용하여 서산IC, 홍성IC, 대전IC를 거쳐 지구별 국도를 통한 접근이 가능함
- 2차적 지구별 접근은 국도, 지방도와 관광지별 진입 및 접근이 가능함
- 지역도로는 국지도 2개 노선과 지방도 10개 노선이 고루 분포하고 있으나 차선수가 적고 통행이 원활하지 못한 곳도 있음

천수만지역 도로 현황

구 분	도로명	주요경과지
광역 접근체계	서해안고속국도	·수도권-광천IC-홍성-호남권 ·수도권-서산IC-서산 ·수도권-대전IC-대전, 보령
지역 접근체계	국도29, 32호선 국도40호선 국도36호선 국도77호선 국지도96호선	·홍성-갈산-해미-서산 ·당진-서산-태안-소원 ·보령-청양-공주 ·서산-태안-원산도-대전 ·남면-방조제-서부-광천-공주
	지방도649호선 지방도610호선	·서산-부석-창리-간월도 ·남양-청라-청소-오천-주교-보령
지구내 연결도로	시군도 13개 노선	태안군(3개 노선), 홍성군(3개 노선) 서산시(5개 노선), 보령시(2개 노선)



교통접근 체계도

② 대전-태안 연육교 사업개요와 세부사업 내용

■ 사업개요

- 공사구간 : 대전~태안 영목간 14.1km
- 총공사비 : 5,095억원.
- 사업기간 : 2018년 완공예정
- 태안 안면도 구간 : 1.7km 사장교 건설



대전-태안 연육교 사업구간과 조감도

■ 사업내용

○ 세부사업내용

1 사업명

- 보령~태안 도로 건설공사

2 사업의 목적

- 바다로 단절된 국도77호선(부산~인천)의 연결
- 장래 서해안시대 활발한 활동에 대비한 도로망 확충
- 교통편의 제공, 물류비 절감, 관광교통수요 대처
-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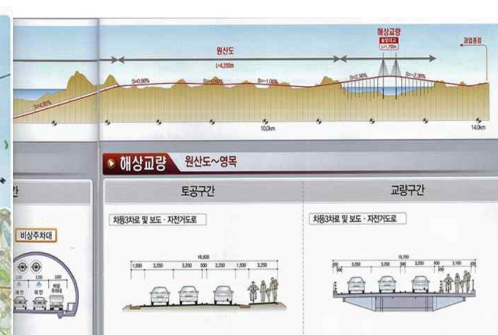
3 사업 구간

구 분	시 점	종 점
구 간	충청남도 보령시 신북동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4 사업 규모

구 분	주요 공사량	
총연장	14.1km	
도로	L=5.40km	폭원 : 16.5m
교량	L=1.76km / 1개소	L=5.1m / 4개소
터널	L=6.90km	폭원 : 2@8.50m(일방향 2차로 병렬터널)
구 분	금 액(억원)	비 고
공사비	4,720	
보상비	166	
시설부대비	209	
총사업비	5,095	



② 연육교 주변 관광여건과 관련 계획의 검토

① 연육교 주변 관광여건 분석

■ 관광자원과 관광기반시설 현황

- 천수만 지역의 관광자원분포는 자연경관과 문화인문자원, 체험 및 시설 등이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등에 풍부하게 입지하고 있음

관광자원 분포 현황

구 분		자연경관자원	문화인문자원	체험 및 시설	비고
전체	전체	122	124	77	
	대상지내	35	11	24	
태안군	전체	78	26	29	
	대상지내	15	-	4	
서산시	전체	13	44	24	
	대상지내	4	-	10	
홍성군	전체	10	47	16	
	대상지내	6	6	5	
보령시	전체	21	7	8	
	대상지내	10	5	2	
자원 현황		산, 기암괴석 동굴, 해수욕장 섬, 일출몰항 등	국보, 보물 지방문화재, 사적지 등	자연휴양림, 관광특구, 풍어제 등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 천수만구역 내 개발계획 및 현황을 보면 대규모 종합관광레저 기업도시 2개소, 관광지 5개소, 자연휴양림, 항구 및 포구정비 13개소, 단위 및 기반시설이 6개소로 총 27개에 이르고 있으나, 구체적 개발추진은 미흡한 상태임

천수만구역 관광개발 관련 계획 현황

구 분	계	태안군	홍성군	서산시	보령시	비고
계(개소)	27	6	7	8	6	
관광지	5	-	3	1	1	
종합관광레저 기업도시	2	1	-	1	-	
자연 휴양림	1	1	-	-	-	
항구 및 포구	13	3	3	2	5	
단위시설/ 기반시설	6	1	1	4	-	

■ 천수만내 권역별 관광기반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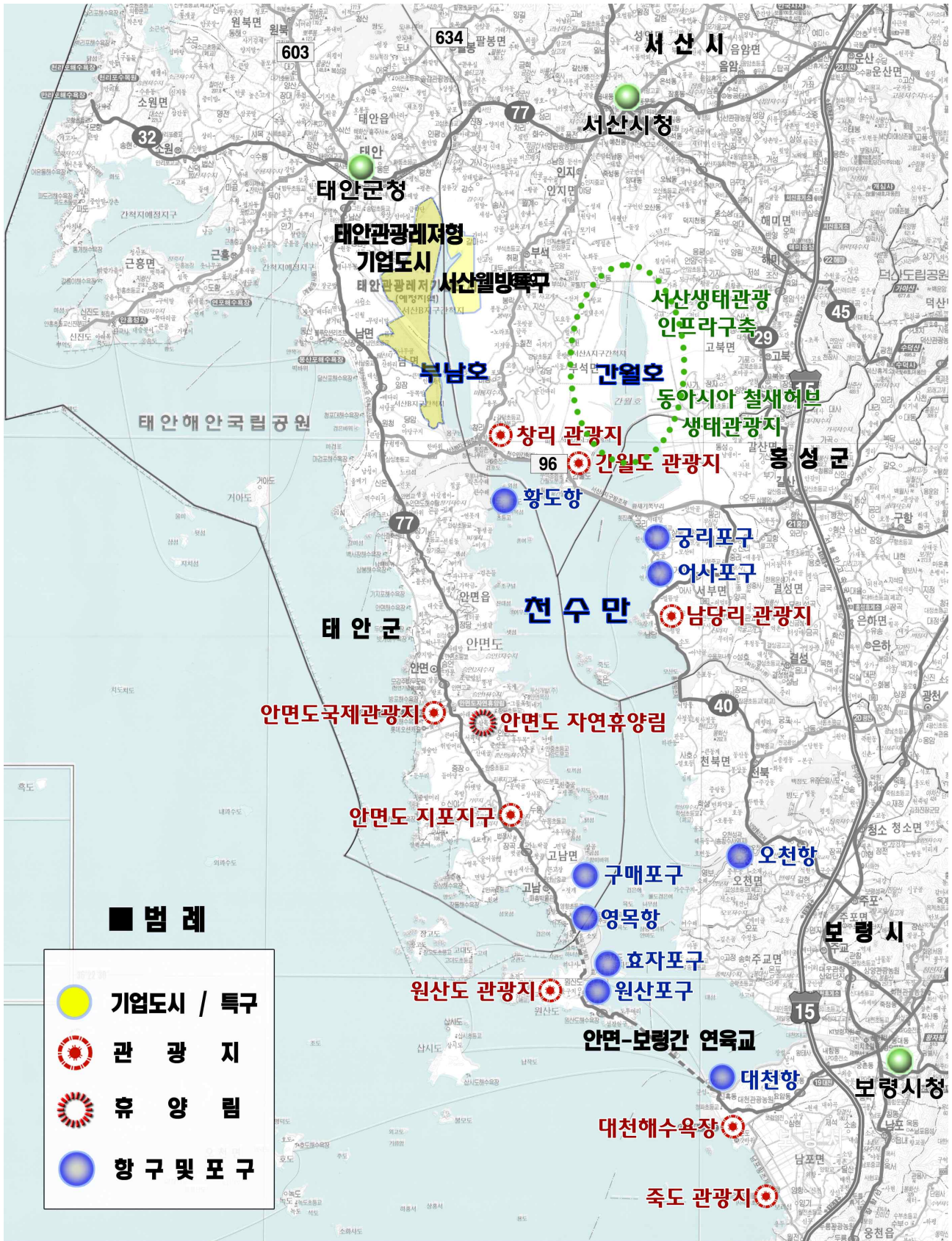
- 천수만 주변 관광기반시설은 총 115개소이며, 이중 숙박시설 31개소, 선착장 및 항·포구 18개소, 폐교 15개소, 체험장 14개소 순임
- 지역별로는 원산도·대천항지역에 시설이 제일 많은 39개소이며 간월호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저조한 실정임

천수만 주변 지역별 관광기반시설 분포 현황

구 분		합 계	청소년수련원	농원수목원	휴양림	숙박시설	염전	기념관 기념탑	선착장 항포구
계		115	4	5	2	31	5	3	18
부남호		22	1	4	1	9	-	1	-
간월호		8	1	1	-	-	-	1	-
천수만	동측	19	-	-	-	5	-	1	3
	서측	27	1	-	1	5	5	-	5
원산도 대천항		39	1	-	-	12	-	-	10

구 분		박물관 조류관 전망대	해수욕장	연구소 센터	산업단 지	하수 처리장	폐교	오토 캠핑장	체험장
계		6	5	2	2	2	15	1	14
부남호		-	-	1	1	-	3	-	2
간월호		1	-	-	1	1	-	-	2
천수만	동측	4	-	-	1	-	2	-	3
	서측	1	-	1	-	-	6	-	2
원산도 대천항		-	5	-	-	1	4	1	5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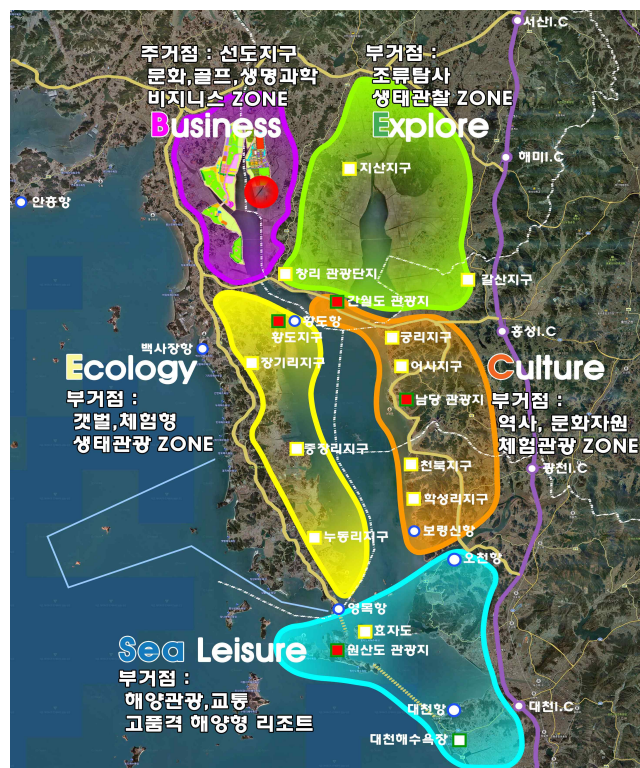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연육교 주변 관광자원과 관광기반시설 현황도

②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5)

■ 조성방향

- 대천-태안 연육교 주변 천수만에 서해안의 새로운 관광수요증가에 부응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해양관광개발을 위한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
- 천수만권역의 개발권역과 방향은 다음과 같음
 - **부남호지구**(태안군, 서산시)
 - 태안국제관광기업도시(One stop 종합복합레저단지)의 개발
 - **간월호지구**(서산시)
 - 서산생태체험, 클린지구, 생태 문화체험지역으로의 개발
 - **천수만동측연안지역**(홍성군)
 - 홍성테마별 특화체험 관광지(테마별 생태체험관광)를 통한 개발
 - **천수만서측연안지역**(태안군)
 - 안면도자연휴양어촌체험지구(송림·갯벌체험학습)등의 자원을 이용한 개발
 - **원산도지역**(보령시)
 - 원산도 해양리조트지구(해양생태레저단지)을 이용한 개발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권역별 개발구상도

5)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에서 요약정리

■ 개발방향과 도입시설

○ 천수만권역의 개발권역과 방향과 도입시설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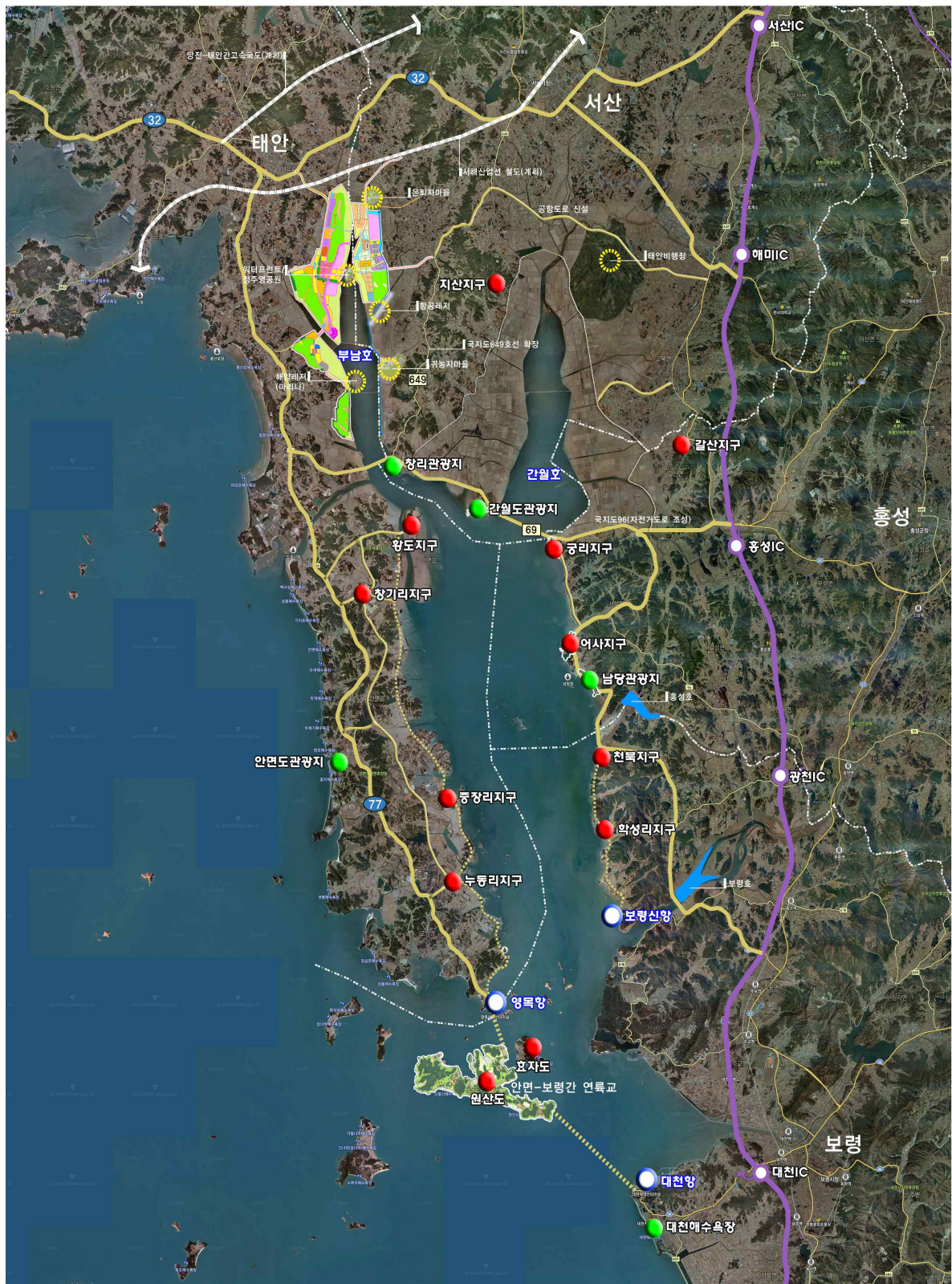
천수만 권역 개발방향 및 도입시설

지 역	개발방향	도입시설
부남호 지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서 낙후지역에 민간자본 투자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 •낙후지역에 자족적인 특구건설을 통한 지역발전을 전략적으로 개발유도 •국제적인 관광·휴양, 웰빙메디칼 등 콤플렉스 타운 조성 •국제적인 감각을 갖는 one-stop으로 구축을 위한 일부시설 추가도입 •국내적으로 경쟁적인 기업도시로 추진되고 있어 국제·관광·휴양의 거점을 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시설 : 골프스파리조트, 테마파크, 첨단복합단지, 농촌체험마을, 국제비즈니스, 웰빙케어타운 •추가시설 : 마리나, 워터프론트, 귀농자 화훼단지, 은퇴자 마을, 승마코스, 정주영 기념공원, 패러글라이딩, 푸른가로수길, 윈드서핑
간월호 지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활한 간척지면적 9,600ha 를 활용한 전형적인 생태관광지로 개발 •기존의 간월도 관광지를 기지로 새로운 신관광사업과 연관하여 특화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관찰체험, 슬로우시티의 개념을 도입, 청정과 문화·전통적 방식으로 농경지와 호수를 활용한 첨단 농업관련 산업이 도입된 개발구상 •간월호는 자연상태를 활용한 30년 후의 농업생명산업의 터전되고, 시험되는 시발지로 개발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시설 : 간월도관광지, 천수만버드랜드 •추가시설 : 전통적 농촌마을체험, 첨단농업전시관, 민물고기마을, 조깅코스, 승마, 자전거도로, 노르딕워킹, 간월호 둘레길,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요리집, 탐조대, 청소년 수련원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지 역	개발방향	도입시설
천수만 동측연 안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방조제 남측으로 궁리포구-속동전망대-남당관광지-천북굴단지-보령신항을 잇는 지역 •홍성서부 특화핵, 산악축과 연관된 개발계획 •농촌경관마을, 발효산업, 체험마을 등 신산업관련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시설 : 남당관광지, 전망대, 조류탐사과학관 등 •추가시설 : 갯벌체험장, 양어장, 태양열 가로등, 풍력발전기, 임해관광도로, 승마장, 가족호텔, 도예특산단지, 농어촌 체험마을, 토기마을, 천북굴단지 등
천수만 서측연 안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B방조제 남측으로 황도라-안면읍-고남면-영목항을 잇는 천수만의 연안지역 •기존의 체험장 및 산림경관 중심으로 파인 코스와 관련이 많은 생태, 자연중심으로 개발과 관광 상품의 브랜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시설 : 안면도관광지(지포지구), 안면도자연휴양림 •추가시설 : 선착장, 체험염전(자염, 소금박물관, 소금창고), 갯벌, 휴양림, 어장체험, 순환도로, 해안산책로, 해안전망대
원산도 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안반도와 보령을 잇는 연육교에 의한 원산도 중심으로 해양리조트로 기대되고 거점지역의 랜드마크 및 결절지로 육성 •기존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갯벌, 염전, 해양문화센터와 교육체험시설, 문화시설 등 체류형 휴양관광지 해안 및 도서의 경관과 기존수림의 활용, 주변의 어장 등 섬속의 자연 관광휴양지로 개발과 기존 어촌마을을 관광체험 농어촌으로 재정비 •해상을 적극 활용한 해양관련 모험시설 등을 배치하고 연안여객터미널의 중개지로 육로 대체 교통수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시설 : 대천항 및 대천해수욕장, 원산도리조트휴양단지 •추가시설 : 해양학교, 어촌마을, 선착장, 섬둘레길, 고대도(선교마을), 장고도(어촌민속체험마을), 삼시도(휴양타운), 녹도(해상공원), 효자도(섬생태지구), 외연도(자연경관관광섬)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종합계획도

③ 교통수요 및 관광객 이용패턴 변화 전망

① 교통수요 예측

■ 대전-태안연육교 건설에 따른 교통 수요 6)

- 대전-태안연육교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 영향권은 보령시와 태안군, 홍성군, 서산시, 당진군, 예산군 등으로 분석되고 있음.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07),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토77호선(보령-태안)건설사업.
대전-태안연육교 영향권과 교통량 변화

6) 한국개발연구원(2007),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토77호선(보령-태안)건설사업.

■ 대천-태안연육교 건설에 교통 수요 예측결과

- 이는 대천-태안간 통행수요가 개통전과 개통에 따른 교통수요변화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출·퇴근 교통수요보다는 관광, 쇼핑, 업무 등의 교통수요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될 수 있음

평일기준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

○ 평일기준 장래 교통수요

(단위: PCU/일)

일련 번호	도로명	구간	2017년			2031년		
			미시행 (A)	시행 (B)	B-A	미시행 (A)	시행 (B)	B-A
	과업노선	보령-태안	-	9,942	9,942	-	12,485	12,485
1	서해안 고속도로	무창포IC-대천IC	62,818	60,050	-2,768	76,018	73,766	-2,251
2		대천IC-광천IC	65,569	62,385	-3,184	79,179	75,492	-3,687
3		광천IC-홍성IC	67,754	64,049	-3,705	79,634	75,806	-3,829
4		홍성IC-해미IC	65,037	64,462	-574	70,465	70,083	-382
5		해미IC-서산IC	56,804	56,999	195	65,231	66,287	1,057
6		서산IC-당진JCT	121,152	120,962	-190	140,874	141,174	299
7	국도32호선	서산시-당진읍	18,693	18,233	-460	27,008	26,950	-58
8		서산시-당진읍	49,951	49,288	-663	64,132	63,988	-144
9		태안읍-서산시	40,490	39,408	-1,082	47,253	46,680	-573
10		태안읍-서산시	33,602	32,841	-761	39,772	39,185	-587
11		만리포-태안읍	11,014	11,345	331	13,314	13,699	385
12	국도77호선	고남면-당암리	13,674	14,925	1,251	15,644	17,926	2,282
13	국도21호선	보령시-홍성읍	33,579	31,559	-2,019	43,147	40,626	-2,522
14		보령시-홍성읍	28,452	26,105	-2,347	35,191	32,791	-2,400
15		서천읍-보령시	14,057	13,622	-435	17,347	16,945	-401
16		서천읍-보령시	10,447	10,845	398	13,488	14,070	582
17	국지도96호선	서부면-남면	17,106	9,429	-7,677	29,742	19,731	-10,011
18	지방도607호선	남포면-대천5동	4,247	9,333	5,086	4,979	10,741	5,762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07),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77호선(보령-태안)건설사업.

- 반면, 관광성수기를 반영한 장래 교통수요에 있어서는 일부구간인 국도 77호선인 고남면-당암리와 국도32호선 구간인 만리포-태안읍 구간 등의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이는 대천-태안연육교가 주변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성을 가지는 관광도로로서의 기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관광성수기를 반영한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

○ 관광성수기를 반영한 장래 교통수요

(단위: PCU/일)

일련 번호	도로명	구간	2017년			2031년		
			미시행 (A)	시행 (B)	B-A	미시행 (A)	시행 (B)	B-A
	과업노선	보령-태안	-	12,864	12,864	-	16,075	16,075
1	서해안 고속도로	무창포IC-대천IC	62,926	59,076	-3,850	76,017	71,665	-4,352
2		대천IC-광천IC	67,965	64,083	-3,882	80,442	75,649	-4,793
3		광천IC-홍성IC	69,884	65,173	-4,711	81,000	75,817	-5,183
4		홍성IC-해미IC	65,549	64,956	-593	71,601	71,303	-297
5		해미IC-서산IC	57,589	58,386	797	67,965	69,717	1,752
6		서산IC-당진JCT	134,382	134,401	19	153,138	153,362	224
7	국도32호선	서산시-당진읍	22,302	22,721	419	30,436	30,648	212
8		서산시-당진읍	64,845	64,276	-569	77,049	76,377	-672
9		태안읍-서산시	47,154	46,345	-809	54,275	53,064	-1,212
10		태안읍-서산시	41,164	40,413	-751	48,692	47,950	-743
11		만리포-태안읍	20,632	21,114	482	22,987	23,555	568
12	국도77호선	고남면-당암리	20,096	19,754	-342	22,162	22,345	184
13	국도21호선	보령시-홍성읍	36,097	34,273	-1,824	44,537	42,554	-1,983
14		보령시-홍성읍	30,348	27,941	-2,407	36,225	34,036	-2,189
15		서천읍-보령시	14,287	13,716	-571	17,427	16,799	-628
16		서천읍-보령시	10,825	11,190	365	13,777	14,168	391
17	국지도96호선	서부면-남면	22,945	12,868	-10,076	35,829	23,828	-12,000
18	지방도607호선	남포면-대천5동	5,113	11,748	6,635	5,387	13,312	7,924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07),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77호선(보령-태안)건설사업.

② 관광객 이용패턴 변화 전망

■ 관광객 수요예측

- 관광수요예측에서 나타난 보령·태안권의 관광객 수요예측은 2020년에 49,991,004명/년이고, 2030년에는 51,492,548명/년으로 예측됨
- 이를 하루에 이동하는 관광객수로 환산해 보면 2020년 136,962명/일에서 2030년 141,075명/일로 예측하고 있음

보령·태안권 관광객수 예측결과

연 도	연간 관광객수		추가 관광수요 (통행/일) - B	B/A*100
	통행/년	통행/일 - A		
2010년	44,678,174	122,406	63,651	52.0%
2015년	48,096,792	131,772	68,521	52.0%
2020년	49,991,004	136,962	71,220	52.0%
2025년	50,985,354	139,686	72,637	52.0%
2030년	51,492,548	141,075	73,359	52.0%
연평균 증가율	0.7%	0.7%	0.7%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07),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77호선(보령-태안)건설사업.

■ 관광객 이용패턴 변화 전망

- 대천-태안연육교의 관광명소화를 통한 관광객 수요 증가
 - 거가대교의 개통 사례에서 거제시의 관광객이 8.61% 증가한 바와 같이 대천-태안연육교가 개통이 될 경우 연평균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낮에는 보령(대천)방문 관광객이 태안(안면도)를 방문하는 패턴으로 변화
 - 보령과 태안은 충남 관광객수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관광도시로서 낮에는 보령(대천)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안면도의 자연경관과 사장교의 풍경을 관람하기 위하여 태안(안면도)를 경유해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됨
- 야간에는 태안(안면도)방문 관광객이 보령(대천)을 방문하는 패턴으로 변화
 - 반면, 야간에는 안면도에 숙박을 하는 관광객들이 야간관광업소가 다양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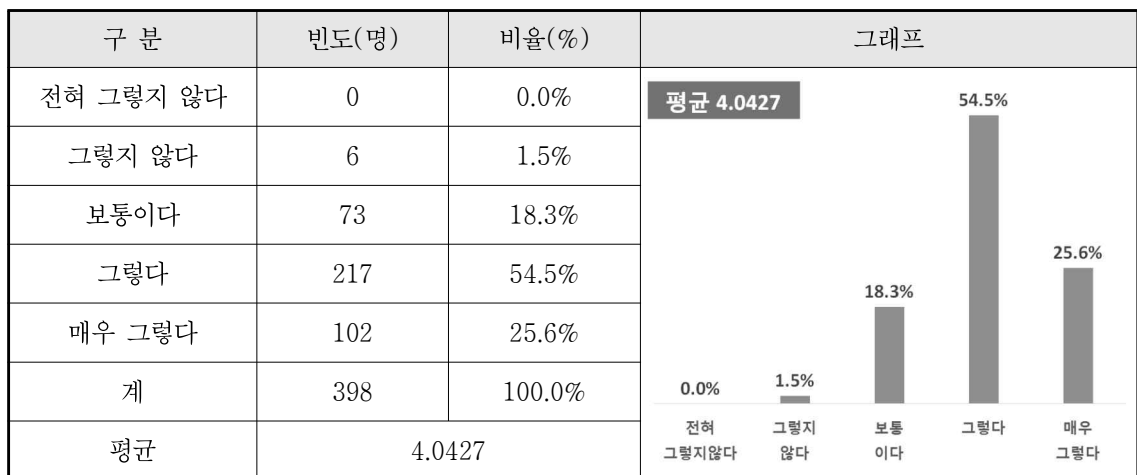
- 풍부한 보령(대천)으로 숙박을 하거나 야간관광을 위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됨
- 해양 및 해안, 섬관광에 대한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연육교가 건설될 경우 관광명소로 부상하여 주변에 유람선 관광을 통한 해양 및 해안경관 감상과 섬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천수만을 중심으로 환상형의 휴양관광벨트를 구축할 것임
 - 대천~태안연육교가 건설되면 천수만을 중심으로 보령~태안(안면도)~서산~홍성 등을 연결되는 해안도로를 따라 환상형의 휴양관광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③ 대천해수욕장과 영목항 등 연육교 지역 관광객 방문의향 조사⁷⁾

■ 대천-태안간 연육교 이용의사

- 2019년에 조성될 대천~태안 간 연육교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80.1%는 긍정적 이용 의사를 나타냄

영목항~대천항 간 연육교 이용 의사



주 : 해당 항목 무응답 2부를 제외한 유효표본만을 분석.

■ 조사지역별 영목항~대천항 간 연육교 이용의향

- 조사지역별 연육교 이용의향을 분석한 결과, 영목항 인근 방문자의 긍정적 이용 의사가 91.4%로 대천항 인근 방문자(69.4%) 월등히 높게 나타남

7) 태안군(2015), 영목한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거점 조성 타당성 연구에서 요약정리

조사지역별 영목항~대천항 간 연육교 이용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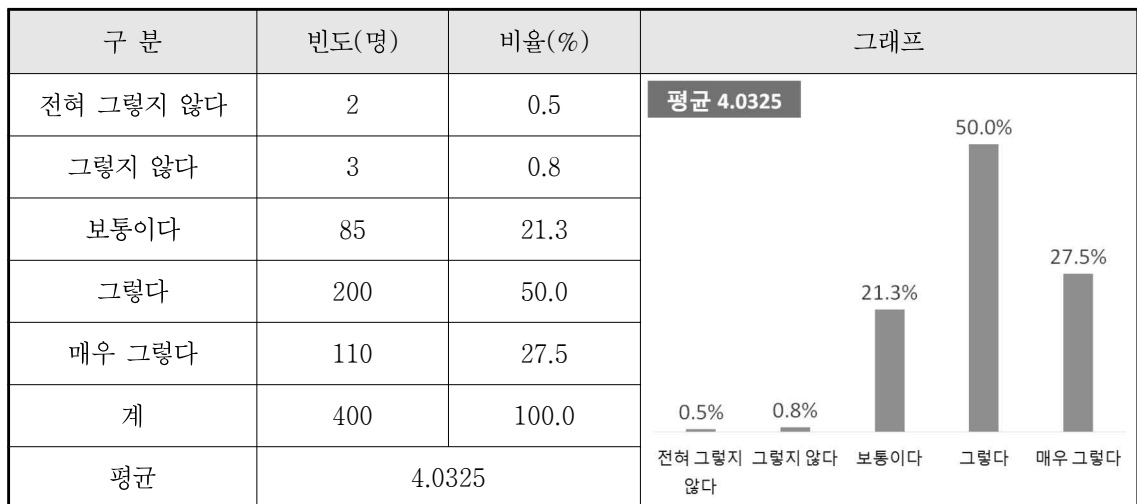
구 분	영목항 인근 방문자		대천항 인근 방문자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0	0.0%	0	0.0%
그렇지 않다	2	1.1.0%	4	2.0%	6	1.6%
보통이다	14	7.5%	57	28.6%	71	18.4%
그렇다	103	55.4%	107	53.8%	210	54.5%
매우 그렇다	67	36.0%	31	15.6%	98	25.5%
계	186	100.0%	199	100.0%	385	100.0%

주 : 해당 항목 무응답 15부를 제외한 유효표본만을 분석

■ 관광객 증대효과 조사분석

- 태안군 및 보령시의 관광객 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77.5%의 상당수 응답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부정적 응답은 1.3%에 그침

관광객 증대 효과



④ 연육교 주변 관광객 수요추정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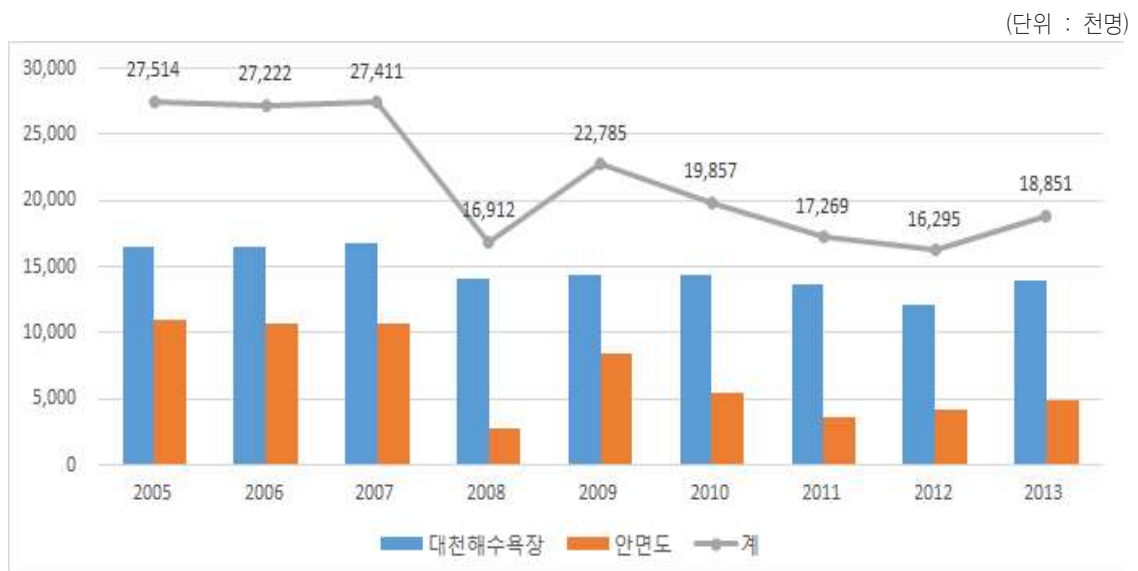
■ 안면도 및 대천해수욕장 관광객 수 현황분석

-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거점은 보령(대천항)-태안(영목항) 연육교의 보령(안면도) 지역의 최남단에 조성될 예정으로 동 지역의 관광수요를 추정하기 위

8) 태안군(2015), 영목한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거점 조성 타당성 연구에서 요약정리

해서는 두 지역에서 유입되는 관광 수요의 예측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태안(안면도) 및 보령(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수 현황을 파악하여 수요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안면도와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 수를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에 안면도 약500만 명 내외, 대천해수욕장 1,200~14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것으로 분석되어, 두 지역의 관광객은 총 1,880만 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주1: 안면도 관광객은 안면도 내 관광지 24개소의 관광객 수 총량. 2013년 안면도 관광객 수는 태안군 통계연보(2014)의 유료관광객수 10,002천명에 2012년도 태안군 전체 관광객 수 대비 안면도 관광객수 비율 49.1%를 적용하여 추정 적용

주2: 대천해수욕장 2013년 관광객수는 보령시 통계연보(2014) 기준

자료 : 관광정보시스템(www.tour.go.kr); 보령시 통계연보(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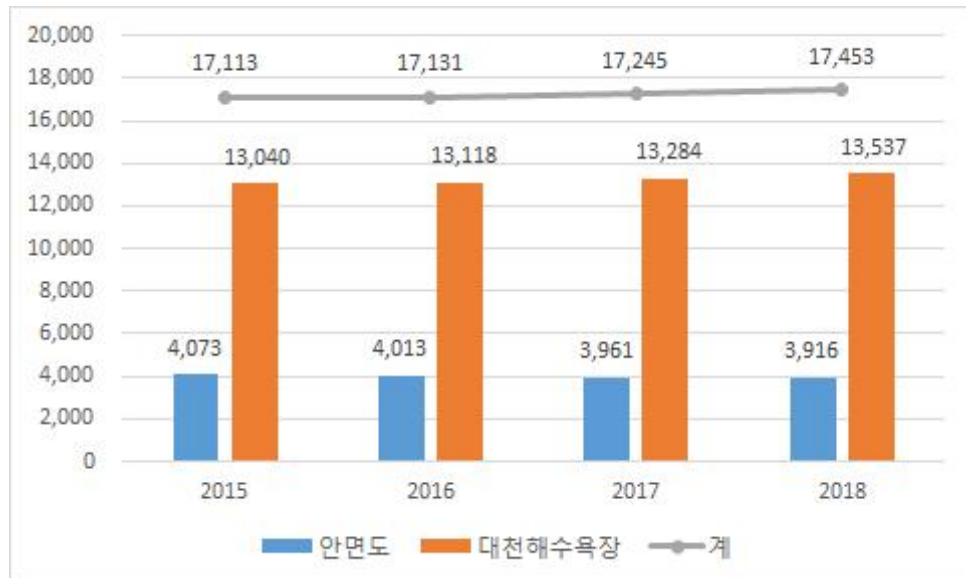
안면도 및 대천해수욕장 관광객 수 현황 분석

- 2008년도에 관광객 수가 급감한 이유는 2007년 12월에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로 인한 해안오염 때문이며,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2006년 이전의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안면도 및 대천해수욕장 등 연육교 주변 관광객 수요추정

-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거점의 관광수요는 추세분석법을 통한 대상지 주변 관광수요 예측 후, 설문조사를 통해 대상지 유입수요를 도출하는 방법을 적용함
- 2018년에 안면도 및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수는 총 17,453천명(대천해수욕장 13,537천명, 안면도 3,916천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의 상당 보령(대천항)-

태안(영목항) 연육교를 이용하여 통행하며 완공될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거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



안면도 및 대천海水욕장 관광객 수 예측 결과 (단위: 천명)

4 SWOT분석과 해양관광의 활성화 과제

① SWOT분석

■ 강점(Strengths) - 산, 바다, 갯벌 등 다양한 관광자원 보유

- 해양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광역교통 접근성 개선과 환상형 교통체계 구축
- 해양과 만, 담수호 등에 연계된 개발기능의 활용가치가 높음
- 환황해권의 문화와 경제교류 확대에 관광거점적 기능보유

■ 약점(Weaknesses) - 계절의 한계성과 광역적·체계적 자원 활용 미흡

- 하절기 휴양 중심형 관광객의 편중과 지자체의 개발능력 취약
- 광역교통체계와 연계한 간선도로의 연계와 해안관광도로 기능 미약
- 방조제 축조 후 간척지 및 리아스식 해안의 축소와 양식장 증가로 활용 제약
- 선도적인 종합휴양레저 등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사업추진이 미약

■ 기회(Opportunities) - 지속적인 관광수요 증대와 변화하는 관광행태 수용 가능

- 글로벌생활권과 지속적인 해양관광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증대
- 환황해권 관광중심거점의 휴양기능과 생태, 문화, 체험관광으로 변화
- 신산업인 농업생명산업과 녹색그린산업, 해양산업의 지속적 성장

■ 위협(Threats) - 관광거점 우위선점을 위한 국가간·지역간·지역내 경쟁

- 전국적인 관광네트워크의 형성으로 경쟁적 우위선점을 위한 잠재력이 유출
- 천수만 주변지역 상호보완 및 협력적 관광개발정책 미약
- 상호경쟁적 개발에 의한 생태환경 등의 훼손으로 지역정체성 상실 우려
- 하드웨어 시설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매력성 저하로 경쟁력 약화

Strength(강점)

- 해양관광자원이 풍부
- 광역교통 접근성 개선과 교통체계 구축
- 해양과 내륙 연계 활용가치가 높음
- 환황해권 관광거점기능 보유

Weakness(약점)

- 여름 관광객 편중과 지자체 개발능력 취약
- 간선도로 연계와 해안관광도로 기능 미약
- 방조제 축조로 해안의 축소와 양식장 제약
- 대규모 관광사업의 추진이 미약

Opportunity(기회)

- 해양관광 환경변화와 수요 증대
- 환황해권 관광중심거점 휴양기능 필요
- 신산업으로 해양산업의 지속 성장

Threat(위협)

- 전국적 관광네트워크로 잠재력 유출
- 천수만 지역 협력적 관광개발정책 미약
- 상호경쟁적 개발로 지역 정체성 상실 우려
- 하드웨어시설 무분별 개발에 매력성 저하

SWOT분석

② 해양관광 활성화 과제

■ 연육교와 연계한 천수만의 새로운 관광벨트 조성 추진

- 대천~태안연육교가 개통되면 보령·태안관광객들이 증가하여 연육교를 방문하게 되므로 천수만을 중심으로 순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천수만 휴양·관광벨트 조성을 추진
- 천수만 주변과 서해안의 섬, 갯벌과 같은 자연자원과 향토음식, 종교, 인물, 역사자원 등의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의 새로운 관광여가지대로 조성

■ 급증하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관광기반 구축

- 충남 관광객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보령·태안에 연육교 개통이 방문객이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거점지역에 해양관광기반을 구축
- 중앙정부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각종 해양관광산업 및 해양관광기반 관련 지원사업을 천수만 지역에 적극 유치 또는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 해양과 해안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화

- 연육교 주변에는 해안경관과 섬, 갯벌과 생태자원, 염전과 독살, 바다낚시배와 양식어장 등 해양과 해안의 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자원화 및 관광상품화를 추진
-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대규모 토지와 개발이 가능한 국·공유 토지를 적극 활용하고 가급적 이를 중심으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함.
- 관광패턴의 변화로 승마장이 새로운 다이내믹 스포츠로 각광받음에 따라 해안을 대상으로 승마장 및 코스의 도입으로 체험승마 및 관광자원으로 정착유도

■ 항포구와 마리너 등과 연계한 유람선과 해양레포츠의 육성

- 천수만과 연육교 주변의 항포구와 마리너 시설 등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육교 주변의 유람선을 확대 운영하고, 요트와 윈드서핑 등의 해양레포츠 지구를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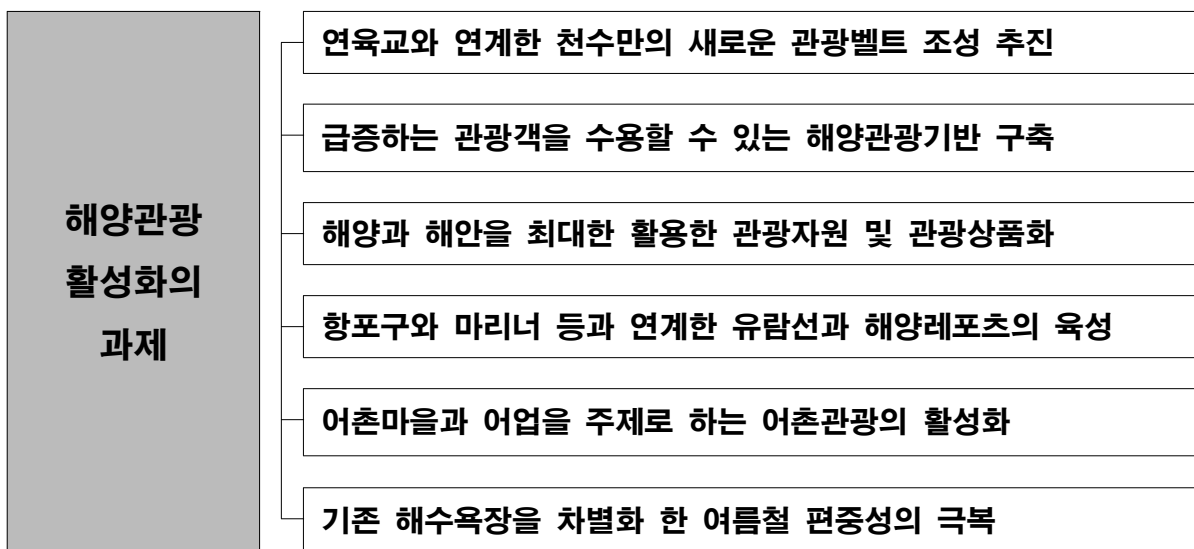
- 국제적 수준의 호텔, 휴양형 빌라, 골프장, 실버타운 등과 같은 집객력있는 시설과 마리나, 크루즈와 같이 해양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의 관광거점에 도입
- 기존의 산업 및 유통중심의 항만시설에서 기능 및 서비스 편의시설 중심으로 변화시켜 각종 해양레저시설의 도입 및 활용으로 수상레저, 교통, 스포츠, 유람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로 활용

■ 어촌마을과 어업을 주제로 하는 어촌관광의 활성화

- 천수만의 연안에는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어촌마을과 전통어업들이 발달해 있으므로 어촌과 어업을 주제로 하는 어촌체험마을의 육성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어촌관광을 활성화

■ 기존 해수욕장을 차별화 한 여름철 편중성의 극복

- 연육교 주변에는 대천해수욕장과 꽃지해수욕장 등 전국적 명성을 가진 해수욕장과 소규모의 마을관리 해수욕장까지 다수가 입지해 있으나 여름철에 관광객이 편중되므로 다계절 이용형의 해수욕장으로 차별화 추진
- 접근성 향상으로 예전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해수욕장을 적극 활용하며, 접근성이 뛰어난 주변지역과 연계한 융합형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해양관광 활성화의 과제 개념도

3.

보령과 태안의 77호선 주변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1 연육교 주변 관광활성화 기본구상

① 접근개념

■ 대천-안면도 연육교 연계 신 관광벨트 조성

- 기존의 대천과 안면도의 관광지와 원산도, 천수만 주변의 관광지, 도서의 섬들을 연계하는 서해안 신관광벨트를 조성.

■ 관광객을 수용하는 해양관광기반 구축

- 대천-태안간 기존의 관광객과 연육교 개통 후 증가하는 방문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관광기반 거점과 연계 관광지 개발

■ 해양과 해안관광자원과 관광상품화

- 해양관광의 수요 증가와 연육교 주변의 풍부한 해양·해안자원을 발굴하여 관광자원화 및 관광상품화를 추진

■ 연안 유람선과 해양레포츠의 육성

- 연육교 주변의 기존 항포구와 마리나 시설을 연계하여 연안 유람선과 해양레포츠를 집중적으로 육성

■ 어촌관광과 해수욕장의 차별화

- 해안에 연속적으로 입지해 있는 어촌마을과 해수욕장을 보유한 자원과 입지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관광목적지로 개발

접근 키워드	접 근 개 념
연육교 연계 신관광벨트 구축	대천과 안면도, 천수만, 도서를 연계하는 서해안 신관광벨트 조성
관광객 수용 해양관광기반 구축	연육교 개통 후 증가하는 관광객을 수용하는 해양관광기반 구축
해양·해안관광자원화·상품화	연육교 주변의 풍부한 해양·해안관광자원화 및 관광상품화 추진
연안유람선과 해양레포츠 육성	항포구와 마리나를 연계하는 연안유람선과 해양레포츠 집중 육성
어촌관광과 해수욕장 차별화	해안 어촌마을과 해수욕장의 특성과 입지별 차별화 관광지 개발

② 기본방향

■ 해안권 관광거점형 서해안 신관광벨트 조성

- 대천-안면도 연육교 주변의 대천-원산도-안면도-천수만(남당)-태안관광레저기업도시 등을 서해안권 관광거점형의 신관광벨트로 조성

■ 어촌과 해수욕장의 다계절 이용과 활성화

- 보령과 태안의 어촌체험마을과 다수의 해수욕장을 테마와 체험형의 해안관광자원과 상품화를 통하여 4계절형 관광지로 개발

■ 해양과 해안, 섬과 연계한 도서관광의 육성

- 해안경관과 갯벌 및 철새도래지, 일출 및 일몰지역, 유무인도의 섬과 도서지역 등의 서해안 특색 관광자원의 발굴 및 육성

■ 항포구 연계 유람선과 해양레포츠의 활성화

- 보령과 태안의 주요 항포구와 마리너시설의 활용과 기존 유람선의 항로를 확대하여 연안 유람선과 해양레포츠의 활성화 추진

③ 기본구상

■ 서해안 럭키세븐77(Seven-Seven)관광벨트 및 관광거점 조성

- 대천-태안 연육교의 77호선과 29호, 40호 국도 연결 관광벨트와 태안관광레저기업도시, 안면도국제관광지, 대천해수욕장, 원산도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

■ 태안기업도시와 서산웰빙특구 문화예술 관광자원화와 브랜드 개발

- 해양과 해안의 역사 및 문화예술자원의 복원과 체험관광상품 개발과 콘텐츠 산업화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의 확충 및 관광자원화와 관광도시브랜드 개발

■ 천수만 해양 친수공간과 보령-안면 해수욕장 사계절 이용 촉진

- 연안유희지 활용과 해양관광시설, 해안도보여행길 등의 해양친수공간 조성과 명품 및 테마해수욕장의 시설개선과 관리강화로 4계절 해수욕장 활성화

■ 안면도 어촌마을과 대천 앞바다 섬 관광의 활성화

- 어촌체험마을의 확대조성과 어촌경관 개선, 수산물 먹거리 관광자원화, 해안테마마을 조성, 섬관광기반 정비와 도서별 특화 시범사업으로 섬관광 활성화

■ 연육교 주변 선상유람선과 원산도 및 오천 해양레포츠의 육성

- 대천지역과 안흥지역의 연안 여객선과 연계한 연육교 주변 유람선을 활성화하고, 오천마리나항과 항포구 중심의 해양스포츠와 마리너산업을 육성



서해안 럭키세븐77(Seven-Seven) 관광벨트 개발구상 개념도

② 럭키세븐 해양관광벨트 관광거점지대와 관광지 조성

① 럭키세븐 해양관광벨트 거점관광지 조성의 필요성과 조성방향

■ 거점관광지대 조성의 필요성

- 서해안의 급증하는 관광수요 증가에 부응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해양관광 기반구축과 서해안권의 관광거점기능 집적화가 되어야함. 따라서 지역의 자연·인문 특성을 최대한 감안 지구별 특화로 효율적 관광자원이용과 균형발전 도모하고, 거점 관광지역과 연계되는 관광지의 위계설정으로 주변의 문화·관광자원 및 행태와의 지역별 연계체계를 구축함.
- 이를 위해 적정규모의 경제성 있는 시설 도입과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개발로 국제적인 트렌드 및 수준을 대비하여 집객력 높은 거점 및 지역중심지구와의 연계·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함.
- 따라서 충남 서해안의 관광거점기능 집적화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지구별로 추진되어온 다양한 관광지 개발사업들을 상호 연계시키면서 관광기능을 집중시킬 수 있는 ‘서해안 럭키세븐 77해양관광벨트 거점관광지대 조성’이 필요함.

■ 거점관광지대의 조성방향

- 천수만에 럭키세븐 77해양관광벨트 거점 관광지대 조성은 기존의 관광개발계획과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권역별 지구와의 상호연계성을 제고하고, 천수만내의 입지적 특성, 자원의 분포, 지형구조적인 내용, 조류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최대한 특화에 유리한 구역을 고려함.
- 권역설정은 담수로 지역인 부남호지역과 간월호지역, 천수만 서측연안과 동측연안지역, 대천항과 영목항을 잇는 연육교와 원산도를 포함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함.
- 천수만 주변지역은 태안군, 보령시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관광권과 충남지역의 내포문화권의 서산시와 홍성군내의 기 개발된 관광시설 및 앞으로 개발될 계획시설을 분석하면 크게 10개 종류에 72개 시설이 입지하고 있음.
- 따라서, 천수만 주변은 5개의 관광 권역별로 특화하고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거점관광지를 통하여 광역벨트형 개발공간구상을 도입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음.

-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천수만 주변은 5개의 지구별로 특화하고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거점관광지를 통하여 광역벨트형 개발공간구상을 하고 있음. 천수만 주변은 5개의 관광지구별로는 국지적인 입지특성과 주변 관련도시나 관광지와와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을 추진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부남호 지구는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서산 바이오·웰빙 특구 시설계획을 당초대로 반영하고 간월호와 천수만 동·서측지구와 원산도 주변의 해양리조트 지구는 기존계획에 새로운 도입시설을 제시함.
- 부남호지구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서 낙후지역에 민간자본 투자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낙후지역에 자족적인 특구건설을 통한 지역발전을 전략적으로 개발을 유도.
 - 국제적인 관광·휴양, 웰빙메디칼 등 콤플렉스 타운 조성 및 one-stop으로 구축을 위한 일부시설 추가도입
 - 국내적으로 경쟁적인 기업도시로 추진되고 있어 국제·관광·휴양의 거점을 선점
- 간월도지구는 광활한 간척지면적을 활용한 전형적인 생태관광지로 개발하여 기존의 간월도 관광지를 기지로 새로운 신관광사업과 연관하여 특화
 -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관찰체험, 슬로우시티의 개념을 도입, 청정과 문화·전통적 방식으로 농경지와 호수를 활용한 첨단 농업관련 산업이 도입된 개발구상
 - 간월호는 자연상태를 활용한 30년 후의 농업생명산업의 터전이 되고, 시험되는 시발지로 개발유도
- 천수만 동측연안 지구는 A방조제 남측으로 궁리포구 - 속동전망대 - 남당관광지 - 천북굴단지 - 보령신항을 잇는 지역으로 홍성서부 특화핵, 산악축과 연관된 개발계획 및 농촌경관마을, 발효산업, 체험마을 등 신산업 관련 특화
- 천수만 서측연안 지구는 B방조제 남측으로 황도리 - 안면읍 - 고남면 - 영목항을 잇는 천수만의 연안지역으로, 기존의 체험장 및 산림경관 중심으로 파인 코스와 관련이 많은 생태, 자연중심으로 개발과 관광 상품의 브랜드화를 추진
- 원산도 지구는 태안반도와 보령을 잇는 연육교에 의한 원산도 중심으로 해양리조트로 기대되고 거점지역의 랜드마크 및 결절지로 육성 .
 - 기존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갯벌, 염전, 해양문화센터와 교육체험시설, 문화시설 등 체류형 휴양관광지 해안 및 도서의 경관과 기존수립의 활용, 주변의 어장 등 섬속의 자연 관광휴양지로 개발과 기존 어촌마을을 관광체험 농어촌으로 재정비
 - 해상을 적극 활용한 해양관련 모험시설 등을 배치하고 연안여객터미널의 중

개지로 육로 대체 교통수단 마련

② 력키세븐관광벨트 관광거점과 주변 연계 관광지구 조성

■ 부남호 지구 개발구상

- 천수만의 부남호 지구는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서산 바이오·웰빙 특구 시설계획을 당초대로 반영하고 간월호와 천수만 동·서측지구와 원산도 주변의 해양리조트 지구는 기존계획에 새로운 도입시설을 조성 .
- 부남호 지구는 서산시 부석면, 태안군 태안읍 남면일원으로 면적은 21,678천㎡이며, 투자재원은 19,337억원(공공 758, 민자 18,579)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충남도, 서산시, 태안군, 현대건설 등이 사업을 추진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부남호 지구 개발구상(안)

부남호 지구 개발구상(안)

구 분		위 치	규모(천㎡)	내 용
합 계			1,265 (36,878)	• ()는 전체 면적
추진사업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현대)	태안, 태안읍, 남면	14,644	• 골프장, 주거, 상업, 웰빙병원, 테마파크
	서산웰빙특구(현대)	서산, 부석	5,699	• 농업바이오, 관광, 골프장, 실버단지
	창리관광지	서산, 부석	22.0	• 숙박·위락형 관광지
구상중인사업	항공레저	서산, 태안	열기구 등 5종	• 농사용 비행장 활용
	마리나	부남호	15,270㎡(100척)	• 덩기급 요트
	건강문화마을	서산, 태안	300	• 은퇴자 거주지역
	귀농자마을조성	서산, 태안	300	• 농어촌 관광·휴양마을 주거지역
	승마(말타기)	서산, 부석	29km	• 마사산업육성 지원
	가로수 길	부남호호안	29km	• 미루, 메타세퀘이아, 느티, 수양버들 등
	화훼단지 조성	간척농지	500	• 백합, 심비디움 등
	워터프런트	부남호	165	• 호수 일부 매립
	정주영 공원	부남호	-	• 워터프런트계획에 포함
교통망확충	연결교량 건설	부석면-태안읍	300m	• 기업도시와 웰빙특구지역 연결도로
	당진-태안간 고속도로	당진-태안	32km	• 기업도시 등 관광객 수송
	서해산업선철도	천안-태안	78km	• 대산공단 등 연결 및 관광객 수송
	공항도로건설	신도청-태안읍	48km	• 내포도로와 연결
	공항건설	태안비행장 서산비행장	400m CIQ시설	• 1단계 경비행기 운항 • 2단계 국제공항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 및 천수만 서측 신규지구 개발구상

- 안면도국제관광지는 2010년 이후에 민간개발 사업자가 선정 및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당초 계획됐던 골프장과 숙박, 수상스포츠 중심의 관광지가 아니라 친환경 고급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계획
- 이러한 안면도관광지는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에 단독 응모한 롯데컨소시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종합평가를 실시, 롯데자산개발(주)이 주축으로 구성된 롯데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5월 31일에 최종 선정함.
- 안면도관광지는 안면도를 '해(海).담(談).원(園) - 바다와 태양을 담은 나만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계획으로 롯데컨소시엄은 2020년까지 안면도 3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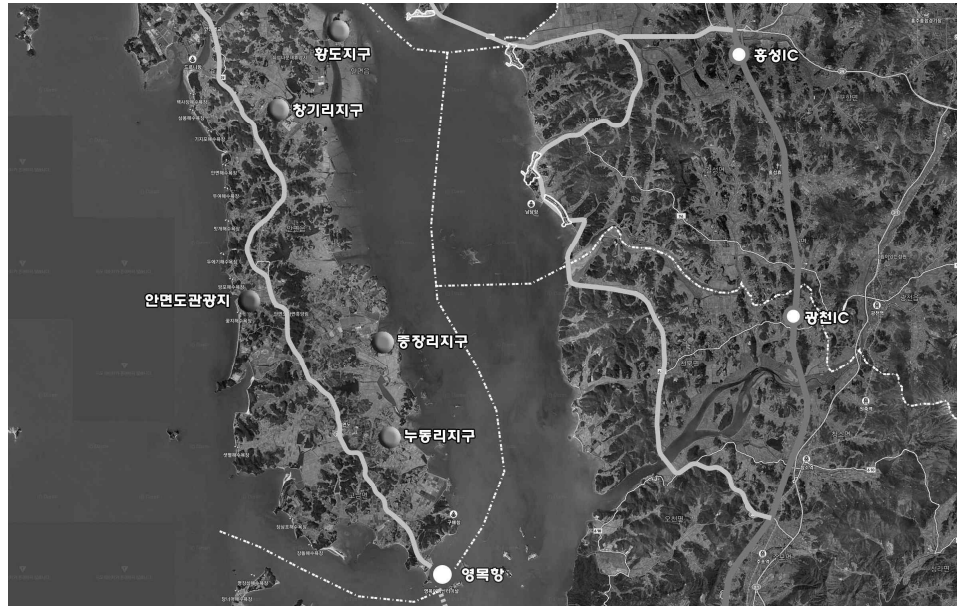
구 44만 2745㎡에 2107억원을 투입, 콘도 570실과 독립성 콘도 30실, 테마형 호텔 80실을 건립할 예정임.

- 안면도관광지 도입시설은 실내·외 물놀이 시설과 연회장, 글램핑장 등을 설치하고, 서해의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도 설치. 이와 함께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 또한, 미용모 지구인 1지구 꽃지공원은 노후시설물 철거 등 기반시설 정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하반기에는 태안군이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임. 4지구 역시 태안군과 공동으로 투자희망업체 추가 접촉 등 투자 유치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 한편 충남도는 기획재정부의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건립과 관련, 국공유지 간토지 교환을 연내 마무리 해 내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또 안면도 관광지 주변 개발 사업인 해수부의 연안 정비사업과 대법원 사법역사문화교육관 건립은 하반기 중 본격 추진될 예정으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의 또 다른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그리고, 연안정비는 해안도로를 철거하고 사구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243억 원이 투입되며, 2019년까지 297억 원이 투입돼 건립되는 대법원 사법역사문화교육관은 연간 3만 명이 찾는 교육연수시설이 건설됨.



안면도 관광지 3지구 해담원 구상도

- 천수만 서측지구의 신규지구는 영목향지구, 누동리지구, 중장리지구, 창기리지구, 황도지구 등 총 5개소로 사업규모는 549,000㎡이며, 투자재원은 373억원(공공 167, 민자 206)으로 태안군의 주체로 사업을 추진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천수만 서측지구 개발지구(안)

천수만 서측지구 도입시설계획(안)

구 분		위 치	규모(ha)	도입시설
합계		5개소	54.9	
천수만 서측지구	영목항지구	태안군 고남면	1.9	• 물양장, 선착장, 방파제호안, 해안도로, 식당 등
	누동리지구	태안군 고남면	8.0	• 체험어장, 해안산책로, 수산어종 및 미생물 연구소, 관상어 전시장 등
	중장리지구	태안군 안면읍	20.0	• 염전 및 체험장, 편의점, 소금박물관, 소나무숲길, 체험농장, 생태학교 등
	창기리지구	태안군 안면읍	10.0	• 갯벌체험장, 주말농장, 체력장, 해안전망대, 주차장 등
	황도지구	태안군 안면읍	15.0	• 선착장, 청소년수련원, 갯벌체험장, 전망휴게소, 숙박 시설, 어촌캠핑장, 해안둘레길, 주차장, 수산물센터 등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 보령-안면도 연육교 주변 및 원산도 지구 개발구상

- 보령·안면도 연육교 주변은 대천항 및 대천해수욕장, 영목항, 원산도지구, 효자도지구 등으로 사업규모는 9,520,000㎡로서 투자재원은 15,784억원(공공 3,309 , 민자 12,475)으로 사업은 보령시의 주체로 추진함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3지구 조감도

보령·안면도 연육교 지구 도입시설계획(안)

구 분		위 치	규모(ha)	도입시설
합 계		4개소	743.0	
보령 · 안면도 연육교 지구	대천항 및 대천해수욕장	보령시	6.0	• 여객터미널, 오토캠프장, 수련원, 숙박시설, 해수욕장, 도로, 주차장, 녹지, 지원시설, 상가시설, 문화시설, 아쿠아리움, 버스터미널 등
	영목항	태안군 고남면	-	• 물양장, 선양장, 방파제호안, 해안도로 등 6개 사업
	원산도지구	보령시 원산도일원	707.0	• 해상택시·버스, 자전거도로, 어촌민속체험마을, 섬생태 및 보호지구, 요트장, 휴양타운, 포토랜드, 펜션, 호텔, 선착장, 주차장, 산책로 등
	효자도지구	보령시 원산도일원	30.0	• 해수욕장, 해양학교, 선착장, 둘레길, 어촌마을, 윈드서핑 등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보령·안면도 연육교 지구 개발구상(안)

- 특히, 보령·안면도 연육교 핵심지구인 원산도지구는 충남 보령시 원산도 일원에 사업규모는 7,070,000m²로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950억원(공공 150, 민자 800)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임.
- 원산도지구의 도입시설은 해상택시, 해상버스, 자전거, 수소연료관광용 자동차, 대천관광모노레일, 세계머드엑스포장 등으로 각 섬별 사업구상은 원산도(포토랜드), 고대도(선교마을 조성), 장고도(어촌민속체험마을 조성), 삼시도(휴양타운 조성), 녹도(해상공원 조성), 효자도(섬생태지구 조성), 외연도(자연경관관광자원 개발) 등을 추진함.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원산도지구 개발구상 및 개발계획도

원산도지구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면적 (m ²)	구성비 (%)	도입시설	개발전략
계	353,000	100.0		
공공·편익 시설	411,056	5.8	전망대, 광장, 주차장	• 저두선착장을 주진출입부로 진입 부에 주차장 설치
숙박시설	565,200	8.0	별장형콘도, 리조트호텔, 유스호스텔, 연수원, 펜션단지, 해상민박, 코티지, 레스토랑, 테마카페, 씨푸드몰	• 3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오봉산 해수욕장은 리조트호텔, 콘도, 사창 해수욕장은 실버타운, 원산도 해수 욕장은 펜션단지를 조성함 • 내호를 활용한 해상민박 도입 • 선착장 주변에 씨푸드몰을 조성하 고 전망이 좋은 각 지점에 테마카페 /레스토랑을 배치
상가시설	294,032	4.2		
휴양·문화 시설	856,143	12.1	실버타운, 갯벌/염생 생태원, 어촌체험관, 피싱파크, 전망카페, 이벤트광장, 공연장	• 원산도내 폐염전과 갯벌을 활용한 체험시설을 도입하고 기존마을을 정비하여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아 름다운 어촌마을로 조성
운동·위락 시설	434,765	6.1	미니골프장, 마리나, 요트클럽, 자전거도 로	• 오봉산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운동 오락시설을 배치
녹지 및 기타	4,508,804	63.8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 이상의 관광지구별 사업은 충남 서해안권의 통합적인 관광전진기지의 구축을 위하여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개발계획에 따라 기존의 관광지 개발계획의 단계적 추진 및 협력적 사업추진계획 수립
- 그리고, 안면도관광지와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조성 추진을 위한 민자사업 주체와 관광개발 전문가, 지역단체 및 기관 등의 협력적 사업추진과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

천수만권 지역별 특성 및 개발계획 현황

구 분		행정 구역	면적 (ha)	지역 및 특성	지역내 계획	주변계획
계			91,718		19개소	9개소
간척지구	부남호 (B지구)	태안군 서산시	14,3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안국제관광도시 (One stop 종합 복합레저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안관광레저기업도시 창리관광지 팔봉영상단지 철새도래지 서산바이오웰빙관광특구 	
	간월호 (A지구)	서산시	24,3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산생태체험, 클린지구, 생태 문화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월도관광지 철새도래지 방조제, 전망대 	
천수만	동측 연안지역	홍성군	18,2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성테마별 특 화체험 관광지 (테마별 생태체험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당관광지, 어사궁리·개발촉진지구 도예특화단지·임해관광도로 조류탐사관, 속동전망대 내포문화관광벨트 죽도생태공원화 	
	서측 연안지역	태안군	27,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면도자연휴양어촌체험지구 (송림·갯벌체험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면도 자연휴양림 정다리 갯벌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면도국제관광지 조성사업 (꽃지·지포지구) 청포대·수중공원 태안국립공원
원산도 지역		보령시	7,2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도 해양리 조트지구 (해양생태레저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목항 원산도관광지 대천항 효도해수욕장 해안·해수욕장권 천북 굴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천관광지 머드체험관 죽도관광지 무창포해수욕장 성주산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 또한, 보령·안면도 연육교 주변의 원산도 지구, 대천해수욕장, 영목항 지구 및 천수만 서측과 동쪽의 각 단위 관광지 개발사업도 순환형의 관광벨트의 사업에 대하여 관광 기반시설 구축은 공공부문에서 추진하고, 개별 관광시설 개발

은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함.

천수만권 기존시설 및 계획상 도입시설 현황

구 분	시설종류	기존 도입시설 및 계획시설 현황
숙박휴양시설	9	• 콘도미니엄, 펜션, 호텔, 가족호텔 빌라(산장), 오토캠핑장, 골프빌리지, 온천장 등
해양관광시설	7	• 마리나, 인공해변, 해상택시, 버스, 연구소, 해양체험, 해양위락 등
생태·환경체험시설	3	• 갯벌, 농촌마을, 독살 등의 체험장
체육·운동·오락시설	10	• 모노레일, 스포츠센터, 골프장, 승마장, 워터파크, 스파리조트, 테마파크(가든형, 허브형), 위락단지,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교육·문화·연주·전시시설	17	• 아쿠아리움, 박물관, 연수원, 약초원, 생태학교, 철새학습관, 버드존, 수목원, 화훼단지, 전시관, 공연장, 양어장, 아카데미타운, 생태공원, 주말농장, 특수영상관, 철새학습관 등
건강웰빙시설	7	• 삼림욕장(휴양림), 뷰티케어타운, 실버타운, 명상마을, 메디컬, 테라피센터, 머드 등
업무복합시설	6	• 국제비즈니스센터, 첨단복합, 상업업무, 주거단지, 바이오유통단지, 컨벤션(연회장) 등
경관(조경)시설	5	• 전망대, 조망탑, 생태수로, 공공수로, 분수대 등
상업(특산물)시설	3	• 전문음식점, 회센터, 직판장 등
관리 및 지원시설	5	• 주차장, 도로, 관리센터, 방문자센터, 동물구조관리센터 등

자료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③ 렵키세븐관광벨트 및 관광거점 조성사업 추진방안

■ 추진방향

- 국토교통부 해안권 관광거점형 지역개발 시범사업 선정 및 추진
- 해양수산부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14~2024)과 연계 추진
-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과 연계 추진
- 각종 해양관광 관련 공모 및 시범사업, 신규 해양관광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

■ ‘해안권 관광거점형 지역개발 공모 시범사업’ 으로 추진

-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해안권 관광거점형 지역개발 시범사업’을 공모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충남이 전략적으로 준비하여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함

◎ 사업개요

① 추진 배경

- 해안권의 경우 수려한 해양환경·문화·역사 등 풍부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잠재력이 풍부하나,
 - 개별 지자체 단위의 노력으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발굴 미흡, 교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국내·외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데 한계
- 지자체의 관광, 문화, 예술, 특화산업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 지역개발사업을 장소 중심으로 연계 지원, 민간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의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필요

② 추진 방향

- (경쟁력 있는 계획 수립) 지역의 관광, 특화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자원을 융·복합하고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공간계획으로 수립
 - 인근 지자체간 관광, 특화산업 등 지역별 장점을 극대화하고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Hub&Spoke 등을 구체화
 - 사업지역 내 다양한 사업계획들을 현지 수요와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장·단기 추진계획 수립
- (계획의 실행력 제고)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장소중심적으로 지원하고, 개별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규제 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

◎ 사업추진 방안

① 대상 권역

- **해안권 및 이와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수도권, 제주도 및 특·광역시 제외)로서 **2개 이상이 연계된 지역**을 1개의 권역으로 함
 - * ‘해안권’은 동·서·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 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의미
- 광역자치단체가 **관광·문화·예술, 특화산업, 인프라 등 융합적 계획을 제안**하면, 잠재력 높은 광역 거점권역을 **2개 이하 선정**
 - * 적합한 대상지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 해당 권역이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가점 부여
-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② 계획 수립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경쟁력 있는 계획 수립
- **문화·관광·산업·지역개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③ 실행 체계

- 권역 내 지자체간 협의체 구성 등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계획 수립 및 사업의 실행력 제고
- 또한, **자치단체와 정부가** 민간투자 유치에 위해 규제 개선, 사업계획 구체화 등 **공동 노력**

④ 정부 지원사항

- 지자체의 계획수립 비용 일부 지원
- 계획수립 과정에서 정부 지원사항을 발굴하여 지원 추진

<지원사항 예시>

- ▶ (국토부) 도로·철도·공항·하천 등 SOC 연계 지원, 광역교통체계 개선, 도시·건축·경관 관련 입지규제 완화, 입지규제최소구역·해양관광진흥지구*·투자진흥지구 우선지정 검토, 투자선도지구·도시활력증진사업·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등 공모 과정에서 우대 방안 검토 등
- * 해안관광 활성화의 주요 제약요인인 수자원보호구역 등에 숙박시설 등 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특례 도입 추진 중 (동서남해안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계류 중)
- ▶ (문화부) 문화·관광 콘텐츠 지원, 지역 관광개발 지원사업 연계 추진 등
- ▶ 기타 각 부처 지역개발사업 연계 지원 추진

◎ 2016년 수요조사 시행방안

① 신청 자격 및 요건

- 광역자치단체장은 관할지역별 1개의 권역 신청
 - 단, 두 광역자치단체가 연계하여 권역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1개 권역을 추가제출 가능
- ※ 수요조사 평가 결과 선정되는 지자체의 경우 계획 수립 비용 부담 필요

② 제출 서류

- 수요조사 신청서, 수요조사서(요약 및 본문) 및 첨부서류를 제출
 - * 제출양식은 '6. 제출서류 양식' 참조
- 수요조사서는 요약서를 제외한 본문(표지 및 목차 제외)을 A4 20매 이내로 작성
 - * 첨부자료는 본문 분량에 미포함하며, 본문 뒷부분에 첨부
 - ** 글자서체, 크기, 줄간격은 휴먼명조, 13포인트, 160% 기준으로 하며 일부조정 가능
 - *** 제시된 양식을 참고로 작성하며, 목차는 가급적 유지

③ 제출 방법

-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려는 지자체는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에 「공문」, 「수요조사 신청서」 및 「수요조사서(요약 및 본문)」을 전자문서*와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 (전자문서) 공문은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을 수신으로 하고, 수요조사 신청서 및 수요조사서(요약 및 본문)를 스캔하여 첨부(해당 광역지자체 기관장 직인 필수,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동직인 필요)
 - ** (인편 또는 우편) 공문(원본), 수요조사 신청서(원본) 1부, 수요조사서(요약 및 본문) 10부

④ 제출 기한

- 2016. 6. 7(화) ~ 6. 10(금) 18:00
 - * 공문 마감기한 인정은 전자문서 송부시간 기준
 - ** 우편제출의 경우 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평가방안

① 평가 방법

- 10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검토 및 선정('16. 6월말)
- 평가 방법 및 평가 절차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 평가 결과,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권역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의 일부를 가감·조정할 수 있음

② 평가 기준

- 시범사업 수요조사서를 바탕으로 대상권역 여건분석*, 관광거점 구축계획**, 지자체 실행체계 및 추진역량*** 등을 종합 검토
 - * 대상권역의 여건은 관광거점으로서의 지역자원의 현황, 권역 내 추진 중인 주요 지역개발사업, 민간투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 관광거점 구축계획은 권역의 목표 및 전략, 주요지역개발사업의 공간구상 및 연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 지자체 실행체계 및 추진역량은 지자체간 연계협력 실적, 지자체간 연계·협력 추진계획, 민간 투자유치환경개선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과 연계 추진

-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에서는 휴식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바다를 위한 주제로 해양관광거점과 관광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으로 ‘해양치유관광 육성’, ‘해양휴양공간 조성·정비’, ‘항만구역내 해양친수 공간 확충’등의 테마를 제시함.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연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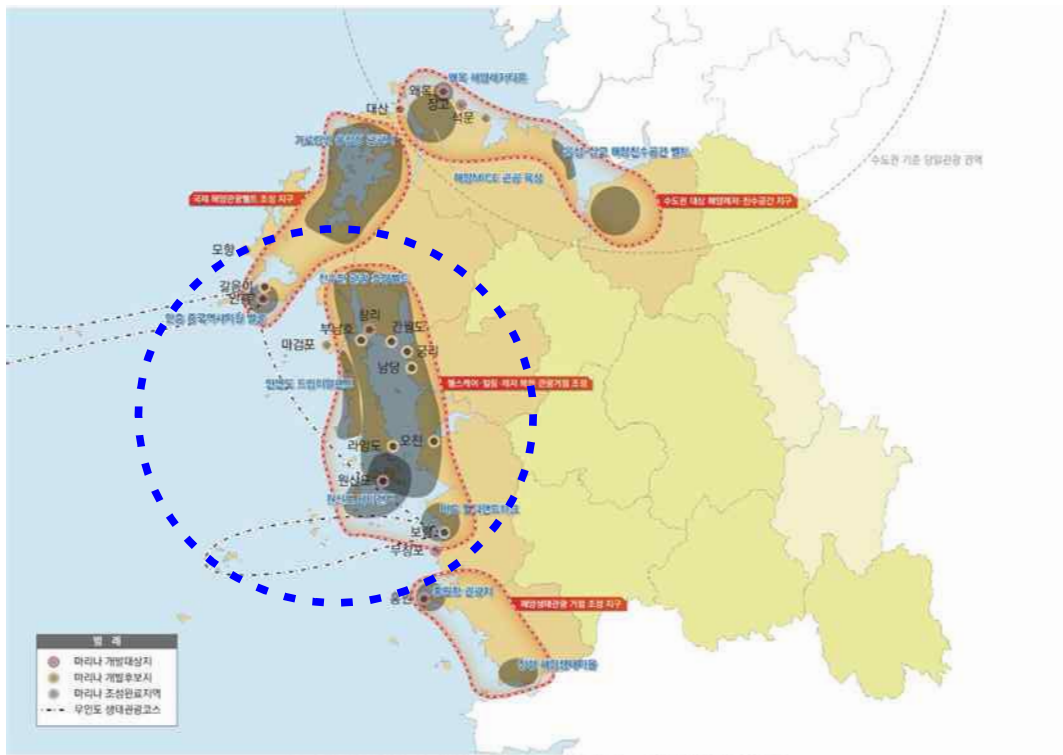
주제	테마	항목	세부추진과제	비고
휴식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바다관광	해양치유관광 육성	해역별 해양치유자원 특성화 사업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R&D 추진 사업모델 개발 	-
		해양웰스케어산업 육성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웰스케어 산업 육성 법령 제정 민·관협의체 설립 해양웰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추진 	-
		해양웰스케어단지 조성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웰스케어단지 조성 	보통
	해양휴양공간 조성·정비	연안유희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도사업 추진 및 단계적 확대 	보통
		해양레저·관광 지역 특화 시설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관광시설 조성사업 	높음
		친수연안 조성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정비사업 추진 해양경관관리제도 시행 연안완충구역 지정 	보통
		해안 도보여행 활성화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안누리길 시설 개선 및 홍보 지원 노선별 등급 부여 및 지원전략 수립 해안 도보여행 지원센터 운영 	보통
	항만구역내 해양친수공간 확충	노후·유희항만의 국제 해양관광·레저관광 거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유희 항만의 재발 	보통
		국가미항프로젝트 추진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지역발전법률 제정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 계획 수립·고시 국가미항프로젝트 기본구상안 마련 	보통
		테마형 관광어항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어항 레저관광 개발계획 수립 	보통

■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과 연계 추진

-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에서는 바다와 교류하는 해양레저·관광을 위하여 추진분야에 충청남도 관광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과제로서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안면도 관광지 개발’, ‘대천 머드관광 고부가가치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연계 사업

추진 분야	과제명	추진부서	주요 내용
충청남도 관광랜드마크 조성	가로림만 융합형 관광지 조성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가로림만 해양습지생태공원 조성, 어촌마을 중심의 해양체험·생태관광지 조성 등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관광산업과	천수만 권역 개발 추진위원회(가칭) 운영, 천수만 개발권역 및 방향 재편,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안면도 아름다운 해안마을 등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관광산업과	복합 휴양시설 구축 및 도서 특화 관광산업 육성, 인근 자섬 연계 관광패키지 개발
	안면도 관광지 개발	관광산업과	테마파크&워터파크, 콘도, 기업연수원, 씨사이드, 골프장 등
	대천 머드관광 고부가가치화	해양정책과	보령머드 멀티랜드마크 조성, 보령 시내관광 활성화 등
	해수욕장 종합정비·차별화사업	해양정책과	명품 해수욕장 5개소 조성, 유형별 개발전략 추진(해수욕장 테마 설정, 문화경관 조성 및 체험활동 개발 등)



충청남도 관광랜드마크 조성 사업 구상도

■ 각종 해양관광 공모 및 시범사업, 신규 해양관광 개발사업 예시

- 충남의 해양관광 관련 복합형 해양휴양관광지 조성을 위한 사업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해양레저스포츠 · 해양휴양 지구 조성
 - 해양 테마지역으로 해양레저스포츠·해양휴양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하고 4계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해양레저 및 휴양관광지와 다양한 해수를 주제로 한 시설지역과 각종 부대시설 조성
 - 숙박시설은 저층 장기체류형의 씨사이드 카티지(Seaside Cottage), 리조트호텔,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등으로 다양하게 조성하고 부대시설은 수변 레스토랑, 쇼핑상가, 기념품상가 등의 씨푸드몰(Sea Food Mall)과 보행자 전용도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
 - 다양한 바다 체험을 위한 요트스쿨, 바다낚시터, 요트관광 및 낚시용 선박의 대여와 운행을 위한 바다낚시 지원센터를 씨푸드몰(Sea Food Mall)과 연계하여 조성
- 해양 힐링(건강)체험단지(시설) 조성
 - 복합시설이 도입되는 Marine zone과 달리 조용한 휴양객을 위한 고품격 시설 지역 조성으로 장기체류자를 위한 씨빌리지(Sea Village)와 해수탕, 마사지실, 텔라소테라피 센터(Talasso Therapy Center), 휘트니스센터, 치료회복센터(Care& Retirement center) 등과 각종 부대시설 등을 조성
 - 기존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련 연수원, 청소년 수련마을과 연계하여 어촌체험관, 청소년 해양센터 조성
- 레저놀이시설 조성(디스크 골프장⁹⁾)
 - 디스크 골프장은 설치가 쉬우며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최근 세계적 생활스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음
 - 운영 : 직경 21.5cm의 원반을 여러 차례 던져 홀 위치에 놓인 직경 66cm의 ‘디스캐처’에 넣는 경기
 - 규칙 : 골프 규칙을 그대로 적용 50~120m 거리별 기준 횟수를 정해놓고 승부를 겨룸
 - 장점 :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으며 비용 부담도 없

9) 디스크골프는 2007년 국내에 도입되었으며, 초·중등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전국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신개념 운동으로, 세계적으로 미국 3000여개, 일본 500여개 등의 디스크 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매년 프로대회가 열림

음

- 현재 국내에는 3만여명의 동호인이 활동 중이고 가까운 충북 음성군 청소년수련원에 19홀 규모의 공인디스크골프장인 'KFDF 디스크골프장'이 있음
- 플라잉디스크 대회, 디스크골프대회 등이 있으며 학생부와 아마추어부, 프로부 등 3개 부문으로 개최
- 홀맵, 디스캐처 등 시설물과 편의시설은 전통 공예, 문양 등을 활용한 디자인을 개발·적용하여 역사적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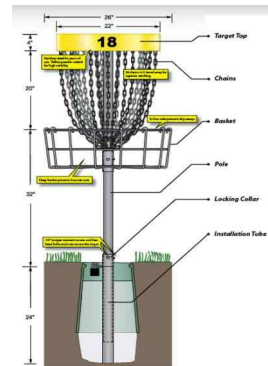


플라잉디스크골프 프로 대회



성남시 수내공원 디스크골프장

디스크 골프장 사례



영월 코세스디스크골프장 홀맵, 디스캐처 설치 사례

④ 력키세븐관광벨트 사업추진계획 제안

■ 충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단계별 사업추진

-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하위계획으로 충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의 실행계획으로 충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 해양권 관광거점형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추진(국토교통부 사업)
- 해양관광산업 특구 사업으로 추진(문화체육관광부)--사업 확인

■ 력키세븐 해양관광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천수만 순환 77호국도변 력키세븐권인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 등의 4개 시·군의 '천수만 해양관광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천수만 해양관광권 협의회에서는 거점관광지 조성 및 개발, 해수욕장 활성화, 어촌 및 어항관광의 육성, 도서 및 마리나항의 개발, 해산물축제의 개최 등에 대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 천수만의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 관광상품 판매 및 홍보마케팅사업 추진
- 천수만 해양관광권을 대표하는 메가이벤트 발굴 및 개최

■ 력키세븐 해양관광권 민간 관광사업체 협력단 설립 및 운영

- 천수만 순환 77호국도변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 등의 4개 시·군의 숙박, 음식, 특산품 등 관광사업체 '천수만 해양관광권 공동협력단' 설립 및 운영
- 천수만 해양관광권 민간 관광 공동협력단에서는 해수욕장과 어촌, 어항의 관광자원화, 해산물축제의 개최 등에 대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 천수만 해양관광권 수산물축제와 해수욕장, 어촌 및 어항축제 등의 공동 및 협력 및 개최

■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계획 중 해양관광 우선사업 선정 추진

-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계획 중 해양관광 우선적 추진사업 제안
 - 태안관광거점 : 태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 안면도국제관광지 등
 - 보령관광거점 : 대천항 및 대천해수욕장, 원산도지구 등
 - 연육교 관광지구 : 영목항, 효자도지구
 - 천수만 서측연안 : 영목항, 누동리, 중장리, 창기리, 황도 어항 및 어촌관광
 - 천수만 동측연안 : 남당, 궁리, 어사관광지, 천북굴단지
 - 안면도 서측해변 : 꽃지해수욕장 등 해수욕장
 - 부남호 및 간월도 지구 : 서산웰빙특구, 창리관광지, 간월도관광지 등
 - 원산도 및 오천항 지구 : 마리너항 조성

③ 대전·태안지역 해수욕장 다계절 이용 활성화 방안

① 해수욕장의 활용 지침

■ 해수욕장의 운영과 관리 정책동향

- 해양관광지중 가장 대표적인 비치형(Beach Type) 해양리조트, 즉 해수욕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본 관광협회¹⁰⁾는 “불특정 다수인이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으로서 안전하게 유영하거나 즐기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환경, 관리 기구를 갖춘 공공적인 해변”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적으로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2014.12.4)이 제정됨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됨
- 기존 타 법률에 의해 해수욕장의 관리 위주의 체계에서 동 법에선 해수욕장의 지정, 해수욕장 기본계획 수립,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해수욕장 시설사업, 해수욕장 평가 등 해수욕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 해수욕장 규제 위주의 관리에서 이용 및 활용의 측면에서의 운영이 가능해졌음
- 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하면 해수욕장의 관리주체에 따라 3종류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하여 운영하되, 지역변영회 등과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음. 또한 기초지자체장은 관할구역 해수욕장의 청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되, 백사장 청소 등 청결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수욕장 관리주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관리주체별 해수욕장 구분

분 류	구분 내용
시범해수욕장	· 기초지자체가 직접 행정조직 또는 별도조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해수욕장
일반해수욕장	· 기초지자체가 관리하지만 지역변영회·어촌계 및 민간기업 등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는 해수욕장
마을해수욕장	· 지역변영회·어촌계 등 마을단위 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해수욕장

- 해수욕장의 지정은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학문적, 제도적 측면에서 해수욕장에 대한 인문·자연조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없고, 단지 훈령에 의해 해안선(해

10) 일본관광협회(1987), 해양 관광지 계획의 안내.

빈)의 길이 200m이상, 백사장 폭은 평균 해면으로부터 20m이상, 해면의 구성이 해수욕장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질의 경우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에 따라 “적합” 판정으로 받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표 2 참조). 해상의 경우 해조류나 쓰레기와 같은 부유물이 없고, 해파리나 불가사리 등 유해생물이 해수욕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해수욕장 수질 조사항목별 점수표

점수	조사항목			
	부유물질량 (mg/ℓ)	화학적 산소요구량 (mg/ℓ)	암모니아질소 (mg/ℓ)	총인 (mg/ℓ)
1	10 이하	1 이하	0.15 이하	0.03 이하
2	20 이하	2 이하	0.3 이하	0.05 이하
3	30 이하	4 이하	0.5 이하	0.09 이하
4	30 초과	4 초과	0.5 초과	0.09 초과

※ 부유물질량에 대한 조사결과는 서해안에 위치한 해수욕장에 대하여는 적용특례를 적용함.

해수욕장 수질 기준

수 질 기 준	적 합	관 리 요 망	부 적 합
총 점	4~8	9~12	13~16

※ 단, 대장균균수가 1,000MPN/100mL 이상 시 타 수질 항목과 상관없이 부적합

■ 해수욕장 주요 도입시설

- 해수욕장의 주요 도입시설을 살펴보면 크게 유영구역표시, 종합관리사무소 설치, 감시탑 설치, 기능시설(화장실, 샤워장, 식수대 등)의 조성, 안전시설 운영,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볼 수 있음
- 유영구역은 해저 지형조건, 해면 및 주변지역의 이용 상화 등의 제약조건을 감안하여 기초지자체장이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심은 안전하게 유영할 수 있는 구역(예 : 성인 가슴 깊이 정도)으로 하되, 급경사면 또는 암초 등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해수욕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부표 또는 경고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해수욕장 관리사무소는 백사장(해빈) 배후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후지가 없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거

친 후 최소 범위내로 설치함

- 관리사무소는 지자체·경찰(해경, 육경)·지역 번영회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로 운영함
- 감시탑은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영구역의 조망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되, 기초 지자체장은 해수욕장의 규모(특히 해안 길이), 이용객수 등과 아래 기준을 감안하여 감시탑의 설치 대수와 간격을 정하고, 이용객의 확보를 위해 유영구역의 조망이 용이한 위치해 설치하도록 함
- 기능시설은 백사장(해빈) 배후지에 집단적으로 조성하되,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일정한 거리(약 400~500m)를 유지하고, 기능시설로부터의 배출수는 오페수정화시설을 거쳐 정제한 후 해양으로 배출되도록 설계함
- 인명구조선과 구명보트 등의 안전시설은 해수욕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규모와 이용객수에 따른 인명구조팀과 구조장비를 갖추고 운영함
- 해수욕장의 운영주체는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경찰(해경포함), 보건소,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과 유기적인 수상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개장기간동안 안전요인이 감시탑에서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안전시설 기준

이용자별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100만명	2~3대	30만명당 1대	감시탑에 비치
50만명	1~2대	30만명당 1대	"
5만명	-	1~2대	"

■ 해안별 해수욕장의 특징

- 우리나라 해안별 특성을 살펴보면, 동해안은 대체로 해안이 완만하나 파도 등 해상여건이 불량하며, 서해안은 기후가 온화하고 우수한 해안경관을 갖추고 있으나 해수가 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남해안은 해수가 맑고 양질의 모래가 있고 수심이 깊은 것이 그 특징임

해수욕장 안전시설 기준

구 분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 완만 · 파도 등 해양여건 불량 · 수온 낮음 · 해수욕기간 짧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가 온화 · 우수한 주변경관 · 대부분 이용객수 적음 · 소형 해수욕장 도서에 다수 분포 · 갯벌, 탐조지, 낙조 등 연계가능 · 해수가 다소 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가 맑고 양질의 모래 · 수심이 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가 맑고 기후가 따뜻 · 남국풍의 이국적 경관 · 화산해안으로 흑색해안이 대부분
수 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경사 · 수심이 깊은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수심 약44m · 얕은 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해안 중간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해안과 유사
모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래, 자갈밭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사로 이루어진 고운 백사장 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운 모래사장 많은 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운 백사장 지역이 넓은 편
조수 간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은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안과 서해안의 중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해안과 비슷
대표 해수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상, 경포, 화진포, 맹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도, 연포, 대천, 변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대, 광안리, 몽돌, 비진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문, 함덕, 괭지 등

자료 : 김성귀(2007), 해양관광론, 현학사

② 해수욕장 현황

■ 전국과 충남의 해수욕장 현황

- 전국에 총 358개 해수욕장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어촌계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해수욕장이 150개에 이름
- 해수욕장 이용객은 매년 7천만명 이상*이며, 여름 휴가철에 집중
 - 특히, 해운대 등 상위 5개 해수욕장 이용객이 전체의 52.3%를 차지할 만큼 이용객 집중 현상이 뚜렷
 - * 해수욕장 이용객 : ('11) 7,808만명 → ('12) 7,527만명 → ('13) 8,770만명
- 충남의 해안지역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동해안과 남해안에 비해 수심이 깊지 않고 파도가 높지 않아 모든 연령층이 해수욕을 즐기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충남에는 2012년 기준 총 51개소의 해수욕장이 있으며, 태안군이 32개소로 가장 많고 보령시 17개소, 당진시와 서천군이 각각 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음. 해수욕장의 총 길이는 61.04km이며 총 면적은 14,294,781m², 백사장은 11,799,000m²의 규모임.
- 해수욕장은 충청남도 관광객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만큼 충청남도의 귀중한 관광자원임

- 비교적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대천 해수욕장, 꽃지 해수욕장 등 아름답고 넓은 사빈의 발달로 관광객들로 하여금 큰 매력을 느끼게 함
- 대천 해수욕장은 연간 6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넓은 사빈, 보령 머드축제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포함하고 있어 중요한 관광자원일 뿐만 아니라 관광수익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
- 하지만 해수욕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하고 있음
 - 해수욕장 관광객의 여름철 편중 현상 심화
 - 대천, 무창포, 꽃지 등 일부 해수욕장들을 제외하고는 해수욕장 시설의 낙후 및 관리미흡 문제 존재
 - 교육·체험, 고급 레저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관광수요와 환경에 부응하지 못하고 전통적 해수욕 중심으로 운영

■ 보령·태안지역 해수욕장 현황

- 충남은 총 50개소의 해수욕장이 있으며 보령시에 17개소, 태안군에 30개소의 해수욕장이 있음



보령·태안지역 해수욕장 분포현황

- 보령은 17개소 중에서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등은 시범해수욕장, 원산도와 호도는 일반, 나머지는 마을해수욕장임

보령시 해수욕장 현황

시군명	명 칭	위 치	해안선 (km)	개장 시기	주요 이벤트 행사	비 고
	합 계	50개소	57.7			
보령시 (17)	대 천	신혹동 일원	4.5	6월말	보령머드축제, 해넘이 행사 등	시범
	무창포	웅천읍 관당·독산 일원	1.2	7월초	신비의 마당길 축제 주꾸미·도다리축제 전어·대하축제	시범
	원산도	오천면 원산도리	1.5	7월초	해수욕장 개장식	일반
	호 도	오천면 녹도리 호도	1.5	7월초		일반
	용 두	남포면 월전리	0.8	7월초		마을
	오봉산	오천면 원산도리	1.5	7월초	해수욕장 개장식	마을
	저 두	오천면 원산도리	0.3	7월초		마을
	사 창	오천면 원산도리	0.5	7월초		마을
	밤 섬	오천면 삼시도리	1.5	7월초		마을
	거멀너머	오천면 삼시도리	1.5	7월초		마을
	진너머	오천면 삼시도리	1.0	7월초		마을
	당너머	오천면 삼시도리 장고도	1.0	7월초		마을
	명 장	오천면 삼시도리 장고도	1.0	7월초		마을
	명 덕	오천면 효자도리	0.5	7월초		마을
	당 산	오천면 고대도리	0.3	7월초		마을
	독 산	웅천읍 독산리	1.0	7월초		마을
	장 안	웅천읍 장안리	0.3	7월초		마을

자료 : 충청남도(2015), 충남관광기본자료

- 태안군에는 총 30개 해수욕장이 분포하고 있음
 - 소원면 8개소, 근흥면 2개소, 남면 5개소, 안면읍 9개소, 고남면 2개소, 원북면 3개소, 이원면 1개소가 있으며, 소원면과 안면읍에 편중되어 있음
- 경사가 완만하고 수온이 높아 가족단위의 피서객에게 인기가 있음
 - 만리포, 몽산포, 꽃지 해수욕장은 연간 150만명 이상 관광객방문

태안군 해수욕장 현황

시군명	명칭	위치	해안선 (km)	개장 시기	주요 이벤트 행사	비고
태안군 (30)	백사장	안면읍 백사장2길	0.6	7월초	해님이 행사	
	삼봉	안면읍 삼봉길	0.8	7월초		
	기리포	안면읍 해안관광로	1.3	7월초		
	안면	안면읍 해안관광로	1.0	7월초		
	두여	안면읍 해안관광로	0.7	7월초		
	뱃개	안면읍 해안관광로	1.3	7월초		
	방포	안면읍 방포1길	0.9	7월초		
	꽃지	안면읍 꽃지해안로	3.2	7월초	해님이 행사	
	셋별	안면읍 셋별길	0.7	7월초		
	장삼포	고남면 큰장돌길	1.0	7월초		
	바람아래	고남면 큰장돌길	0.4	7월초		
	몽산포	남면 몽산포길	1.7	7월초	모래조각 페스티벌	
	달산포	남면 달산포로	0.7	7월초		
	청포대	남면 청포대길	1.0	7월초		
	마검포	남면 마검포길	2.5	7월초		
	곰섬	남면 곰섬로	0.7	7월초		
	갈음이	근흥면 갈음이길	0.2	7월초		
	연포	근흥면 연포2길	0.6	7월초	해맞이 행사	
	의항	소원면 송의로	0.9	7월초		
	천리포	소원면 천리포2길	1.0	7월초		
	만리포	소원면 만리포2길	3.0	7월초		
	어은돌	소원면 언들길	1.0	7월초		
	파도리	소원면 모항파도로	1.0	7월초		
	동개	소원면 동개항길	0.3	7월초		
	학암포	원북면 옥파로	1.4	7월초		
	구례포	원북면 구례포길	2.4	7월초		
	신두리	원북면 신두해변길	3.1	7월초		
	꾸지나무골	이원면 꾸지나무길	0.2	7월초		
	방주골	소원면 백리포길	0.8	7월초		
	구름포	소원면 구름포길	0.5	7월초		

자료 : 충청남도(2015), 충남관광기본자료

■ 충남 해수욕장 이용특성 분석

- 2012년 기준 해수욕장의 방문객을 살펴보면 무창포해수욕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수욕장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몽산포해수욕장과 꽃지해수욕장은

각각 연평균 18.93%, 17.27%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잦은 폭우와 수해, 경기침체, 관광객의 관광패턴 변화가 맞물리면서 대체적으로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특히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관광지를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1박 2일 등)과 인터넷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관광패턴이 변화하면서 가족단위 방문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해수욕장 관광객 수(2012년 기준)

구분		2005년	2010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05-12)
합계		41,622,326	31,237,783	23,383,866	-7.91%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16,543,913 (39.7)	14,382,110 (46.0)	12,125,786 (51.9)	-4.34%
	무창포해수욕장	1,981,382 (4.8)	1,432,170 (4.6)	2,086,082 (8.9)	0.74%
	원산도 해수욕장	0 (0.0)	208,638 (0.7)	279,940 (1.2)	-
당진시	난지도해수욕장	171,406 (0.4)	257,874 (0.8)	85,827 (0.4)	-9.41%
서천군	춘장대해수욕장	6,930,982 (16.7)	5,098,417 (16.3)	3,149,293 (13.5)	-10.66%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5,450,835 (13.1)	2,326,001 (7.4)	1,445,200 (6.2)	-17.27%
	만리포해수욕장	2,104,122 (5.1)	1,878,288 (6.0)	1,144,755 (4.9)	-8.33%
	몽산포해수욕장	2,072,241 (5.0)	950,781 (3.0)	476,897 (2.0)	-18.93%
	기타	6,367,445 (15.3)	4,703,504 (15.1)	2,590,086 (11.1)	-12.06%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12)

- 충남도내 총 50개소의 해수욕장이 있으며, 대천해수욕장의 이용객 수가 연간 658만명 수준으로 다른 곳에 비해 크게 높은 편임

해수욕장별 이용객수

(단위: 명)

순위	명 칭	이용객수	순위	명 칭	이용객수
1	대천해수욕장	6,586,300	27	달산포해수욕장	43,065
2	춘장대해수욕장	2,200,000	28	두여해수욕장	40,604
3	무창포해수욕장	1,018,000	29	용두해수욕장	40,000
4	꽃지해수욕장	798,500	30	백사장해수욕장	37,528
5	몽산포해수욕장	707,110	31	구름포해수욕장	30,761
6	만리포해수욕장	554,200	32	난지섬해수욕장	27,315
7	신두리해수욕장	190,715	33	갈음이해수욕장	25,121
8	학암포해수욕장	189,000	34	청포대해수욕장	20,517
9	마검포해수욕장	153,803	35	통개해수욕장	18,456
10	삼봉해수욕장	150,000	36	꾸지나무골해수욕장	10,459
11	구례포해수욕장	147,651	37	오봉산해수욕장	7,415
12	연포해수욕장	119,540	38	호도해수욕장	3,821
13	안면해수욕장	106,637	39	염성해수욕장	3,500
14	천리포해수욕장	102,535	40	저두해수욕장	1,655
15	장삼해수욕장	102,535	41	사창해수욕장	1,035
16	빛개해수욕장	79,977	42	명장섬해수욕장	990
17	방포해수욕장	72,825	43	당산해수욕장	965
18	샛별해수욕장	71,775	44	거멀너머해수욕장	946
19	파도리해수욕장	61,521	45	당너머해수욕장	862
20	어은돌해수욕장	61,521	46	진너머해수욕장	852
21	바람아래해수욕장	57,420	47	원산도해수욕장	818
22	의항해수욕장	55,369	48	밤섬해수욕장	806
23	독산해수욕장	51,268	49	명덕해수욕장	563
24	장안해수욕장	51,268	50	기지포해수욕장	
25	방주골해수욕장	49,217	51	사목해수욕장	
26	곰섬해수욕장	44,062			
계			14,100,803		

자료: 통계청, 2013년 기준

③ 해수욕장의 활성화 과제

■ 해수욕장의 다이용 및 다계절 방문 관광자원화 추진

- 충남의 해수욕장은 연간 1,400만명 정도가 방문을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대천, 춘장대, 무창포, 꽃지, 몽산포, 만리포해수욕장 등 6개소 집중됨.
- 이용계절에 있어서도 여름철에 편중하여 방문하여 이에 대한 분산을 위한 관광자원화하고 필요함.

■ 입지유형과 관광자원별 특성화와 차별화 된 해수욕장 조성

- 해수욕장이 집중되어 있는 보령과 태안에는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입지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수욕장 내부와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와 차별화된 해수욕장 조성이 필요함

■ 해수욕장내 적정 시설 및 기능의 도입과 관리운영체계 구축

- 관리주체별로 시범, 일반, 마을해수욕장 등으로 구분되므로 관리등급화에 적합한 시설 및 기능의 도입을 통한 관리운영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 인접한 관광지와 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

- 해수욕장의 인접 지역에 역사문화 자원 및 관광지와 연계를 통한 테마해수욕장을 조성하고, 이들 관광자원과 관광루트화를 통해 활성화 추진

■ 소규모 및 섬지역 해수욕장의 이용 촉진 필요

- 소규모의 마을해수욕장과 섬 지역의 해수욕장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색적인 해변 관광목적지로서의 매력성을 제고해야함

■ 현대적 문화예술과 음식 등 융복합형 해변관광명소화 추진

- 해수욕장과 주변에 있는 현대적 문화예술과 해변의 경관 및 모래사장을 융합한 특성화와 해안의 해산물 음식이 특화된 먹거리 명소화도 필요함.

■ 해수욕장 관리운영 주체의 역량강화와 노하우 축적

- 해수욕장별 관리등급화와 우수 해수욕장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관리운영주체의 교육과 역량강화를 통한 노하우의 축적과 활성화 계기를 마련해야함.

④ 관련계획의 검토

■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에서는 휴식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바다를 위한 주제로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촉진을 위한 테마로 ‘해수욕장 매력도 증진을 위한 시설개선 및 콘텐츠 확충’, ‘해수욕장 관리강화’, ‘해수욕장 다각적 홍보 지원’ 등이 있음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에서 해수욕장 연계 사업

주제	테마	항목	세부추진과제	비고
휴식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바다관광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촉진	해수욕장 매력도 증진을 위한 시설개선 및 콘텐츠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선 • 테마이벤트 개최 • 사계절 명품해수욕장 시범사업 	높음 높음 보통
		해수욕장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 관리체계 정비 • 해수욕장 안전시설 등 확충 지원 • 해수욕장 환경 관리 등 • 해수욕장 평가·환류체계 구축 	높음
		해수욕장 다각적 홍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 포털 고도화 및 유관 사이트 연계 • 모바일 앱 개발 • 우수해수욕장 기념조형물 설치·홍보 	보통

■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에서는 충청남도 명품해수욕장 5개소 조성방안과 유형별 개발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한 세부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임.

○ 충청남도 명품 해수욕장 5개소 조성(안)

- 대천 해수욕장, 무창포 해수욕장, 꽃지 해수욕장, 만리포 해수욕장, 춘장대 해수욕장
- 해수욕 이외의 즐길거리 확충을 위한 신규시설 도입(해수풀장, 해양레포츠 등)
- 관광객 확보를 위한 사계절 및 야간 프로그램 운영(겨울철 교육·체험프로그램 집중 발굴)

※ 명품 해수욕장의 경우 별도기획 후 개별사업으로 추진

○ 유형별 개발전략 추진

충청남도 해수욕장 유형 구분(안)

구 분		테마우수성	
		낮음	높음
경관 우수성	높음	경관감상형	명품 해수욕장
		벌천포해변, 호도해변, 갯벌, 난지섬, 용두	대천, 무창포, 꽃지, 만리포, 춘장대
	낮음	비활성 해수욕장	레저·체험형
		곰섬, 두여, 의항, 달산포, 파도리, 마검포, 음포, 어은돌, 장안, 장삼포, 백리포, 구례포, 원안, 청포대, 독산, 저두 등	왜목, 신두리

○ (단기·중기)경관감상형: 특색있는 테마 설정을 통한 발전 추진

- 호도해변: 어촌계 예술마을화(여우 상징화)
- 벌천포해변: 해수욕장 지정 추진(현재 미지정이나 향후 시·군관리청 지정 필요), 몽돌해변 홍보, 캠핑 부대시설 확충
- 용두해수욕장: 보령요트학교 연계 해양레저 교육·체험 중심으로 테마화

○ (중기)레저·체험형: 문화경관 조성 및 체험활동을 통한 발전 추진

- 신두리 해수욕장: 해변데크, 리조트로드 조성
- 왜목마을 해수욕장: 해변 오토캠핑장 조성, 갯벌 체험 구역분할 및 순환제 도입, 해양레저타운 조성(별도과제)

⑤ 충남 해수욕장 다계절 이용 활성화 방안

■ 충남 해수욕장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단계별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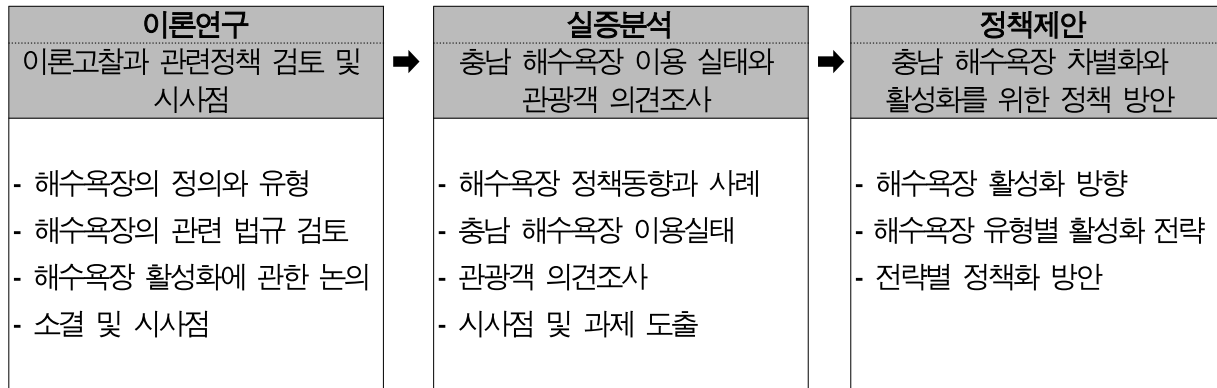
◎ 추진현황과 과제

- 해수욕장과 관련한 그동안 추진사업은 2015년 서해안비전에서 중점 추진과제로 ‘개성있는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을 포함(사업기간: 2015~2020, 사업비: 100억원)하여 추진중임
- 이후 2015년 4월 ‘개성있는 명품 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시군 관계자 회의’개최를 통해 추진방향을 논의함
 - 해수욕장 기본계획 수립 관련 개발전략 방안 논의
 - 우수 및 시설개선 시급해수욕장 선정평가 대응 토의
 - 해수욕장 시설 설치·관리기준에 적정한 해수욕장 조성

◎ 해수욕장 종합정비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충남연구원 전략과제)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2014.12.4)이 제정됨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됨
- 기존 타 법률에 의해 해수욕장의 관리 위주의 체계에서 동 법에선 해수욕장의 지정, 해수욕장 기본계획 수립,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해수욕장 시설사업, 해수욕장 평가 등 기존 해수욕장 규제 위주의 관리에서 이용 및 활용의 측면에서의 운영이 가능해졌음
- 충남의 경우 지정해수욕장이 35개, 미지정 16개소, 섬지역 13개소 등 64개의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시설 설치 등의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충남도에서는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에서 해수욕장 종합정비·차별화사업으로 4개 유형(경관감상형, 명품해수욕장, 비활성 해수욕장, 레저·체험형)으로 구분하여 신규시설 등의 도입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이에 2016년 충남연구원 ‘충남 해수욕장 유형별 활성화를 위한 전략방안 연구’를 통해 충남 해수욕장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단계별 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함
- 해수욕장 유형별 활성화 방안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론연구 : 해수욕장 이론 고찰과 관련 정책의 검토

- 충남 해수욕장의 현황과 관광자원화 과제도출
- 해수욕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충남 해수욕장의 차별화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
- 유형별 대표 해수욕장 활성화 및 정책화 방안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연구내용

■ 충남형 hub & Spoke 해수욕장 활성화 사업 추진(태안군 사례 예시)

◎ 해수욕장 활성화의 기본방향

- 해수욕장별 자원을 활용한 테마관광지화로 명소화와 계절적 이용을 통한 4계절 관광객 유치
- 태안해안국립공원구역내의 어촌마을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한 정주 및 관광기반시설의 조성을 추진하고, 집단시설지구는 재정비를 통해 시설·공간을 확충
- 갯벌, 사구, 해안경관, 호수 등을 자원화 한 생태학습, 바다학습장 조성과 염전, 독살, 도자기 등 지역 전통문화와 연계한 체험장 조성과 프로그램의 운영
- 지역의 역사문화, 자연경관의 소재를 활용한 테마공원의 조성과 관광코스 개발
- 수목원, 자연휴양림, 박물관, 유적지 등을 연계 관광루트로 한 테마관광루트 발굴·육성
- 해양이용객의 활동을 고려한 해양스포츠, 운동체육시설과 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캠핑카) 등 시설 조성과 운영을 통해 해수욕장의 활성화를 추진
- 해안 환경오염방지와 하절기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리·운영방식의 합리화 방안 추진

◎ 허브(hub) & 명소(spoke)해수욕장의 개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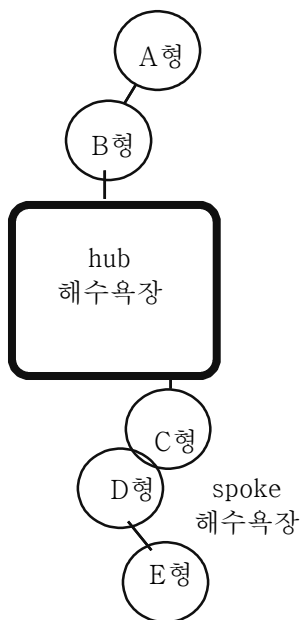
- 태안의 해수욕장 중 규모와 지리적 접근성, 집단시설지구의 조성 가능 등을 고려하여 허브(hub)해수욕장으로 집중 육성
- 허브해수욕장을 통해 주변의 스포크(spoke)해수욕장으로 연결하고, 주변의 해수욕장별로 보유한 자원의 특성에 따라 테마형 명소해수욕장으로 개발
-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로 연계된 해수욕장들 중에는 계절별로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과 이벤트를 개최하여 4계절 해수욕장으로 태안군에 균형적으로 분산하여 전략적으로 개발

◎ 허브(hub) & 명소(spoke)해수욕장별 개발전략 예시

- 허브(hub)해수욕장으로 학ampo, 만리포, 연포, 몽산포·청포대, 꽃지·백사장해수욕장 등의 5개 거점 해수욕장 육성



정비된 해안 전경 예시



- 학ampo지구는 집단시설지구를 활성화하여 숙박, 상업, 관광편익시설을 재정비하고, 인접한 구례포, 신두리, 꾸지나무골, 사목해수욕장 등과 연계코스 개발
- 만리포지구는 가족과 단체 중심의 해안관광지로서 숙박, 상업, 관광편익시설외에 다양한 위락시설기능을 도입하여 조성하고, 연계코스로는 구름포(일리포), 의항(십리포), 방주골(백리포), 천리포, 어은돌, 파도리, 통개해수욕장 등으로 개발
- 연포지구는 기존의 집단시설지구를 활성화하여 가족과 회사 단체연수를 위한 시설확충과 송림지역에 자동차야영장을 조성하고, 인근의 갈음이해수욕장과 연계코스화
- 몽산포·청포대지구는 집단시설지구내 숙박, 상업, 관광편익시설과 해양스포츠와 이벤트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청포대에는 청소년수련지구와 프로그램, 별주부전수중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인근 달산포, 마검포해수욕장과 연계코스 개발
- 꽃지·백사장지구는 꽃지해수욕장은 국제적 리조트



해변가 전경 예시

휴양지조성을 수용하여 개발하고, 백사장은 백사장
항과 연계하여 집단시설지구에 숙박, 상업, 관광편익
시설과 대하축제 등 수산물이벤트를 공간을 도입하
고, 인근의 삼봉, 기지포, 안면, 두여, 밧개, 방포, 셋
별, 장삼, 장돌, 바람아래해수욕장 등과 연계코스로
개발

○ 스포크(spoke)해수욕장으로서 각 해수욕장별로 명소를 만들기 위한 추진전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꾸지나무골과 사목해수욕장은 꾸지나무골 독살체험, 나오리축제 도자기체험,
관리의 뱃가리대놀이, 내리의 염전체험 등과 연계하여 개발
- 신두리는 사구인접지역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가족과 청소년을 위한 4계절
관광지로 육성
- 구례포는 야영장과 연계하여 자동차야영장을 조성하여 야영중심의 해수욕장
으로 개발
- 구름포(일리포), 의항(십리포), 방주골(백리포), 천리포해수욕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테마로 특히, 독살을 활용한 체험과 바다학습장 조성, 천리포
수목원을 연계하여 육성
- 어은돌, 파도리, 통개해수욕장은 기존 어촌마을을 정비하여 통나무집 숙박지
역을 육성하여 대학생 MT와 기업체 연수, 장년층의 바다낚시 등을 위한 해
수욕장으로 개발
- 갈음이 해수욕장은 젊은층과 연인을 중심으로 드라마와 영화를 테마로 하는
시설과 공간, 이벤트프로그램을 육성하여 4계절 해수욕장으로 육성
- 달산포, 마검포해수욕장은 마검포항을 재정비하여 편익시설을 지원하는 어항
으로 육성하고, 독살을 활용한 어촌체험과 자연학습장을 조성
- 삼봉, 기지포, 안면해수욕장은 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을 조성하고, 주변의 발
달된 민박과 연계 단체연수와 대학생 MT, 운동체육시설과 해양레크레이션
시설을 조성
- 두여, 밧개, 방포해수욕장은 방포항의 재정비로 관광편익시설을 지원하는 어항
으로 조성하고, 두여와 밧개는 독살과 바다학습, 어촌체험해수욕장으로 육성

- 셋별, 장삼, 장돌, 바람아래해수욕장은 송림, 갯벌, 사구 등과 연계한 어촌체험마을을 육성하고, 패총박물관, 목장등 관광코스로 개발

■ 자원 및 입지특성별 테마해수욕장 개발

◎ 현황과 개선과제

- 국도 77호선 주변에 입지하고 태안군의 해수욕장의 자원 및 입지를 살펴보면, 모래사장의 길이와 관광편익시설, 배후지역, 주변마을 관련 역사문화자원, 음식점, 주변 해수욕장의 연계성 등이 각각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 이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입지특성에 따라서 앞으로 개선해야할 과제를 살펴보았음.

태안군의 해수욕장 자원 및 입지 특성 분석

구 분	현 황 분 석	개선과제
몽 산 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3.5km 대규모 해수욕장 • 숙박시설, 편익시설, 기반시설 등이 비교적 양호 • 울창한 송림, 휴게공간, 체육시설, 야외무대 조성 과 기업체 하계수련장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시설 지구내 재정비를 통한 숙박, 음식, 편익 시설과 해변이벤트, 해양스포츠 시설 확충 추진 • 송림지역 야영장과 연계하여 자동차야영장(캠핑카) 조성 과 하계수련시설 확충
달 산 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넓은 모래사장을 보유한 해수욕장 • 안내시설이 없어 접근이 어려우며 시설전무 • 넓고 평탄한 배후지역은 활용가능성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해안국립공원내로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중심 으로 확충 • 어촌체험의 학습장으로 활용
청 포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대규모 해수욕장 • 울창한 송림과 고운 모래사장 보유, 독살분포 • 별주부전의 유래가 전해지는 마을, 섬 등이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중심의 집단시설지구로 청소년수련원, 학습 관, 운동체육시설, 교육시설 등의 시설 도입 • 별주부전 수중공원 조성으로 청소년과 가족 유치
마 검 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검포항과 인접하며 넓은 백사장을 보유 • 야영이 가능한 울창한 송림이 아름답고, 독살분포 • 시설조성은 부족, 실치회 유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과 야영장을 조성하고, 마검포항에 숙박, 음식시설을 놓어준 주택개량사업으로 도입 추진 • 독살을 활용한 어촌체험과 자연학습장 조성
백 사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대규모 해수욕장 • 백사장항과 인접하고 웨스턴 레저타운 등 편익시 설과 기반시설, 숙박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짐 • 삼봉, 기지포, 안면, 두여, 밭개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면도 어항인 백사장항과 주변 숙박·음식편익시 설 중심의 4계절 해수욕장관광지로 개발 추진 • 대하축제의 활성화와 백사장항 미항조성과 연계
삼 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담하고 조용한 가족형 중심의 3.8km 해수욕장 • 태안해안국립공원내의 울창한 송림은 야영이 가 능 • 대학생의 MT지역으로 인기가 높고 편익시설과 주변에 기반시설, 숙박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림의 야영장과 연계하여 오토캠핑장(캠핑카)으 로 활용 •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회용 운동체육시설 과 해양레크레이션 시설의 확충
기 지 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해안국립공원내로 삼봉해수욕장과 해안산책 로 연결 • 송림이 아름답고, 편익시설과 기반시설, 숙박시설 은 삼봉해수욕장에 예속, 주변에 국사봉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휴양객을 위한 야영장과 편익시설 확충 • 아름다운 섬과 낙조를 감상하기 위한 조망공간포 인트를 조성하고, 국사봉 연계 산행로 조성

구 분	현 황 분 석	개선과제
안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안해안국립공원내로 송림이 아름답고 2km 백사장 숙박시설 위주로 시설이 구성되어 있으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은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림을 활용한 휴게공간 조성과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 바다낚시와 해변 어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두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안해안국립공원내로 안면해수욕장과 해안산책로 연결, 독살분포 작은 규모의 숙박시설은 구성되어 있으나 편의시설, 기반시설은 매우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박마을의 활성화와 송림을 활용한 휴게공간 조성 독살을 이용한 바다학습장과 어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빛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안해안국립공원내로 두여해수욕장과 해안산책로 연결되고 백사장은 3.4km, 독살 분포 작은 규모의 숙박시설은 구성되어 있으나 편의시설, 기반시설은 매우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민박마을의 육성과 해수욕장 배후에 휴게공간 조성 독살을 이용한 바다학습장과 어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방 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안해안국립공원내로 방포항과 인접한 해수욕장 방포항에는 강리, 아나, 우럭, 고등어 등의 생선이 풍부하며 방포 전망대 설치사업이 계획 중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조성되고, 해수욕장의 편의시설은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방포항의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의 상업시설을 재정비하여 활성화 안면도 국제관광지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 조성 내파수도, 외파수도, 모감주나무군락지와 연계 코스 개발
꽃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개최지역 물이 빠지면 조개, 고동, 게 등을 관찰 가능 자연휴양림과 인접하고 숙박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음 명품해수욕장 사업 추진중, 해안사구 복원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면도국제관광지를 리조트휴양지로 조성하여 서해안의 거점관광단지로 육성 안면읍, 자연휴양림, 꽃지 연계 관광거점 개발
갯 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안해안국립공원내로 조약돌의 조용한 해수욕장 송림이 아름답고, 숙박시설 위주로 시설 조성중 넓은 평탄지는 활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영장연계 자동차야영장 활용과 휴게공간, 편의시설, 운동체육시설 등을 확충 음식시설은 주변 어촌마을에 활성화
장 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안해안국립공원내로 고운 모래사장의 해수욕장 작은 규모의 숙박시설이 조성 시설은 열악하고 개발가능지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수욕장 주변에 편의시설과 휴게시설 확충 바다학습장 조성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인근 패총박물관과 연계코스 개발
장 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안해안국립공원내로 일명 '장곡해수욕장'으로 자갈과 모래로 구성된 1.5km 해수욕장 숙박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시설조성가능한 부지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수욕장의 주변 어촌마을에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숙박과 음식점, 편의시설 등을 개발 어촌체험마을 조성 바다학습프로그램 운영과 인근 패총박물관과 연계코스 개발
바람아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안해안국립공원내로 진입로는 비포장이나 송림이 아름다움 YMCA 태안 어린이갯별학교와 인접 넓은 갯별체험장과 갯별식물, 사구식물이 발달 숙박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어촌마을에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숙박과 음식점, 편의시설 등을 개발 갯별체험장 조성 사구학습장 등 생태프로그램 운영 인근 패총박물관과 연계코스 개발 송림을 이용한 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 조성

◎ 추진 방향

- 해수욕장의 활성화는 해수욕장 시설조성과 운영·관리 방안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해수욕장 시설조성은 해수욕장 기본적인 편의시설과 기반시설부터

구축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부대시설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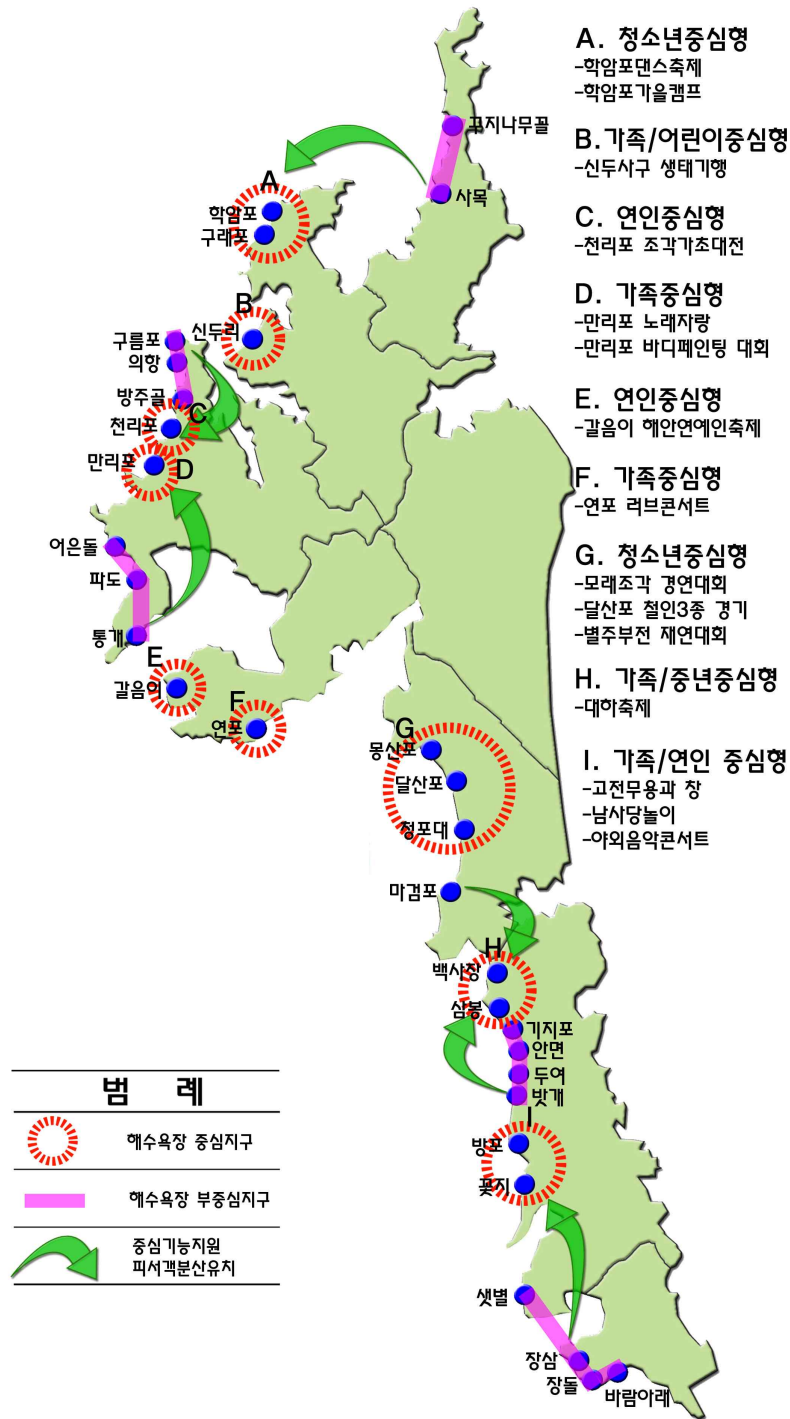
- 집단시설지구의 지정이 제외된 태안해안국립공원내 해수욕장의 시설조성은 어촌마을의 취락구조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단계별로 추진
- 해수욕장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이용권을 확대하고 차별화하며, 다양한 이용시기를 수용
- 소규모 해수욕장은 대규모 해수욕장의 중심기능을 지원하고,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자연적인 개발 도모

◎ 자원 및 입지와 이벤트 연계 해수욕장 차별화 방안

- 해수욕장별로 보유하고 있는 모래와 자갈, 송림, 독살, 백사장 형태, 해안경관, 바다풍경, 낙조 등과 주변의 어촌마을과 관광자원, 주요축제와 이벤트에 따라 차별화 추진

태안 주요 해수욕장 차별화 방안 예시

해수욕장명	표적계층	주요 이용행태	주요 축제·이벤트	주변 관광자원
꾸지나무골, 사목, 신두리	가족·어린이 중심	생태관찰, 어촌체험	벚가릿대 놀이, 신두사구 생태기행	내리어촌마을, 나오리축제, 벚가리마을, 만대포구, 가로림만, 신두사구, 이중일생가, 소근진성
천리포, 갈음이	가족·연인 중심	휴양, 휴식, 관광	조각가 초대전, 해안 연예인 축제	천리포수목원, 안홍항, 안홍성, 태국사, 순기비골프장
만리포, 연포	가족·단체 중심	휴양, 휴식	만리포 노래자랑, body painting, 한밤의 러브콘서트	백화산, 마애삼존불, 안홍항, 채석포
몽산포, 달산포, 청포대	청소년 중심	자연학습, 해양스포츠, 운동	모래조각 경연대회, 달산포 철인 3종경기, 별주부전 재연대회	굴혈독살, 몽대포, 백합시험장, 청산수목원, 석가여래좌상, 향토박물관
백사장, 삼봉	가족, 중년중심	휴양, 휴식, 관광, 수산물구매	대하축제	백사장항, 황도, 안면도 해수탕, 안면암, 국사봉
밭개, 꽃지	가족, 젊은층 중심	휴양, 휴식, 위락, 레저	고전무용과 창, 야외 음악콘서트, 낙조예술제 등	꽃지해안공원, 승언저수지, 안면도자연휴양림, 할미·할아비바위, 목장, 모감주나무 군락
의항, 통개, 마검포	장년 중심	바다낚시	태안군 바다낚시대회	천리포 수목원, 해옥전시장, 독살, 백합시험장



태안군 주요 해수욕장별 차별화 특화 구상도 예시

- 꾸지나무굴·사목·신두리해수욕장은 가족과 어린이 중심의 표적시장으로 생태 관찰과 어촌체험으로 차별화 개발
- 천리포·갈음해수욕장은 가족과 연인을 표적시장으로 수목원 및 영화촬영장소를 테마로 하는 휴양, 휴식, 관광지로 개발

- 만리포·연포해수욕장은 가족 중심의 표적시장으로 휴양과 휴식을 위한 관광지로 개발
- 몽산포·달산포·청포대해수욕장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자연학습, 운동, 해양스포츠 등을 위한 관광지로 개발
- 백사장·삼봉해수욕장은 가족중심 젊은층, 청소년 중심으로 휴양, 휴식, 관광, 수산물 구매 등의 테마로 개발
- 뱃개·꽃지해수욕장은 가족중심의 표적시장으로 휴양, 휴식, 위락, 레저 등의 해안관광지로 개발
- 의항·통개·마검포해수욕장은 장년을 중심으로 해양스포츠와 바다낚시 등을 위한 해수욕장으로 개발

■ 지역 어촌과 해변캠핑장 등 배후지 활성화

◎ 추진 방향

- 해수욕장의 활성화는 해수욕장 시설조성과 운영·관리 방안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해수욕장 시설조성은 해수욕장 기본적인 편의시설과 기반시설부터 구축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부대시설 조성
- 집단시설지구의 지정이 제외된 태안해안국립공원내 해수욕장의 시설조성은 어촌마을의 취락구조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단계별로 추진
- 해수욕장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이용권을 확대하고 차별화하며, 다양한 이용시기를 수용
- 소규모 해수욕장은 대규모 해수욕장의 중심기능을 지원하고,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자연적인 개발 도모
- 해수욕장 인접 마을번영회를 조직화하여 주민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을번영회의 활동의 모범해수욕장에 대한 예산을 지원
- 관광객의 불만소지가 가장 많은 바가지 요금 해소를 위해 가격표시제 실시하고, 각종 문화, 이벤트 행사를 개발하고, 체험형으로 전환하여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계절적으로 이용자를 분산
- 비수기와 해수욕장 개장전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마을번영회와 상인들의 관광서비스를 개선토록 추진

◎ 해수욕장 지원 해안형 숙박과 편의시설 확충과 정비

- 태안의 해수욕장들은 25개소가 국립공원 이외지역으로 관광지 개발이 가능한 만리포와 꽃지를 제외하고서는 관광기반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법상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여 자연환경과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시설의 도입 추진
- 해안국립공원내 시설들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계획변경을 통하여 주택의 재건축이 가능하므로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는 공원사업허가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받고, 태안군에서 건축허가를 통해 현대식 민박시설과 화장실, 샤워시설 등을 주택내에 건축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주택의 개량을 위해서 태안군이 주체가 되어 태안해안국립공원지역내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취락지구에 대해서 주택개량사업으로 추진하여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 개선과 관광기반시설을 확충
- 태안군의 농어촌주거환경 개선과 해수욕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안의 해수욕장 벨트를 환경이 깨끗하고,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해안휴양지로 개발
- 태안군의 태안해안국립공원내 지역에 취락개선사업을 통한 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음



정비된 해안마을 전경

- 1단계 : 태안군이 취락지구 개선사업추진의 의사결정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와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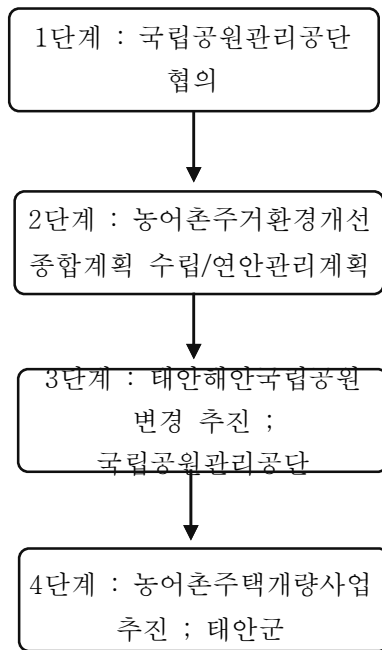
※신안군의 사례 ; 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이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합의



정비된 해안마을 전경

- 2단계 : 태안군 해안지역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 태안군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입지조건 검토 후 마을 선정, 태안군 연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신안군의 사례 ; 사업대상 마을이 1개소이므로 국립공원계획 변경승인 신청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통나무집 건축을 위하여 민자유치 사업 추진 방안 모색

- 3단계 :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 추진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심의과정을 통해 결정 ;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을 결집하여 복합적으로 추진
- 4단계 ; 태안군에서 건축허가를 통해 민박, 화장실, 샤워시설 등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농어촌주택개량추진사업으로 추진

- 향후 서해안 연안지역은 어항과 어촌마을을 중심으로 5도2촌형의 주거·관광·산업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친환경적 연안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새로운 주거생활공간의 차원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협의를 통해 태안군이 선도적으로 추진
- 해수욕장은 배후지역에 송림과 저산성 구릉지가 발달되어 있으므로 해안관광 기반시설과 해양레저·스포츠 기반조성을 위해 해안형 숙박과 편익시설을 확충과 정비
- 태안해안국립공원구역내에서 집단시설지구는 기존 집단시설지구를 재정비 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해양환경변화에 적합한 친수 문화공간과 관광 기반시설을 갖춘 허브(hub)해수욕장으로 육성
- 해수욕장의 이용특성상 계절적 편중성과 지형상 국립공원구역내에 입지하고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야영장과 방갈로, 자동차야영장



카라반 시설안내도

- 등의 시설을 해수욕장의 특성에 맞도록 개발을 추진
- 해안형 숙박시설과 편익시설의 확충 및 설치방향으로는
 - 해수욕장에 접한 기존 송림의 야영장은 국립공원관리지침에 적용되는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 국립공원 이외의 배후지역 지형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지역에 야영장, 방갈로, 자동차야영장 등을 집단

화하여 조성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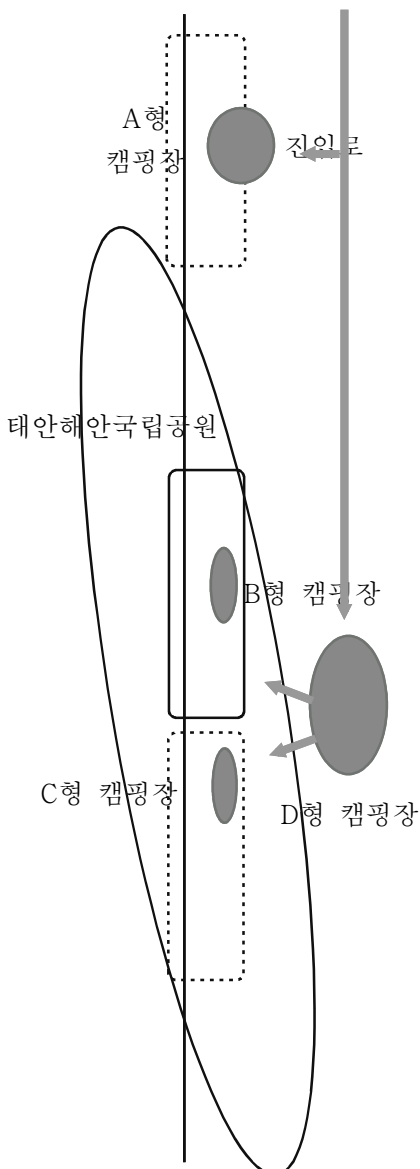
- 이를 지원하는 주차장과 화장실, 샤워시설, 운동체육시설 등 관광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난개발을 방지

◎ 해양형 숙박과 편익시설 확충 및 정비 방안

- 해수욕장중에서 대부분 기존에 야영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이는 송림과 기타 유희지를 활용한 자연발생적인 야영장이므로 계획적인 야영장 조성과 관리를 추진

- 해수욕장중에서 대부분 기존에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이는 송림과 기타 유희지를 활용한 자연발생적인 야영장이므로 앞으로는 계획적인 야영장 조성

- 캠핑장이나 가라반, 자동차야영장의 조성은 해수욕장 별로 지형이나 진입도로, 국립공원구역의 여부 등에 따라 조성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추진



- 태안해안국립공원외 지역(A형) : 해수욕장 배후지역을 활용하여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해 캠핑장, 방갈로, 자동차캠핑장 등을 조성
- 태안해안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지역(B형) : 집단시설지구 계획에 의하여 야영장을 조성하고, 필요할 경우 카라반과 자동차캠핑장 조성도 계획변경을 통해 추진
- 태안해안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외 지역(C형) : 집단시설지구가 아닌 국립공원지역은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취락지구, 밀집취락지구 등에 따라 허용시설을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캠핑장과 이동식 편익시설을 설치
- 집단시설지구 이외면서 국립공원외 지역(D형) : 국립공원 경계에서 벗어난 배후지역에 산림과 저산성



해안 카라반 시설 전경

구릉지로서 캠핑장과 카라반, 자동차야영장의 조성
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어촌체험마을개발과 병
행하여 추진

- 자동차캠핑장 시설은 지역의 입지에 시설물의 설치
조건에 따라 간이식과 영구식으로 구분하고, 여름철
이용은 간이식으로 하고, 봄과 가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영구식으로 조성

■ 충남 해수욕장 관리주체 역량강화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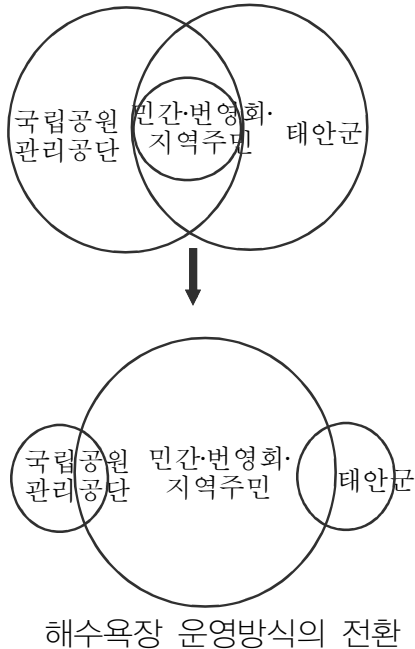
◎ 추진 방향

- 해수욕장 기존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인접 마을번영회를 조직화하여 주민참
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을번영회의 활동의 모범해수욕장에 대한
예산을 지원
- 관광객의 불만소지가 가장 많은 바가지 요금 해소를 위해 가격표시제 실시하
고, 각종 문화, 이벤트 행사를 개발하고, 체험형으로 전환하여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계절적으로 이용자를 분산
- 비수기와 해수욕장 개장전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마을번영회와 상인들의 관
광서비스를 개선토록 추진

◎ 해수욕장 관리·운영방향

- 태안의 해수욕장은 태안해안국립공단에서 주로 관리·운영하는 집단시설지구와
태안군과 마을과 상가번영회 등에서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크게 두 가
지 형태로 병행이 되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방식과 운
영주체의 개선을 추진
- 태안해안국립공원과 태안군에서 총괄적인 운영방식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선
을 하여, 관리·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지역 즉, 마을이나 상가의 민간위탁운영
으로 전환하여 해수욕장의 환경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
- 해수욕장의 운영주체의 경영수지와 운영관리비용을 위해서는 국립공원의 입장
료와 해수욕장의 이용료를 절충하는 적절한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
- 기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태안군이 관리운영의 주된 주체이었던 것을 민간기

업체, 마을과 지역주민, 전문운영단체의 별도 구성 등에 의한 3가지 운영주체로 추진



- 마을과 지역주민단체 운영주체 : 마을발전이나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차원에서 마을단체에 위탁 운영
- 민간기업체 위탁운영주체 : 관광사업체와 위락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체가 위탁받아 운영. 지역에 관광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관광지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수욕장에 관한 운영권을 부여
- 해수욕장 운영단체를 별도로 구성한 운영주체 : 여름에 해수욕장만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전문업체를 설립하여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운영단체는 이 해갈등의 대립 등 부작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역비영리단체를 선정하여 운영

○ 해수욕장의 운영은 일괄위탁방식을 원칙으로 앞의 3가지 주체에게 운영 및 관리권을 일괄위탁하고 의무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리.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운영주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여 관리 및 통제를 하는데, 임대계약서 상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입장료 지분과 사용
- 편의시설 및 관리기준
-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및 장비확보 기준
- 해수욕장의 청결유지 및 관리기준
- 적정물가유지 의무
- 전대 및 호객행위 금지
- 입장료의 징수 및 사용기준
- 해수욕장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사항
- 익사사고에 대비한 배상 책임보험 가입의 의무
- 지역이미지를 떨어트리는 행위의 금지
- 이상의 사항을 위반시 제재사항 등

- 그리고, 태안군에서는 위탁운영자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상시 점검반을 편성하여 가동시킬 필요가 있음
- 태안군은 보다 효율적인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매년 모범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 차 연도에 해수욕장 운영권 다시 부여 또는 대규모 해수욕장의 운영권을 부여
- 특히, 해양수산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공유수면(해수욕장) 관리·운영지침에 따라서 태안군 위탁관리의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

※ 공유수면(해수욕장) 관리·운영지침(2001년) 예시

□ 검토배경

- 국민들의 연안접근 및 이용욕구의 증대로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 공유수면관리청은 체계적인 해수욕장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해수욕장별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 피서질서 문란, 안전미흡, 바가지요금 등으로 피서객의 불만 초래
- 이에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해수욕장)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깨끗하고 편안하며 안전한 해수욕장을 운영토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피서객의 연안이용욕구를 충족하고자 함에 있음

□ 세부 관리·운영지침

주요내용	세부 추진사항	비 고
□ 종합민원봉사실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간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설치장소 : 해수욕장관리사무소 또는 마을 번영회 사무실 등 지자체 실정에 맞는 장소를 모색하여 이용 ○ 근무 : 공무원, 번영회 및 자원봉사자 등 합동근무 ○ 운영 : 종합민원처리센터 성격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상황유지, 피서객 불편사항처리, 관광안내, 미아보호, 안내방송, 교통·행락 질서계도 등 종합기능 수행 	
□ 관광지 피서질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도난, 풍기문란, 폭죽놀이, 노점상 등 무질서 행위 ○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민원실내에 「질서확립 대책반」 편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검찰, 경찰,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합동계도 단속반 편성 운영 - 부당·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의법 조치 - 폭죽판매 및 반입자에 대하여는 강력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내 상점·매점에서의 판매 제한조치 및 총·포·화약류 관리법에 의한 의법조치 검토 	
□ 피서지 물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관리제 적극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정결의 유도 : 운영협의회, 상가·민박협의회 활성화 - 협정가격 설정 : 대형 입감관, 업소가격표 부착 - 모범업소 인증제 실시 ○ 행정지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견제업소 적극유치 - 간담회 등으로 동참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한 업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부여등 자율참여 확대 ○ 임대·전대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 관리·운영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 - 부득이하게 위탁을 하는 경우 개인보다는 공익단체에 위탁 ○ 종합민원봉사실내에 「부당요금 신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동향 순찰자 지정·운영(공무원 소비자 단체 등) - 해수욕장 인근 주민을 「명예 물가 감시원」으로 위촉 활용 - 부당요금 신고시 신속해결 및 부당 상거래 행위 의법 조치 ○ 물가합동 지도단속반 편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관리청, 경찰, 세무서 등과 합동편성 - 주기적으로 물가지도 합동점검 실시 	

주요내용	세부 추진사항	비 고
<input type="checkbox"/> 쓰레기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적기 수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차량 및 인력확보 · 1일 2회이상 수거토록 수거체계 확립 ○ 크린업 타임제 실시(매일 2회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서객의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기념품 지급 등 인센티브 도입 - 사회단체, 학생 등의 봉사활동 적극 유도 ○ 쓰레기 종량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규격봉투를 해수욕장 입장시 유상지급 및 임시판매소 운영 ○ 쓰레기 안버리기 홍보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랜카드, 입간판, 캠페인 등 - 쓰레기 안버리기, 쓰레기 가져가기 등 수시안내 방송 실시 ○ 오물투기등 불법 행위자 단속 	
<input type="checkbox"/> 숙박(민박)시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별 민박협의회, 민박안내센터 운영 ○ 민박시범 마을, 베스트 민박 지정운영 ○ 민박마을 주거환경 및 서비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박가정 : 시설물 개선 - 민박마을 : 마을주변 환경정리 ○ 시·군 홈페이지에 해수욕장별 민박현황 게재 ○ 민박마을, 민박가구 담당제 실시로 업주 홍보사전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박요금 협정가격 설정 운영 -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민박이 제외되어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에 민박은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기준이 없어 행정지도에 한계 ※ 민박무료 제공의사가 있는 건물주 파악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무료 제공 	
<input type="checkbox"/> 각종 편의시설 정비 및 관리 - 공중화장실, 샤워장 주차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화장실, 급수(샤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장전 공중화장실 및 급수시설 일제정비 · 내부시설 점검 및 개보수 · 외부도색 정비 및 안내 표지판 설치 · 화장실 잔뇨 일제수거 - 화장실, 급수시설 실명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담 청소원 배치 ○ 공공급수시설 음용수(지하수) 수질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의뢰 및 결과 부착 - 시설물(수도꼭지, 물탱크 등) 정비 ○ 샤워장 바닥보수, 탈의실 및 전기시설 정비 ○ 주차장 및 교통질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주차장 확보(인근학교, 공공시설, 마을공터 등) - 주차안내 표지판 설치, 안내요원 배치 등 - 「교통불편 신고센터」 설치·운영 · 경찰서, 파출소 등과 협의하여 교통불편사항 접수·처리 	시설관리 책임자 지정·운영

주요내용	세부 추진사항	비 고
□ 보건·위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관리 강화(관내 위생업조합과 공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장에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교육, 위생, 친절 등 - 시설개선 및 업소주변 환경정리 - 개장기간 특별위생 점검(점검반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 등 청결상태 및 종사자의 위생상태 · 무허가 원료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부정·불량식품 보관·사용여부 등 - 잡상인 및 불법 영업행위 단속 ○ 전염병 예방 및 방역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회이상 방역 소독(연막 및 잔류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화장실, 쓰레기장, 하수구, 야영장 주변 등 · 방역기동반 설치 운영 - 수인성 전염병 예방 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급수시설 등 소독 · 수인성 전염병 발생대비 보건소 등에 상황실 설치 운영 등 ○ 피서객 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진료소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진(의사, 간호사 등), 구급차, 치료기구 등 · 환자 응급처리 및 긴급 후송 - 종합안내소 및 번영회 사무실에 구급약 등 비치 - 야간 진료체제 확립,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조 추진 	
□ 수상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구조대 및 인명구조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해수욕장에 119구조대 상설운영(개장→폐장까지) - 인명구조인원 등 전문인력과 구조장비 확보 ○ 위험경고판 및 수영한계선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판 및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수칙판 설치 및 보수 - 위험표시를 위한 부표 및 깃발 설치 ○ 유·도선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명동의, 구명부환 등 구조장비 비치, 안전수칙 준수 - 유·도선장 안전시설 설치 등 철저한 예방점검 ○ 수상레저기구 관리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구역내에서만 운항토록 함 - 유자격자 동승후 운항토록 지도·감독 ○ 유관기관·단체의 상호지원 협조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구조대, 경찰(해경)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유사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 해병전우회, 인명구조단체 등 민간봉사 단체와 협조체제 구축으로 사고발생시 신속한 조치 ○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수시 물놀이 사고예방 방송 - 전단, 현수막, 캠페인, 안전수칙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 계도 ○ 배상책임 범위확대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전해수욕장 	

주요내용	세부 추진사항	비 고
□ 수익시설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시설물 : 간이상가, 주차장, 야영장, 샤워장, 비치파라솔 등 ○ 운영 : 가급적 공유수면관리청이 직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득이한 경우 위탁관리 가능 ○ 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관리시 관리자 선정에 유의(가급적 지역단체에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운영 및 문제야기자는 배제 - 시설사용료의 해수욕장별 동일한 요금 적용토록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마다 요금차이가 나는 경우 바가지 요금으로 착각 - 개인 비치파라솔 설치행위 가급적 전면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구역 안내표시판 설치 	
□ 다양한 해변 문화행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이벤트행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대표이벤트행사 개최로 이미지 부각 예)머드축제, 신비의 바닷길, 체험조개잡이 등 ○ 방송국, 관광협회, 번영회 등과 협조하여 이벤트행사 적극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자랑, 콘서트, 영화제,가요제 등 - 비치발리볼 대회, 해변축구대회, 윈드서핑대회 등 ○ 참여·체험이벤트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개잡이, 갯벌, 모래찜질 등 ○ 해수욕장별 특산물 판매장 운영(농협, 수협 등과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표 농·수산물을 저렴하고 안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함 ○ 대중 먹거리 공간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음식,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 등 ○ 새로운 레저시설 유치로 해수욕장 이용객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지점프, 다이빙대 등 	
□ 백사장 및 송림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림·백사장내 야영·취사행위 금지 ○ 송림·백사장내 유흥지 야영, 주차지역 지정 운영 ○ 송림보호 훼손설치 등 송림지구내 출입통제(단속반 운영) ○ 유실된 백사장의 보충 ○ 해수욕장내 송림 구간의 휴식년제 도입 검토 	

◎ 해수욕장 관리운영 주체 아카데미 운영

- 충남의 서해안지역의 해수욕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충남의 해수욕장 관리운영 지침과 친절서비스 교육 등 아카데미 실시

경북관광아카데미, 동해안 해수욕장 관계자 친절교육사업 실시 사례

메일보내기 | 오류신고 | 프린트 | +가 | -가

경북관광 아카데미(4기), 동해안 해수욕장 관계자 친절교육

2009년 06월 17일 (수) 13:27:46

최석우 사회부장 ☞ seokwoo@yahoo.co.kr

경상북도는 6. 17일(수) 영덕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대비하여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진군 등 동해안 4개 시,군 해수욕장 관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경북관광 아카데미는 「동해안 해수욕장 관계자 친절교육」과정으로 금년 들어 4번째 교육을 추진 중이며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해수욕장 운영위원회, 번영회,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음식점, 민박업소, 물품대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내용으로 △고객감동서비스 마인드 함양이라는 주제로 JHS 스피치 아카데미 지홍선 원장,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행복대화법이라는 주제로 유머연구소 이상준 소장이 강의를 맡았다.

이날 참가자들은 두 강사의 명 강의에 시종일관 눈을 떼지 못하였으며 친절로써 “감동을 주는 관광경북 실현”과 경북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범 친절교육을 통한 대고객 서비스마인드를 제고하여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다시 찾고 싶은 관광경북 이미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경북 동해안 7번 국도를 따라 펼쳐지는 전경은 최고의 찬사가 아깝지 않을 만큼 훌륭하며 세계 어디를 내놓아도 손색없는 우리나라의 보배로운 관광자원이다.”

국민들에게 동해안의 진가를 더 잘 알려서 보다 많은 관광객이 경북 동해안을 찾을 수 있도록 손님들에게 저렴하면서도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⑥ 충남 해수욕장 활성화 주요 추진사업 제안

■ 명품거점(hub) 해수욕장의 조성 및 운영

- 명품해수욕장의 단계별 조성 : 꽃지(조성중), 대천, 무창포, 만리포, 춘장대해수욕장 등 단계별 추진
 - 꽃지해수욕장 : 가족 및 연인 중심형, 안면도 거점해수욕장
 - 대천해수욕장 : 젊은층 및 가족 중심형, 대천 거점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외에 해수풀장, 해양레포츠 등 신규시설 도입 및 기능의 강화

- 사계절 및 야간프로그램의 운영 : 봄, 가을, 겨울 등 교육·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테마해수욕장(spoke)의 개발과 다계절 방문객 유치

- 테마해수욕장의 네트워크 개발
 - 기지포해수욕장 : 낙조감상 조망대 및 이벤트 개최, 국사봉 해안길 활성화
 - 안면해수욕장 : 어촌과 바다낚시프로그램 이벤트 개최, 송림 휴게공간 조성
 - 바람아래해수욕장 : 갯벌학습장, 사구학습장 등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 전통문화 및 이벤트의 발굴·육성과 정기적 개최

- 전통문화 및 이벤트 해수욕장 개발
 - 두여, 밧개해수욕장 : 독살 활용 바다학습해수욕장화, 어촌체험프로그램 운영
 - 장삼, 장돌해수욕장 : 바다학습의 날 행사 운영, 패총박물관과 영목항 연계 전통문화행사 및 해양이벤트 개최

■ 음식특화 해수욕장과 방문객 체류형 배후 캠핑장 조성

- 음식과 숙박시설을 활용한 해수욕장 조성
 - 백사장해수욕장 : 대하축제와 음식·숙박중심 4계절화
 - 삼봉해수욕장 : 송림 배후 젊음의 층 중심 오토캠핑장 조성
 - 방포해수욕장 : 횃집과 숙박시설, 내파수도와 외파수도 유람코스 개발
 - 셋별해수욕장 : 자동차야영장 활용, 음식 및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

■ 관리운영 주체 역량강화 충남 해수욕장아카데미 운영

- 충남 해수욕장아카데미 운영
 -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번영회 및 운영위원회 등 관리운영 주체 및 사업체 '충남 해수욕장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 추진
 - '충남 해수욕장아카데미'에서 충남의 해수욕장 운영 방침과 운영방향, 친절 서비스 교육 등을 자원봉사자, 음식점, 숙박업소, 안전요원, 물품대여업체 관계자에 대한 교육 실시

4 어촌과 인근 섬 및 도서를 연계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① 어촌 및 도서 등 해양관광자원 현황

■ 어촌체험마을 현황

- 충남의 어촌체험마을은 보령시 2곳(무창포 관당마을, 장고도마을), 서천군 1곳(월하성), 태안군 5곳(영목어촌체험마을, 대야도어촌체험마을, 만대어촌체험마을, 용신어촌체험마을, 병술만어촌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음.

충남도 어촌체험마을

시군명	마을명	위치	선정년도	대표자	참여가구
계	8개소				
보령시 (2)	무창포관당마을	웅천읍 관당리	2006	김지호	297
	장고도마을	오천면 장고도리	2012	편현숙	78
서천군(1)	월하성	서면 월호리	2002	한신교	50
태안군 (5)	영목어촌체험마을	고남면 고남리	2005	신창선	193
	대야도어촌체험마을	안면읍 중장리	2006	김우식	170
	만대어촌체험마을	이원면 내리	2005	김진묵	80
	용신어촌체험마을	근흥면 용신리	2007	이기완	130
	병술만어촌체험마을	안면읍 중장리	2010	이진형	110

자료 : 충청남도, 충남관광기본자료,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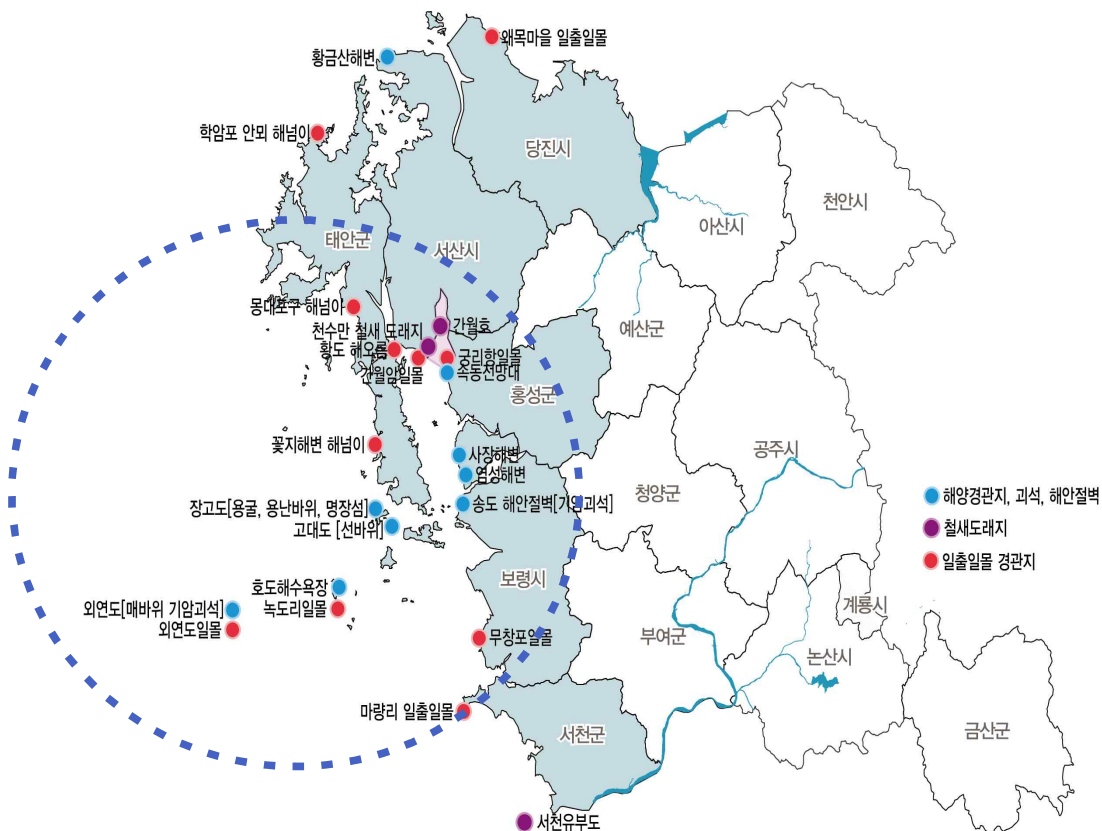
■ 해양관광자원 현황

- 서해안권에 위치한 지역은 수려한 섬들이 군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다수의 해양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음. 특히, 기암괴석등 해안경관지의 경우 보령시의 도서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지역의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일출, 일몰 관광지가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간척된 지역의 특성상 철새도래지도 서산시, 홍성군, 서천군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일몰과 일출 경관지로 충남은 총 12개소가 있으며, 보령시 3개소, 서산시 1개소, 당진시 1개소, 서천군 1개소, 홍성군 2개소, 태안군 4개소가 분포하고 있음.

충남 일출, 일몰 경관지

시군별	명 칭	소 재 지	시설조성여부
	12개소		
보령시	무창포 일몰	웅천읍 관당리(무창포해수욕장)	무
	녹도리 일몰	오천면 녹도리	무
	외연도 일몰	오천면 외연도리	무
서산시	간월암 일몰	부석면 간월도리	무
홍성군	궁리항 일몰	서부면 궁리	유
	속동전망대(경관지)	서부면 궁리	전망대, 임해관광도로
태안군	황도 해오름	안면읍 황도리	무
	학암포 안외 해넘이	원북면 황촌리	무
	몽대포구의 해넘이	남면 몽산리	무
	꽃지해변의 해넘이	안면읍 승언리	무

자료 : 충청남도, 충남관광기본자료, 2014년



■ 해안 및 바닷가, 해산물 관련 축제현황

- 보령시는 보령머드·무창포 신비의 바닷길·보령 천북 굴·오천 키조개· 무창포 대하와 전어·성주산 단풍축제 및 만세보령 문화제 등으로 수준 높은 축제가 연중 개최되고 있음
- 각 지역의 주요 특산품을 이용한 천북 굴 축제와 오천 키조개 축제, 무창포 대하전어 축제 등은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천수만권 주변 축제 현황

시군 별	축제명	지역	개최시기	비고
태안 군 (5)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비정기 4~5월	관광축제
	안면도예술축제	안면도 해수욕장	매년 7월 말~8월 초	관광축제
	안면도 백사장항 대하축제	백사장항	매년 9월 중순	문화축제
	태안군수배전국바다낚시대회	바다낚시 명소화	매년 5월 말	
	자염축제	-	-	
서산 시 (5)	삼길포우럭축제	삼길포항(대산읍)	매년 6월	관광축제
	서산6쪽마늘축제	서산시 전역	매년 6월 중·하순	특산물축 제
	해미읍성문화축제	해미면 읍내리	매년 9월 중순	문화축제
	서산천수만세계철새기행전	부석면 간월도리	매년 10월 말	관광축제
	서산간월도바다음식축제	부석면 간월도리	매년 10월	관광축제
홍성 군 (3)	광천토굴새우젓/재래맛김축 제	광천읍 광천	매년 10월 초순 7일간	특산물축 제
	남당리 대하축제	서부면 남당리	매년 10~11월 중	특산물축 제
	남당리 새조개축제	서부면 남당리	매년 12월	특산물축 제
보령 시 (5)	보령머드축제	대천해수욕장(신흥동)	매년 7월 중순 7일간	관광축제
	신비의 바닷길 축제	무창포해수욕장(웅천읍 관당리)	매년 7~8월 중 2일간	관광축제
	보령 천북 굴 축제	천북굴단지(천북면 장은리)	매년 12월 초 9일간	특산물축 제
	오천 키조개 축제	오천항	5월 초	
	무창포 대하전어 축제	무창포해수욕장(웅천읍 관당리)	9월 말	

주 : 각 시·군별 관광 홈페이지 참조

■ 어업현황

- 서해안 신고어업은 전국의 55.9%이며, 천수만이 서해안 전체의 63% 차지하고 이중 태안군이 천수만의 41.9%를 차지하며, 특히 태안군은 종묘생산의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서해연안의 면허어업은 전국의 32.1%, 면적은 41.1%, 천수만은 서해연안의 22.4%, 면적은 22.8%를 나타내고, 천수만내에서는 태안군이 삼면을 이용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신고 어업 현황

구 분	합계	육상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		맨손,투망 나잡어업	비고
		건수	면적 (ha)	건수	면적 (ha)		
서해안 전체	31,586	413	1,707.3	212	37.0	30,961	
천수만 권역	19,908	80	391.2	86	10.1	19,729	
태안군	8,349	53	169.1	52	5.7	8,244	
서산시	3,388	24	211.8	15	1.4	3,349	
홍성군	1,292	1	0.07	1	0.07	1,290	
보령시	6,866	2	0.53	18	2.4	6,846	

면허 어업 현황


구 분	총계	양식어업					마을 어업	한정 어업
		소계	해조류	어류	패류	복합		
서해안 전체	2,749	2,118	-	-	-	-	134	497
천수만 권역	615	490	54	123	300	13	8	117
태안군	336	259	27	33	196	3	7	70
서산시	113	102	9	19	47	-	-	11
홍성군	30	21	-	17	4	-	-	9
보령시	136	108	8	54	26	10	-	27

■ 생태학습장 갯벌현황

- 전국 갯벌면적은 2,393.0km²이며, 서해안이 1,980km²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이 304.2km²이나 간척사업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
- 천수만 주변의 갯벌은 212.5km²로 경관이 뛰어나고 대부분의 어패류의 산란장이자 해양생태계의 기본을 이루는 곳이어서 천연의 생태학습장을 제공하고, 낙지, 해삼, 굴뱅이, 바지락, 맛살, 맛조개, 개조개 등을 직접 잡을 수 있음
- 갯벌이란 조석의 차이로 인하여 드러나는 “갯가의 넓고 평평하게 생긴 땅”으로 연안습지의 일부분으로, 만조 때에는 물 속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갯벌은 육상과 해양이라는 거대한 두 개의 생태계가 접하여 두 생태계의 완충작용 뿐만 아니라 연안생태계의 모태로서의 역할을 담당

전국 갯벌 현황 및 충남 갯벌 분포도

구 분		면적(km ²)	비율(%)	비 고	주요갯벌상실면적 (약 10년간, km ²)
인천·경기		838.5	35	서해안 : 1,980km ² 남해안 : 413km ²	경기 : 341.0 충남 : 130.0 전북 : 208.0 전남 : 125.0 경남 : 6.5 합계 : 810.0
충남		304.2	13		
	보령시	32.7			
	서산시	67.9			
	서천군	63.3			
	홍성군	9.8			
	태안군	102.1			
	당진군	28.4			
전북		113.6	5		
전남		1,054.1	44		
경남·부산		82.6	3		
합 계		2,393.0	100		



자료 : <http://www.wetland.or.kr/>

태안군의 갯벌체험 사례 현황




구 분	지 역	계 절
해루질하기	방포, 밧개, 바람아래, 꾸지나무골, 몽대	봄 - 가을
맛조개잡기	밧개, 두여, 몽산포, 몽대, 청포대, 샛별	봄 - 가을
굴뱅이잡기	삼봉, 기지포, 밧개, 안면, 두여	봄 - 가을
게, 고동잡기	태안반도, 안면도 어디에서나 가능	4계절

자료 : <http://www.megapass.co.kr/~go2see/playing/main.htm>

■ 천수만 철새도래지 현황

- 천수만(서산 A·B지구)은 1984년 완공된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방조제 공사결과 생긴 담수호이고, 이로 인해 주변에는 과거에 갯벌이던 것이 대단위 농경지 (6,400ha)가 형성되어 월동조류의 새로운 서식지로 부상하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과거에 갯벌을 이용하던 많은 도요류는 급감하는 결과가 되었고, 종 분포와 종다양성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철새의 이동경로에 위치하는 병목지점으로서 다양하고 많은 수의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곳임
- 특히 대규모 영농으로 인한 낙곡과 담수호의 수생식물과 어류, 갈대 등은 새들을 불러모으고 있음

천수만 주변 철새 현황

구 분	내 용	주요사진
천연기념물	흑고니, 큰고니, 개리, 흑기러기, 원앙, 소쩍새, 큰소쩍새, 솔부엉이, 쇠부엉이, 쇠부엉이, 재두루미, 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 흰고리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새매, 참매, 붉은발새매, 황조롱이, 매,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먹황새, 황새	
멸종위기종	노랑부리백로, 황새, 흰꼬리수리,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흑고니, 참수리, 검독수리, 매, 두루미, 큰고니, 개리, 큰기러기, 가창오리, 재두루미, 흑두루미, 뜸부기, 알락고리마도요, 검은머리물떼새, 흰목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물수리, 벌매, 솔개, 개구리매, 알락개구리매, 잿빛개구리매, 참매, 조롱이, 말뚝가리, 큰말뚝가리, 털발말뚝가리, 향라머리검독수리, 흰죽지수리, 비둘기조롱이, 쇠황조롱이, 새홀리기, 큰덤불해오라기, 알락해오라기, 아비, 뿔종다리	 

자료 : <http://www.seosanbird.com/sub2-2.html>

천수만 주변 탐조관광개발 현황

명 칭	사업기간 (년)	사업면적 (㎡)	사업비 (억)	주요시설
서산 생태관광 인프라구축	2003-2011 (9년)	244,197	253	천수만 생태공원화, 특수영상관 설치, 생태체험 시범지역조성사업, 철새학습관, 특수영상관(4D), 동물구조관리센터, 야외공연장, 주차장, 진입도로, 전망대, 산책로 및 탐방로 등
서산천수만 철새기행전	매년	-	-	새탐조기행, 생태체험관 및 장터마당 운영, 기타 부대행사 등

자료 : <http://www.seosanbird.com/sub2-2.html>

■ 해안 및 도서현황

- 충남의 해안선은 1,087.19km으로 육지부 731.63km, 도서부 346.36km이며, 도서는 271개로 유인도가 32개, 무인도가 23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 태안군이 119개로 가장 많은 도서가 분포하고, 충남의 도서에는 총 17,23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충청남도 전체 인구의 0.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도서 인구는 태안군이 13,051명으로 충남 도서 인구의 75.7% 수준이며, 태안군 전체 인구의 20.1%로 나타났다.

해안선 및 도서(2012년 기준)

구 분	해안선(km)			도 서 현 황 (개)			면적 (km ²)	인구(명)
		육지부	도서부	계	유인도	무인도		
충 남	1,137.99	791.63	346.36	270	34	236	162.81	17,234
보령시	251.92	79.95	171.97	91	16	75	21.06	3,266
아산시	7.96	7.96	-	-	-	-	-	-
서산시	143.27	115.07	28.20	27	4	23	4.07	359
당진시	96.42	65.90	30.52	8	5	3	8.06	369
서천군	84.68	70.91	13.77	14	1	13	1.03	121
홍성군	22.94	16	7	11	1	10	0	68
태안군	530.80	435.6	95.2	119	7	112	128.43	13,051

자료 : 충청남도(2012), 충남통계연보

- 2007년 이후 충남의 도서인구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라는 것임. 2005년 기준 충남의 도서인구는 15,256명에서 2012년 17,234명으로 연평균 1.7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태안군이 연평균 3.02%씩 증가하여 전체 도서인구가 증가함.

도서 인구 추이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 인구	연평균 증가율
충남계	15,256	16,094	15,204	15,350	15,328	16,836	17,715	17,234	1,978	1.76%
보령시	3,692	3,661	3,675	3,612	3,574	3,417	3,352	3,266	-426	-1.74%
서산시	326	618	354	376	392	392	373	359	33	1.39%
당진군	411	363	363	363	368	368	368	369	-42	-1.53%
서천군	136	136	128	128	135	128	121	121	-15	-1.66%
홍성군	95	95	88	83	71	69	68	68	-27	-4.66%
태안군	10,596	11,221	10,596	10,788	10,788	12,462	13,433	13,051	2,455	3.02%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각년도

■ 도서별 여객선 운항현황

- 충남 도서를 방문한 관광객은 376,007명으로 전체 섬 관광객의 3.0%를 차지하고 있음.

- 가장 긴 항로는 대천-외연도 항로로 25.5마일로 시간은 2시간 10분이 소요되는 항로이며, 가장 짧은 항로는 도비도-대난지도 항로로 2.9마일로 시간은 30분 소요됨.
- 차도선은 대천-영목 항로, 대천-장고도 항로, 도비도-대난지도 항로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가장 많은 기항지가 운항하는 항로는 대천-장고도 항로로 대천-삼시도-장고도-고대도-영목-원산도(선촌,저두)-대천을 운항하고 있음.
- 고속선이 운항하고 있는 항로는 대천-외연도 항로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가장 큰 톤수는 대천-장고도를 운항하는 344G/T 350명 정원의 신한고속훼리임.

충남 항로별 취항선박 현황

번호	항로명 (항로구분)	선명 (선사명)	선종 (속력)	총톤수 (정원)	항로거리 (운항시간)	기항지
1	대천-영목 (일반)	원산고속훼리 ((주)신한해운)	차도선 (15노트)	276G/T (250명)	6.6마일 (00:40)	대천-저두-효자도-선촌-영목
2	대천-외연도 (일반)	웨스트프론티어 ((주)신한해운)	고속선 (15노트)	140G/T (215명)	25.5마일 (02:10)	대천-호도-녹도-외연도
	(일반)	에버그린 ((주)신한해운)	고속선 (19.8노트)	100G/T (151명)	25.5마일 (01:35)	
3	대천-장고도 (일반)	신한고속훼리 ((주)신한해운)	차도선 (15노트)	344G/T (350명)	12.2마일 (01:20)	대천-삼시도-장고도-고대도-영목-원산도(선촌,저두)-대천
4	도비도-대난지도(일반)	106청룡비너스 ((주)청룡해운관광)	일반선 (10노트)	98G/T (250명)	2.9마일 (00:30)	도비도-소난지도-대난지도
		대형카훼리2 ((주)청룡해운관광)	차도선 (10노트)	76G/T (74명)		
5	구도-고파도 (보조)	성주산 ((주)신한해운)	일반선 (13.5노트)	53G/T (50명)	7.5마일 (00:50)	
6	안흥신항-가의도(보조)	백화산 ((주)신한해운)	일반선 (13노트)	52G/T (50명)	4마일 (00:25)	
7	오천-초전 (보조)	오천카훼리 ((주)신한해운)	일반선 (13.5노트)	89G/T (90명)	10.8마일 (01:10)	오천-월도-육도-허육도-추도-소도-영목-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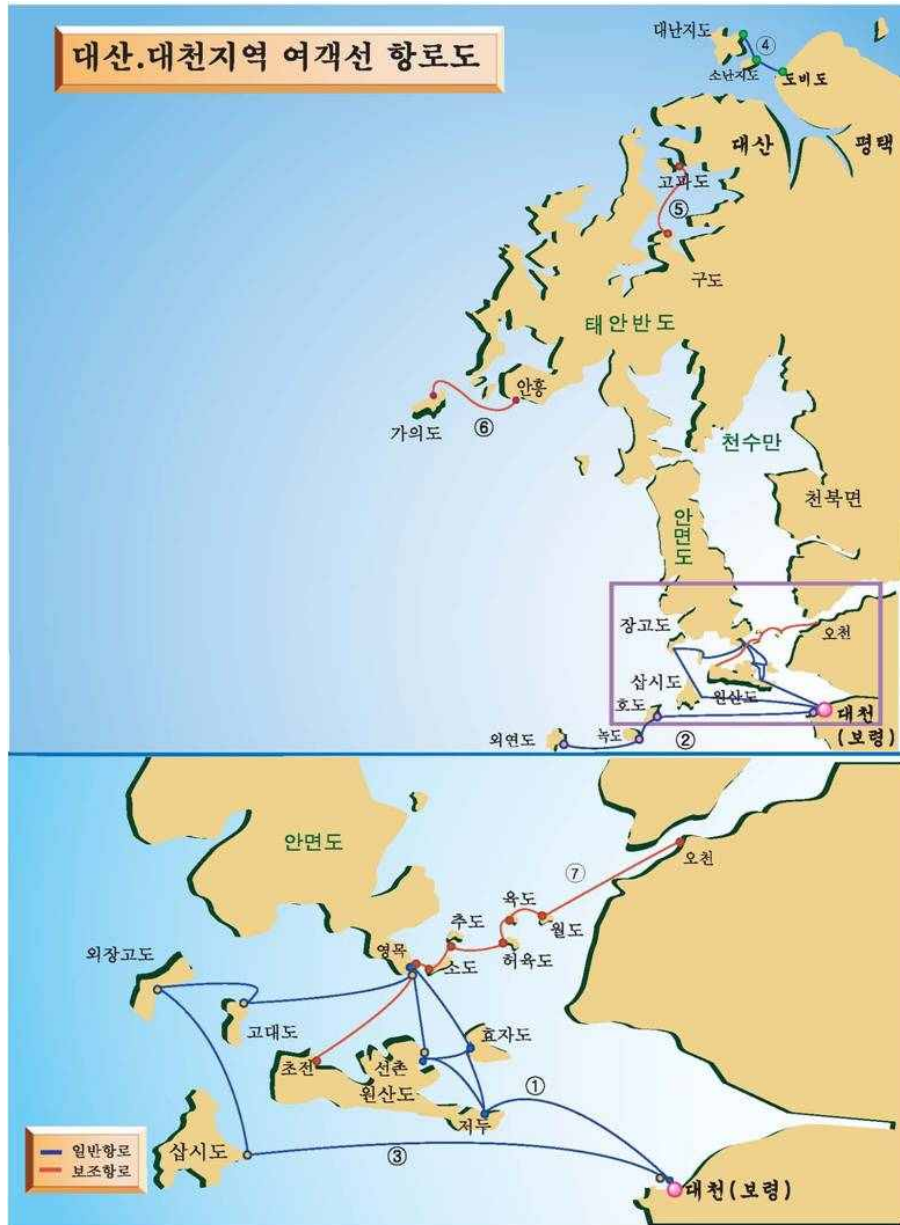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운조합,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 2013.

- 연안여객선 이용객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이용객수와 비교하여 도서민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충남 연안여객선 이용객수는 일반인 70%, 도서민 30%의 이용률을 보이는데 비해 전국 이용객수는 각각 78%, 22%의 이용률을 보임

충남 항로별 수송객 현황

(단위 : 명, %)

항로명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합 계			546,045	455,227	569,597	549,347	588,136
일 반	대천-영목	소 계	234,143	190,878	187,635	186,290	199,190
		일 반	160,678	120,914	118,096	119,384	128,569
		도서민	73,465	69,964	69,539	66,906	70,621
	대천-외연	소 계	67,747	56,993	64,947	61,658	68,133
		일 반	48,674	40,119	47,245	45,148	50,857
		도서민	19,073	16,874	17,702	16,510	17,276
	대천-장고도	소 계	194,216	160,579	166,523	167,814	183,416
		일 반	144,451	113,246	119,263	121,269	135,516
		도서민	49,765	47,333	47,260	46,545	47,900
	도비도-대난 지도	소 계	-	-	102,437	86,239	84,619
		일 반	-	-	85,926	67,971	67,856
		도서민	-	-	16,511	18,268	16,763
낙 도 보 조 항 로	구도-고파도	소 계	14,798	13,636	13,303	11,828	11,745
		일 반	7,947	6,486	6,219	5,233	5,556
		도서민	6,851	7,150	7,084	6,595	6,189
	안흥신항-가 의도	소 계	16,399	14,252	16,404	16,987	21,422
		일 반	11,351	8,176	9,608	8,624	13,234
		도서민	5,048	6,076	6,796	8,363	8,188
	오천-초전	소 계	18,742	18,889	18,348	18,531	19,611
		일 반	8,036	8,734	8,144	8,378	9,315
		도서민	10,706	10,155	10,204	10,153	10,296



대산, 대천지역 여객선 항로도

② 어촌 및 도서 관광활성화의 과제

■ 어촌 생활환경 및 관광기반시설 여건의 개선 요구

- 천수만 주변의 어촌과 어항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촌의 생활환경과 경관개선, 어촌체험마을의 확대와 해안테마마을 조성 등 관광기반 시설의 여건개선이 요구됨

■ 어촌 역사와 생태, 해양 등이 테마 체험관광의 발굴 및 육성 추진

- 서해안과 천수만 해안은 어촌 역사문화와 생태 및 해양자원 등이 풍부하기

입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테마로 하는 체험관광을 발굴하여 육성해야함.

■ 해안 전통음식과 해산물 요리의 관광상품화와 활성화

- 서해안 지역의 토속적인 전통음식과 해산물을 재료로 하는 다양한 요리가 보령, 서산, 홍성, 태안 지역의 해안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먹거리 관광상품을 활성화 해야함.

■ 양호한 도서 입지 및 자원 특성별 해양관광자원화 추진

- 보령과 태안에는 원산도를 비롯한 삼시도, 호도, 녹도, 외연도, 장고도 등의 도서뿐만 아니라 유무인도의 특정도서들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입지 및 섬의 자원 특성에 따른 해양관광자원화를 추진해야함

■ 무인도서와 자연생태를 활용한 야생체험관광 코스와 상품 개발

- 특히, 무인도서와 해안의 갯벌과 철새도래지 등에는 자연 상태의 동식물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야생체험관광코스과 상품을 개발해야함.

■ 연안 입지 소규모 섬과 해안의 특이자원의 관광명소화 추진

- 해안에는 인접하여 소규모의 섬들과 어촌, 등대 등의 특이자원들이 입지하고 있으므로 해양문화공간과 관광명소화를 추진해야함

③ 관련 계획의 검토

■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에서는 생활속 이야기가 있는 정겨운 바다관광을 주제로 어촌의 관광자원화, 테마가 있는 연안조성, 섬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테마로 ‘어촌체험마을 확대조성’, ‘어촌관광 서비스 품질 제고’, ‘어촌경관개선 사업 추진’ 등의 다양한 사업들이 있음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어촌과 섬 관련 연계 사업

주제	테마	항목	세부추진과제	비고
생활 속 이야기 가 있는 정겨운 바다관 광	어촌의 관광자원 화	어촌체험마을 확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체험마을 시설 확충 • 어촌관광 포럼 개최 • 멘토링제 운영 	높음
		어촌관광 서비스 품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 관광 콘텐츠 확충 • 어항내 친수시설, 낚시공원 등 시설 확충 • 바다해설사 육성 	높음

주제	테마	항목	세부추진과제	비고
		어촌경관개선 사업 추진	• 마을색채정비, 어항정비, 컨설팅 등	보통
		수산물 먹거리 관광의 활성화	• 수산물 먹거리 축제 선정 및 홍보 지원	높음
	테마가 있는 연안 조성	해안테마마을 조성	• 지역별·테마유형별 시범사업 추진	높음
		등대를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	• 테마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보통
		해양디자인 대전 개최	• 해양디자인 대전 개최 계획 수립	-
	섬관광 활성화	섬관광 기반 정비	• 도서별 특화 시범사업 실시 • 성공적 섬개발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제공	높음
		연안해상교통 여건 개선을 통한 섬관광 접근성 제고	• 여객선 현대화 추진 • 인터넷·모바일 승선권예매시스템 개선 • 해상교통 인프라 개선계획 수립·시행	보통
		환경친화적인 무인도서 이용·개발을 통한 관광·휴양지 조성	• 제도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	-
		무인도서 현황도 및 GIS 기반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 현황도 및 시스템 개발	-

■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에서는 살기 좋고 풍요로운 어촌·아름다운 어항 분야 추진과제로 살기 좋은 어촌어항 조성과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공간을 육성 등의 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에서는 바다와 교류하는 해양레저·관광 분야 추진과제로 충남 고유의 해양문화 창달과 도서의 관광자원화 등의 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의 어촌과 섬 관련 연계 사업

추진 분야	과제명	추진부서	주요 내용
살기좋은 어촌·어항 조성	유형별 어항 기반시설 개선	수산과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 어항 등 총 61개 어항을 대상으로 다기능, 관광산업형, 에너지자립형 등의 어항별 개발 및 재정비 실시
	어촌 정주여건 개선	수산과	도로, 급수, 도전건조 등 생활기반시설, 관광기반, 어항개발 등 생산기반시설, 다목적회관, 대합실 등 문화복지시설

			설, 하수도,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위생시설, 하천정비 등 생활안전시설 조성 등
	도서지역 해양운송체계 개선	해운항만 과	정기여객선 운항 노선 신설, 거점형 수상택시 운항 지원 등
	어구·어선 장비 현대화	수산과	어망 수선 작업장 마련, 어선 수리센터 운영, 어선장비 현대화 지원, 어선어업 안전장비 보급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공간 으로 육성	복합형 다기능항 개발	수산과	어업 기능을 기반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물류 유통, 관광·레저, 휴양공간, 문화 복지 등 정주생활 거점으로서의 어항 조성
	어촌 6차산업화	수산과	어촌지역의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어촌주민 주도의 특화계획에 따라 1차(생산)·2차(가공)·3차(서비스) 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어촌문화 개선을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	수산과	어촌계 예술마을화 공모전 및 수상작 활용 마을경관 개선, 배후마을 이용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어촌체험마을 추가 지정 등
	어업 종합정보시스 템 구축	수산과	실시간 날씨, 위판·조업 정보 등 스마트/빅데이터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충남 고유의 해양문화 창달	충남 해양관광브랜 드 구축	해양정책 과	해양관광·수산물 브랜드체계 구축, 충청남도 관광안내소 확충(서울, 대산항), 외부인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캠페인 실시
	지역 대표 해양문화 축제 육성	관광산업 과	해양문화 축제 육성을 위한 장기로드맵 수립, 해양축제 컨설팅 제도 도입, 전국 시민예술가·단체 연결체계 구축 및 지원
	희망 서해안 한마당 축제	서해안유 류 사고지원 과	피해주민,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축제 정례화, 세계적인 수준의 해양환경·재해재난 포럼 육성
도서의 관광 자원화	유형별 도서관광지 개발	해운항만 과	생태체험·감상형 도서(유부도, 난도), 종합레저형 도서(대난지도), 역사·문화관광형 도서(호도, 격렬비열도), 경관감상형 도서(외연도 등) 개발 추진
	무인도 생태여행코스 개발	해운항만 과	무인도 순환 유람선 개설(태안군, 보령시 일원)
	연안 관광지 연계형 소도서 개발	해운항만 과	대조도, 외도, 다보도, 직연도 해양레저 아이템 발굴 및 안전시설 확충

■ 기타 관련 계획

- 해양수산부 「2015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2008~2017) 변경 계획」,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육성지원 5개년 계획」 등

④ 어촌 및 도서 관광활성화 방안

■ 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및 체험관광상품 개발

◎ 여건 및 사업추진 상황

- 충남의 어촌계는 총 162개소, 14,703명으로 전국 1,993개소 중 8.1%를 차지
 - 보령 30, 서천 8, 서산 48, 당진 8, 서천서부 10, 대천서부 3, 태안남부 12, 안면도 43 개소 등
 - 보령, 서산, 서천, 당진, 안면도, 서천서부, 대천서부, 태안남부 등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8개소로 전국 94개소 중 8.5%를 차지
-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107개소로 전국 1,086개소의 9.8%를 차지
-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2008~2017) 변경 계획 수립(2015년)
 - 낙후된 도서 25개소를 대상 중점 개발 실시(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간 총사업비 594억원 투자)
- 공동작업장, 어업용 창고, 냉동냉장시설, 어장관리선 등 공동체 소득증대를 위한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지원
- 2013년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귀어 여건 홍보 및 귀어준비를 위한 교육, 귀어 현장체험을 실시
- 해양수산부 '2015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에 보령시가 선정, 2017년까지 3년간 6억원을 지원받아 귀어·귀촌 지원 시스템 체계화 및 지원방안 추진

천수만권 어항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현황

시군	자율관리공동체 참여유형							참여 인원	지원내역	
	계	마을	복합	어선	양식	마을·양식	내수면		개소	지원액 (백만원)
계	81	40	19	10	1	11	0	7,933	48	15,551
보령	18	8	3	6		1		1,886	9	3,320
서산	9	5	1	1	1	1		444	2	150
홍성	4	2	2					326		
태안	50	25	13	3		9		3,673	25	10,110

◎ 기존 사업추진내용

-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 도로, 급수, 도선건조 등 생활기반시설, 관광기반, 어항개발 등 생산기반시설,

다목적회관, 대합실 등 문화복지시설, 하수도, 우수처리시설 등 환경위생시설,
하천정비 등 생활안전시설 조성 등

○ 유류피해지역 주민 대상 복지시설 지원

- 어업인 편의 다목적회관 신축 : 신리어촌계 어업인회관조성 등
- 식사·숙박 등 어업인 복지시설 신축 : 어업인복지시설 신축(안흥외항) 등
- 어업인 편의 다목적회관 신축 : 어업인회관건립(모항3리) 등
- 나잠어업인 편의시설 신축 : 해녀휴게실 조성 등

○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육성

- 공동작업장, 어업용 창고, 냉동냉장시설, 어장관리선 등 지원
- 유통기반정비 및 경영 프로그램 등 지원 등 어업공동체의 규모화 및 기업화
(예, 영어조합 활성화)

○ 귀어 종합지원센터, 현장애로지원단, 어촌정착과정 귀어대학 등 운영

- 교육, 주택, 영어체험, 금융지원(창업자금), 멘토 및 컨설팅 등
- 귀어인 D/B 구축으로 귀어 후 중도 포기 등 사후관리 대책 추진
- 어선, 복합, 마을·양식, 내수면 등 정착어업의 기술교육 실시
- 어업 기초이론(어선, 증·양식)과 실습(어촌체험마을운영) 등 귀어초기 필요한 내용 교육

◎ 어촌문화체험관광 상품 개발과 활성화

○ 특색 있는 어촌문화관광체험 상품 개발

-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갯벌체험 공간의 확대를 통한 다양한 상품 제공
- 안강망 체험과 같은 지역의 고유 전통 어획 활동 등을 어촌체험 상품으로 개발

○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자원(성곽, 절터, 유적지 등)을 복원하여 연계 관광상품화

○ 어촌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다양한 체험요소, 생동감 있는 생산현장 등 많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 관광시설투자를 최소화하면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마케팅 지향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생산 및 생활기반시설을 다기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은 방문객이 보고, 듣고, 참가하는 생활체험과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충실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함

- 방문객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즐길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실질소득이 귀속될 수 있도록 개발방식을 다양화함
 - 방문객의 위생과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기반 시설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친절서비스 향상으로 재방문을 유도하며,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로 지역공동체의 연대 강화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

◎ 어촌 향토음식의 상품화 및 전문화

- 어촌은 수산자원인 해산물을 직접 어획하고 채취하는 어업을 생업으로 하므로 해산물을 주재료로 하는 향토음식(생선요리)을 개발함
 - 새로운 음식개발과 향토 음식의 상품화를 위한 요리경진대회 개최 및 지원
- 어촌은 생선의 신선도가 좋으며, 바다에서 직접 잡은 수산물로 그 지역에서 대표적인 향토음식 메뉴를 개발하여 판매할 경우에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임
 - 생선요리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식도락을 즐기기 위해서 어촌과 어항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러한 식도락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어촌 향토음식점의 경영주체는 어촌 주민들이 개인 사업으로 운영하거나 지역어촌계와 같은 단위조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도입
 - 또한 바다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수산물판매점 혹은 전문수족관을 운영하여 신선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도 어촌관광의 활성화와 어민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

■ 유형별 어항 기반시설 개선 및 관광미항 조성

◎ 여건 및 사업추진 상황

- 어촌·어항의 생활, 생산, 문화복지, 환경위생, 생활 안전 등 기반시설 낙후 및 노후화
- 충남의 어항수는 2014년 기준 61개소로 국가항 8개소, 지방항 29개소, 어촌정주 24개소가 위치

충청남도 어항 현황

지역	어항(개소)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 어항
합계	61	8	29	24
보령시	14	오천항, 외연도	무창포, 녹도, 호도, 고대도, 삼시도, 장고도, 효자도, 원산도	죽도, 학성, 열호, 오봉산
서산시	8	삼길포	간월도, 구도	웅도, 호리, 고파도, 도성, 우도
서천군	4	홍원항	송석, 월하성, 다사	
홍성군	3	남당항	어사, 궁리	
태안군	28	안흥항, 모항항	백사장, 몽산포, 학암포, 천리포, 만리포, 여은돌, 가의도, 채석포, 방포, 영목, 마검포, 통개, 만대	황도, 황포, 대야도, 정산포, 탄개포, 개목, 연포, 의점포, 가경주, 고남, 당암, 청산, 황골
당진시	4	장고항	난지도	왜목, 도비도

- 어항시설 보수 보강을 위한 설계 실시(3억원)
 - 실시설계, 실시설계 측량, 환경영향평가 등(예, 백사장항)
- 어항건설을 위한 사후 환경조사 실시(6억원)

◎ 기존 사업추진내용

- 어항 설계 및 건설
 - 도로, 급수, 도선건조 등 생활기반시설, 관광기반, 어항개발 등 생산기반시설
 - 부잔교,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안전시설 설계 및 설치

충남 어항 건설 계획

위 치		사 업 량	비고
보령	고대도	북방파제, 물양장	계속
		남방파제	계속
	장고도	물양장, 선착장	계속
서산	구 도	물양장, 선착장	계속
서천	다 사	방파제	계속
태안	백사장	방파제, 호안	신규
	학암포	방파제, 물양장	신규
	가의도	방파제, 물양장	신규
	방 포	방파제, 물양장	신규
	만 대	선착장	신규
소 계	4개 시·군, 9개항		

○ 어항 보수·보강

- 어항시설이 미흡한 소규모 항포구의 기28시설 보수·보강
- 어업기반시설 확충(부잔교 등)으로 어선의 안전정박 어획물 양육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 어항 등 총 61개 어항을 대상으로 다기능, 관광산업형, 에너지자립형 등의 어항별 개발 및 재정비 실시

※ 어항 관리 및 개발 방향은 국가계획 및 추가 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충남 어항 보수·보강 계획

위 치		사 업 량	비고
보령	무창포	부잔교	신규
	효자도	선착장	신규
	장고도	선착장	신규
서천	월하성	물양장	신규
태안	천리포	물양장, 부잔교	신규
	만리포	방파제, 선착장	신규
	여은돌	선양장, 부잔교	계속
	채석포	선착장, 부잔교	신규
	영 목	물양장, 부잔교	계속
소 계	3개 시·군, 9개항		

충남 어항 관리 및 개발 계획(안)

분류	추진방향	개소	어항	비고
다기능	국가 다기능 어항	3	남당, 장고, 삼길포	서해안 비전
	국가 다기능 어항 추진	3	홍원, 안흥, 오천	
국가 계획	에너지 산업지원항	2	태안, 보령	제3차 전국 항만기본 계획(2011-2020)
	석유화학지원항만	1	대산	
	수도권 및 중부권 물류 거점항	1	당진	
	관광·어항 중심항	1	대천	
	지역생활 지원항	1	장항	
	복합다기능 항만(정주+관광)	1	비인	
마리나 항	마리나항 개발	7	홍원, 창리, 왜목, 안흥, 무창포, 장고항, 원산도	베1차(2010-2019) 마린 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1	왜목	해양수산부 선정
	어촌 마리나역 대상지	2	남당, 삼길포	해양수산부 선정
	마리나항만 후보지	11	오천, 석문, 대산, 궁리, 마검포, 갈음이, 부 남호, 라암도, 간월도, 남당, 모항	충남 마리나항만 개 발 종합계획
유류피 해 지역 재정비	무인도	1	구도	해양수산부 관 위크샷
	유인도	1	외연도	해양수산부 관 위크샷
관광산 업형	어촌마을	2	월하성, 대야도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해양수산부관 위크샷
	권역형 관광	6	(왜목(해저레저타운)), 난지도, (무창포(해수 욕장)), 호도, 간월도(간월호 지구), 만리포 (해수욕장)	
	바다낚시	1	어사	
	해양관광 거점	1	영목	
	해중레저	1	도비도	
	원산도 연계	7	녹도, 호도, 고대도, 삼시도, 장고도, 효자도, (원산도)	
에너지 자립형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및 운영	2	가의도, 고파도	
어항 재정비 및 개선	어항 재정비 및 기능시설, 편익시설 설치	3	모항,(안흥항), (비인), 다사	
	어항 보수보강	21	(무창포), 효자도, (장고도), (월하성), 천리 포, 만리포, 여은돌, 채석포, 영목	해양수산부 관 위크샷
	소규모 어항 정비		죽도(홍성), 오봉산, 장은, 한진, 성구미, 만 수동, 황도, 가경주, 안장곶, 황골, 죽도, 속동	
	장기 어항 보수보강[미지정 어항]	16	송석, 학암, 통개, 만대, 도성, 우도, 정산포, 탄 개포, 개목, 연포, 의점포, 고남, 당암, 청산, 학 성, 열호	

※ 일부 어항의 경우 2개 이상의 방향으로 개발 및 재정비 실시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방향 변경 예정

■ 유형별 도서관광지 개발과 특정도서 보존관리로 관광자원화

◎ 여건 및 사업추진 상황

- 도서지역은 내륙과는 색다른 환경을 제공해주어 관광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님
 - 탁 트인 경관과 함께 도서지역 주민들이 자아내는 이색적인 환경은 점차 다양해지는 최근의 수요를 감안하였을 때,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
 - 충청남도는 2014년 기준 268개 도서를 보유하고 있어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도서들이 풍부
- 충청남도에서는 도서들을 관광자원으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수행 중에 있음
 - 일부 육지와 근접한 유인도서들은 연육교 건설을 통해 접근성을 크게 높였으며, 기타 도서들을 저마다의 특색을 바탕으로 차별화 시도
- 충청남도는 2014년 「충청남도 도서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6개 주요도서 개발·이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
- 도서 및 주변 해역은 생물학적, 환경학적, 생태학적, 해양자원 및 관광학적 가치가 매우 높고, 도서마다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어 생태계의 박물관이자 생태축으로서의 보존가치가 매우 큼
- 그러나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 도서 및 주변해역은 아직까지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유인도서의 경우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
- 2007년부터 해수부에서 무인도서에 대한 연차적 실태조사 중
 - 현재 235개 무인도서 중, 실태조사를 통해 168개소에 대한 관리유형 지정(절대보전 13, 준보전 37, 이용가능 103, 개발가능 15)
- 2014년 충청남도 도서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준공
 -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2018~2027)에 선제적 대응
- 2014년 ‘찾아가고 싶은 섬’ 등 생태관광기반 구축 9개 사업, 57억원 투입

◎ 기존 사업추진내용

- 생태체험·경관감상형 도서
 - 유부도 : 철새탐조시설, 생태탐방로 조성, 철새 생태교육자원 개발·확충
 - 난도 : 생태탐방로 조성
 - 외연도: 망재산 등반로 정비, 전횡장군 사당 정비 및 스토리텔링 자원화

○ 역사·문화관광형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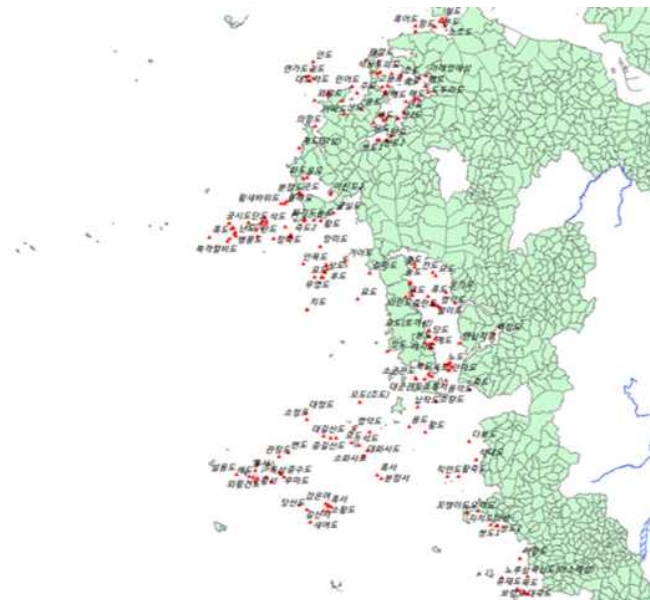
- 호도 : 생태탐방로 조성, 예술마을 조성(어촌분야 별도과제 추진)
- 격렬비열도 : 유인등대 설치, 전망대 조성

○ 종합레저형 도서

- 대난지도 : 해안산책로 조성 및 등산로 정비, 절터 및 유적지 복원, 바지락 채취·독살 체험장 조성, 해중레저 시설 조성(별도 과제), 바다낚시공원 조성(별도 과제)

○ 무인도서 관리유형별(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균형 잡힌 보전과 이용·개발 추진

- 관리유형 중 개발가능 15개소를 중심으로 정밀 실태 조사를 통한 개발여건, 인근 육지 및 유인도서와의 연계 개발(2015년)
- 일부 도서를 선정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업모델 발굴(2016년/국비)



충남 도서지역 현황

○ 제2차 특정도서기본계획에 따라 특정도서를 대상으로 물리환경, 생태계 변화, 토지이용 등 11개 항목을 연 1회 이상의 모니터링 실시

- 제2차 특정도서기본계획 중 충남의 특정도서수¹¹⁾는 전국 219개 중 보령 12, 서산 3, 태안 4개 등 19개로 지정됨

11) 도서지역 생태계보전법 제2조 제1호 :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것으로써 자연생태계, 지형·지질 등이 우수하여, 보호 필요성이 높은 도서

충청남도 특정도서 지정 현황

지정 번호	도서명	지 정 사 유	면적 (㎡)	지 번	지정년 도
48	나 무 섬 (상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멸종위기 동물 노랑부리백로 집단서식지 백로(쇠백로, 중백로, 중대백로), 왜가리, 해오라기 집단서식지 	8,331	충남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산1	2002.5.1
49	납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멸종위기동물 검은머리물떼새 서식 다양한 해안무척추동물종 출현 	11,306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삼시도리 산45	2002.5.1
50	대길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칼새집단서식지 및 멸종위기 동물 매서식지 회귀해조류 분홍염주마디풀 서식 및 다양한 식물, 해조류 분포 	60,595	충남 보령시오천면 녹도리 산12	2002.5.1
51	대청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귀조류인 큰밀화부리 서식, 흑로 및 중백로 서식 가마우지 집단 서식지 	286,017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451	2002.5.1
52	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록활엽수림(동백나무, 참식나무군락) 발달 멸종위기 동물구렁이 및 천연기념물 물새매 서식 	301,690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457, 산462, 231, 389, 399~405	2002.5.1
53	주 도 (기름암포 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멸종위기동물 검은머리물떼새 및 칼새 서식지 저어새·노랑부리백로(멸종위기동물) 서식 	20,763	충남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산3, 산30	2002.5.1
54	횡 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수려 상록활엽수림(100년생동백나무) 발달 보호야생동물 팔색조 서식지 	514,835	충남 보령시오 천면 외연도리 360, 406~459, 산463,산482, 산521, 산522	2002.5.1
122	흑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야생동물 검은머리물떼새 서식 곰솔, 피나무식생 우수 회귀종 높은등열길게 서식 	74,886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산98,산 98-1	2002.8.8 3차
123	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곰솔, 소나무 군락식생 양호 시스택, 타포니, 해식동 발달 자연경관 우수 	23,405	충남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산 199	2002.8.8 3차
124	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년이상된 소나무 군락 분포 해양무척추동물의 다양성 풍부 	15,273	충남 서산시 부석면 창리산 64	2002.8.8 3차
125	북격렬비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멸종위기 야생동물 매번식 주상절리, 해식동, 시스택 등 발달 보전가치가 높은 상록수림 분포 검은따개비 집단 서식 	31,736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27	2002.8.8 3차
126	곶도 (화창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곰솔군락식생 우수 해식동, 시스택, 석영질암맥 등 발달 	104,528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산 126,1394	2002.8.8 3차
127	묘도 (토끼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야생식물 고란초 서식 소나무군락 식생양호 타포니, 해식동 발달 	3,967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산 37,산38	2002.8.8 3차
128	솔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나무식생양호 자연경관 수려 타포니, 파식대, 해식에 발달 	10,810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산 102	2002.8.8 3차
165	외 횡 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식에 등 독특하고 수려한 경관 다양한식물종과 동백나무, 참식나무군락 등 상록수림 분포 	22,307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542	2009.6.11 8차
166	무명도 (불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상절리, 해식에 등 독특한 해양경관 멸종위기종 1급 매서식 다양한 해안무척추동물의 서식환경 제공 	18,000	(지번미부여) 동경126°06' 18.8" 북위36°13' 06.2"	2009.6.11 8차
167	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식에, 해식동 등 수려한경관 후박나무, 동백나무 군락 분포 멸종위기종1급 매서식 	24,366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541	2009.6.11 8차
168	오도 (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팽나무군락 등 식생이 안정적으로 발달 전형적인 해안도서 식생의 총상 구조 멸종위기종 2급 검은머리물떼새 등 다양한 조류 번식지 	13,575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삼시도리 산116	2009.6.11 8차
169	석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전상태가 양호한 동백나무 군락 분포 회귀종 갈조류뽕부기 서식 	6,685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543	2009.6.11 8차

- 도서 생물자원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59개 사업, 2015~2020년 186억원)
 - (기초환경시설) 하수처리시설, 해양쓰레기처리, 마을환경정비 등
 - (생물자원보전) 서식지 조성, 모래유실방지, 자연생태공간조성 등
 - (생태관광기반) 해안탐방로, 어촌특화체험마을, 방문자센터 설치 등

■ 무인도 생태여행코스 개발

◎ 여건 및 사업추진 상황

- 관광객들은 도심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이색적인 경관을 보길 원하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영역에 대한 호기심을 보유
 - 최근의 관광 트렌드에 비추어볼 때, 관광객들은 여가활동에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다양한 경험, 능동적인 체험 등의 가치들을 더욱 선호
 - 무인도서 관광은 일상에서 쉽게 관찰할 수 없는 경관과 경험들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새로운 소재가 될 수 있음
- 충청남도에는 2015년 기준 235개의 무인도서들이 있으며, 이들 중에는 경관이 우수하고, 생태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닌 도서들이 많음
 - 일몰의 풍광, 철새 관찰, 독특한 식생 등 다양한 생태적 요소들을 하나의 코스로 묶고, 여기에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제공한다면 이색적 경험과 함께 문화적 체험이 결합된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발전이 가능
 - 다만, 무인도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길로부터 무인도서들의 본래 생태환경이 지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제도적 장치는 사전에 마련되어야 함
- 한편, 최근 우리나라 전통선박에 대한 복원연구가 크게 발전함에 따라 복원된 전통선박을 교육, 체험프로그램에 활용한 사례가 증가
 - 전통선박의 활용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적이고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

◎ 기존 사업추진 및 계획내용

- 전통선박 유람선 건조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관광형 전통선박 유람선 설계 및 건조(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의 MOU 체결 추진)
 - 서천 해양생태마을 또는 서해수중유물보관동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서해

수중유물보관동은 2017년 본공사 예정)



출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www.seamuse.go.kr)

전통선박 복원 사례와 활용

○ 생태여행코스 개발(안)

무인도서 생태여행코스(안)

코스명	구성(안)
안흥~격렬비열도	안흥항~정족도~가의도~옹도~난도~격렬비열도~안흥항
대천~외연열도	대천항~삼시도~호도~대길산도~외연열도~대천항
태안~보령	안흥항~정족도~나치도~내파수도~외파수도~원산도~대천항

■ 연안 관광지 연계형 소도시 개발

◎ 여건 및 사업추진 상황

- 섬은 육지와는 다른 특별한 경험을 줄 수 있는 공간이지만 접근성 문제는 섬 관광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임
 - 소규모 도서 위주인 충청남도 도서 특성 상 차량이동과 정기적 항로운항 여건이 어려워므로 해당 도서에 적합한 교통수단 보급이 필요
 - 특히 관광레저 발전을 위해서는 도서와 내륙 간 연결편의성의 수준이 관광 매력도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개선이 시급
- 충청남도의 여러 섬들 중에는 연안과 가까운 도서들이 다수 존재
 - 이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이색적인 관광자원화가 가능
 - 일부 관광객들이 연안과 가까운 도서들을 무분별하게 이용함에 따라 환경이 훼손되는 문제도 존재하므로, 오히려 적절한 관리와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는

것 또한 필요한 정책임

◎ 기존 사업추진 및 계획내용

- 외도(셋별해변 연계)
 - 카약코스 활성화, 캠핑 장비 대여 등
- 다보도(대천 해수욕장 연계)
 - 커플 카약, 요트 계류거점
- 직언도, 황죽도(독산해수욕장 연계)
 - 카약코스 활성화
- 비상시 대처요령·경관보호 안내판 설치

■ 도서지역 해양운송체계 개선으로 관광객 유치

◎ 여건 및 사업추진 상황

- 도서에 정주하는 인구·세대는 최근 5년 간 작게나마 지속적으로 상승 중
 - 인구가 많지 않은 소규모 도서들의 경우 차량이동과 정기적 항로운항 여건이 어려우므로 해당 도서에 적합한 교통수단 보급이 필요하며, 이는 경제적 효과가 아닌 복지차원에서 추진이 필요
 - 또한 도서지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수행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도서와 내륙 간 연결편의성의 수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

◎ 기존 사업추진 및 계획내용

- 정기 여객선 운항 노선 신설(죽도, 유부도 등)
 - 시·군 의견수렴을 통하여 필요지역 발굴
 - 낙도 보조항로 지원(해양수산부 낙도 보조항로 운영제도로 추진)
- 낙후도서 거점형 수상택시 운항 지원
 - 육지 근접 도서(호도, 육도 등) 및 원산도 자섬 대상

■ 해양 헬스케어산업 육성

◎ 여건 및 사업추진 상황

- 해양수산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20개 기술의 하나로 ‘해양헬스케어 기반구축 기술’을 선정(2013년,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

- 충청남도는 특색 있는 해안환경과 의료인프라 등 해양치유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후발주자에 머물러 있고, 숙박시설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
 - 2013년 기준 충청남도 소재 의료기관 진료인원은 245만명으로 전국 대비 5.1%로 7위에 해당하는 수준
 - 충청남도 숙박시설 보유현황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관광호텔은 전국의 2.3%(17개소), 휴양콘도미니엄은 7.8%(15개소)에 불과
 - 해양치유산업을 충청남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의료·치유에 활용이 가능한 해양자원을 탐색하고, 이를 산업화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충청남도는 2015년 3월 발표한 「서해안비전 추진계획」에서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핵심사업으로 선정
 - 추진방향으로 국가지원을 토대로 한 시범단지 조성, 복합레저 해양헬스케어 단지 조성 등이 포함
-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관련 워크숍(2015. 4)’등을 통해 전문가 중심으로 충청남도에서의 사업화 가능성을 탐색 중

◎ 기존 사업추진 및 계획내용

- 충남 특화 해양치유자원 소재 발굴 및 경쟁력 제고
 - 머드, 염지하수 등을 활용한 충남 고유의 해양헬스케어 소재 발굴 및 내륙 자원 연계
 - 발굴된 해양헬스케어 소재의 특성 및 경쟁력 분석
 - 해양치유 프로그램 및 마케팅 전략수립
- 산업화 기반 조성
 - 해양헬스케어 시범단지 국가사업 유치 추진
 - 웰니스 스파임상센터 등 도내 인프라와의 연계
 - 해양치유연구센터·건강증진센터 건립
 - 해양헬스케어·휴양시설 조성 지원
- ※ 산업화 기반 조성 대상지역(안) : 보령(원산도, 오천) - 머드, 태안(안면도) - 삼림욕 연계, 당진(석문) - 산업근로자 특성화, 아산(인주) - 온천 연계

⑤ 어촌 및 도서 활성화 주요 추진사업 제안

■ 어촌체험마을의 확대 육성과 어업과 음식특화 활성화 사업 추진

○ 기존 어촌체험마을의 활성화사업 추진

- 오천면 장고도어촌체험마을 : 바다낚시와 어촌체험, 해수욕장, 해안길 등
- 안면 고남 영목어촌체험마을 : 유람선과 낚시체험, 독살체험 등
- 안면읍 대야도어촌체험마을 : 무인도체험, 독살체험, 바다낚시, 갯벌체험 등
- 안면읍 병술만어촌체험마을 : 건간망체험, 갯벌체험, 바지락캐기 등

○ 어업과 음식특화 마을 및 음식지구 육성 사업

- 남당항 대하와 새조개 : 남당 대하와 새조개 축제 개최(가을, 겨울)
- 천북 굴 : 천북 굴단지 및 굴축제 개최(겨울)
- 안면도 계국지와 수산물 : 안면도 계국지 맛집과 해산물 음식
- 대천항 꽃게와 수산물 : 대천항 꽃게음식과 횃집
- 백사장항 대하와 수산물 : 백사장 자연산대하와 횃집
- 간월도 굴밥과 어리굴젓 : 간월도 굴밥과 해산물음식, 어리굴젓

■ 해안 경관명소의 발굴과 전망대 건립 및 연계 걷는 길 조성

○ 천수만 지역 일출·일몰 경관지 건립과 해안길 조성

- 보령 오천 녹도리와 외연도 일몰 : 해안 도서 경관명소 전망포인트 조성
- 서산 간월암 일몰 : 간월암 일몰 전망대 건립
- 홍성 궁리항, 속동전망대 일몰 : 홍성 궁리와 속동전망대 일몰해안길 조성
- 태안 황도 해오름과 꽃지 해넘이 : 황도와 꽃지 해오름·해넘이 포토존 조성

■ 해산물과 전통음식 페스티벌과 이벤트의 발굴 및 육성

○ 대하와 새조개, 굴, 꽃게, 낙지, 바지락, 김 등 해산물 축제와 이벤트 개최

- 남당 대하와 새조개 국제요리 경연대회 개최
- 보령 천북 세계 굴요리 페스티벌 개최
- 대천항 꽃게축제와 오천 키조개 축제 개최
- 안면도 백사장 자연산대하축제 및 국제 seafood-festival 개최
- 서산간월도 바다음식 축제 개최

- 서해안 Seafood Fair의 통합 개최
 - 서해안 파인다이닝과 세계 Seafood 셰프대회
 - 서해안 수산물 통합 축제화와 향토음식 및 바다음식 미식가 축제 개최

■ 갯벌과 철새도래지, 사구 등 생태체험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 갯벌과 철새도래지, 사구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
 - 서산 철새생태공원 및 천수만 철새기행전 활성화
 - 갯벌과 사구 생태학습장 조성 : 어촌체험마을과 사구해수욕장 대상
 - 갯벌 및 어업체험장 조성 및 운영 : 조개캐기, 어망 및 독살체험 등
 - 천수만 해안도로변 철새 및 해양생태 조망대 조성
 - 소규모 무인도서의 야생체험관광지구 지정과 상품 개발 및 운영
- 도서관광지 개발 및 생태여행코스 개발
 - 생태체험 및 경관감상형 도서 : 외연도
 - 역사문화 관광형 도서 : 호도
 - 도서 생태여행코스 개발(안) : 대천~외연열도, 태안~보령 코스
 - 연안 관광지 연계 소도서 관광코스 개발(안) : 다보도(대천해수욕장 연계)

■ 관광미항의 조성 및 관광여객선 및 해상교통 수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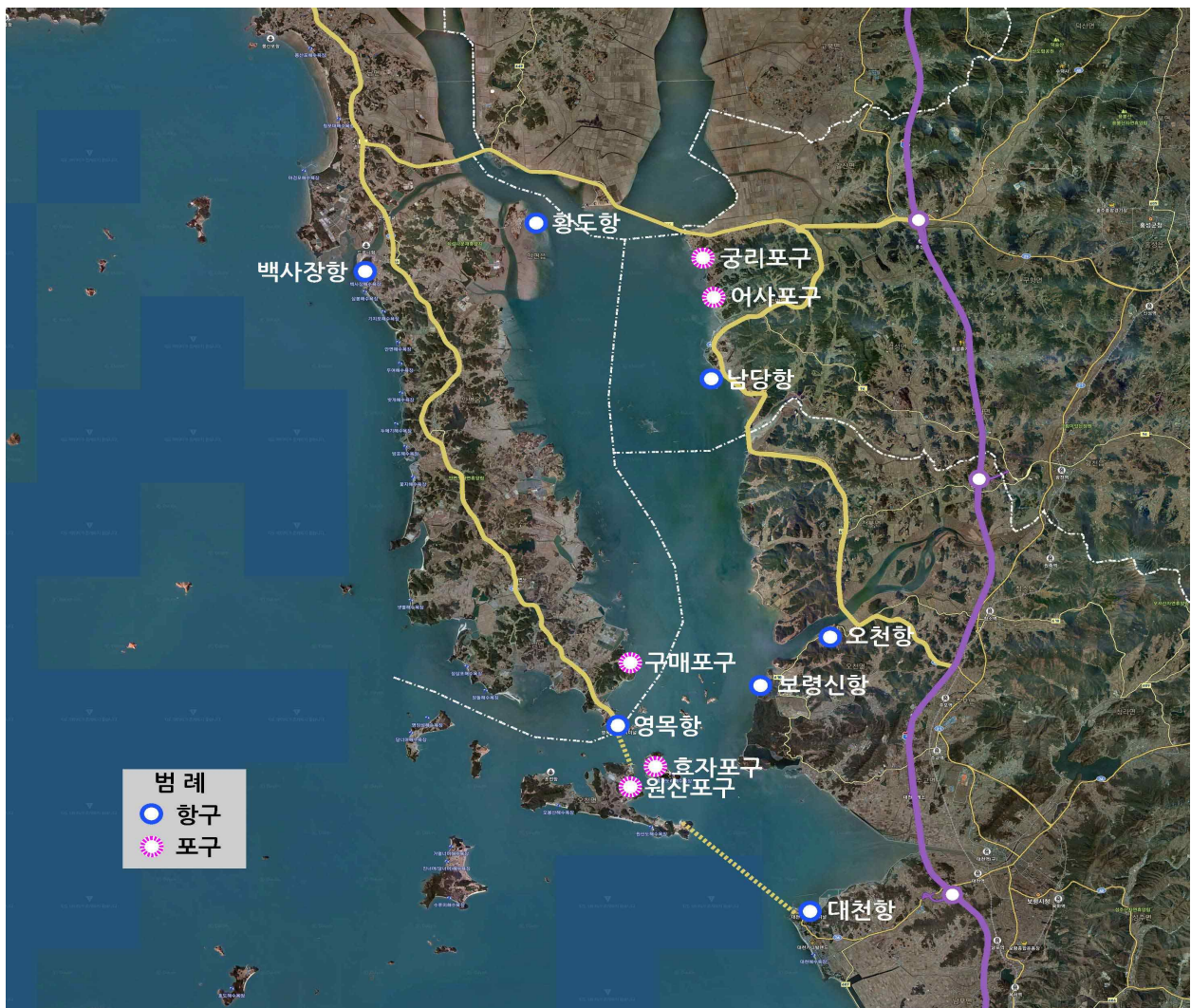
- 도서 연계 관광유람선과 해상교통 취항 운영
 - 차도선 관광객 유치 및 관광코스 확대
 - 연육교 주변 및 천수만, 인접 도서 관광유람선 취항 및 운영
 - 해안 인접 및 근접 도서간 대중 해상교통수단 취항 및 운영 추진
- 관광미항 조성 및 아름다운 어항 조성 및 관광자원화
 - 국가 어항 : 오천항, 남당항, 외연도
 - 지방어항 : 간월도, 어사, 궁리, 백사장, 방포, 영목항 등
 - 도서지역 지방어항 : 녹도, 호도, 고대도, 삼시도, 장고도, 효자도, 원산도
 - 어촌정주어항 : 죽도, 황도, 대야도, 고남, 당암
- 낙후도서 거점형 수상택시 운항 지원
 - 육지 근접도서(호도, 육도 등) 및 원산도 자섬 대상

④ 연육교 주변과 천수만의 해양레포츠 활성화 방안

① 해양레포츠 관련 여건현황

■ 어항 및 항포구 현황

- 연육교와 천수만 주변의 항·포구는 천수만 내 황도항, 영목항, 오천항, 대천항 등 대표적인 어항으로 미래 선진형 해양레포츠 관광 기지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함
- 영목항, 대천항은 관광미항 및 마리나 시설, 안흥항은 바다낚시를 테마로 한 관광지, 백사장항은 씨푸드를 테마로 한 관광지로 조성



천수만 주변 항·포구 현황

■ 마리나항 현황

- 충남이 보유한 마리나항은 현재 보령 요트경기장이 유일하며, 제1차 마리나항

만 기본계획(2010~2019)에 따라 석문, 오천, 홍원이 개발 대상항만으로 선정되어 있음

- 보령 요트경기장은 충남요트협회의 요트 훈련장으로서 활용되고 있음

○ 2015년, 제1차 마리아항만 기본계획 수정에 따라 개발 대상항만이 홍원, 창리, 왜목, 안흥, 무창포, 장고항, 원산도 등 7개소로 변경

- 이 중 왜목은 국가지원으로 추진되는 거점형 마리아항만으로 선정

- 그 외에 남당항 및 삼길포항이 어항내 유타수역에 레저선박 계류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마리아 시설과 연계하는 어촌 마리아역으로 선정



출처: 제1차 마리아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충남 마리아항만 예정구역

■ 지정관광지 지정 현황

○ 지정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 및 휴식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편의시설, 숙박·상가시설 및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녹지 등을 유치·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총 27개의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음.

- 그 중 충남의 해양관광지에 지정된 관광지는 12개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령과 당진이 각각 3개소로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으며, 서천과 태안이 각각 2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정관광지 현황

- 서해안권의 지정관광지는 대부분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지정되었으며, 대천해수욕장이 가장 큰 면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사업비 또한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태안군의 안면도 관광지(꽃지지구)는 조성계획 수립 이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13년 12월 안면도 관광지(꽃지지구) 조성계획 변경(안)의 협을 조정을 거쳐 승인 고시함으로 인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서해안 지정관광지 현황

시군	관광지명	위치	관광(단)지 지정		사업기간	주요 자원	추진상황
			지정일 (변경일)	면적(m ²)			
계	27개 지구			16,255,703			
보령	대천해수욕장	신후동	69.1.21 (83.11.28)	1,586,769	1989~2015	해수욕장	조성사업 중 민자유치 중
	무창포해수욕장	웅천읍 관당리	86.8.20 (09.4.30)	354,000	1988~2015	신비의 바닷길	조성사업 중 민자유치 중
	죽도	남포면 월전리	90.4.19 (00.7.7)	72,783	1995~2013	자연수림	민자유치 중
서산	간월도	부석면 간월도	00.5.4	143,695	2003~2015	간월암	민자유치 중
당진	삼교호	신평면 운정리	83.10.10 (13.1.21)	231,583	1983~2020	함상공원,	민자유치 중
	왜목마을	석문면 교로리	02. 2.26 (07.3.20)	133,876	2006~2020	서해 바다, 갯벌	조성사업 중 민자유치 중
	지도	석문면 난지도리	00. 9. 7. (11.5.30)	155,440	2007~2013	해수욕장	조성사업 중 민자유치 중
서천	금강하구둑	마서면 당선리	93.09.22	175,384	1994~2015	금강하구 둑	민자유치 중
	춘장대해수욕장	서면 도둔리	97.04.21	298,930	1997~2011	송림, 백사장	민자유치 중
홍성	남당	서부면 남당리	05.04.19	166,200	2006~2013	용봉산, 새조개	토지매입 중 민자유치 중
태안	만리포	소원면 의항	10.05.06	311,853	2010~2020	해수욕장	민자유치 중
	안면도	안면읍 승언리	91.2.22 (13.12.27)	5,272,905	1992~2020	해수욕장	토지매각 절차 이 행중

자료 : 충청남도, 충남도정백서, 2014년

- 안면도 관광지는 2016년까지 1단계로 전체 면적의 72%를 골프장지구와 씨사이드지구로 개발하며, 2017~2018년 2단계에는 기업연수원지구를 개발하고 2019~2020년 3단계에는 테마파크지구를 개발할 계획임.
- 만리포관광지는 국토교통부의 동서남해안의 지역 거점 12곳이 '휴양·체험·생태벨트'로 선정되어 서해안권은 서해안의 역사·문화를 주제로 학습·체험형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갯벌·철새 등 세계적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가 조성될 계획임.



개발 중 지정관광지

- 한편, 2007년 기존 안면도관광지에 추가하여 하나의 관광지로 통합된 ‘지포지구’는 충남개발공사에서 별도 개발 추진되고 있어, 현 추진체계에서 사업추진 시 양 구간 사업추진방식 상이 및 도입시설 중복 등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안면도관광지를 별도의 2개 지구(꽃지지구, 지포지구)로 분리 결정·추진 중에 있음.

■ 관광특구 지정 현황

- 관광특구라 함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 제1장 제2조 11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함.
- 충남에는 아산시와 보령시에 각각 1개씩 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보령에는 보령해수욕장이 1997년에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음.

관광특구 지정 현황

특구명	지정일자	면적(km ²)	대상지역
충남	2개지역	6.21	
보령해수욕장 관광특구	1997. 1.18	2.52	보령시 신흥동 대천해수욕장 지역 보령시 남포면 월진리 죽도지역 웅천읍 관당리 무창포해수욕장 및 석대도 지역

자료 : 충청남도, 충남도정백서, 2014년

② 해양레포츠 활성화의 과제

■ 크루즈 및 여객선 등 해양관광을 위한 항만기반시설 미흡

- 서산의 대산항은 국제여객선터미널을 조성중에 있으나 보령과 태안 등에는 국제 크루즈와 여객선을 위한 항만기반시설이 미흡하고, 국내 여객선을 위한 항만여건도 양호하지 못함

■ 해양레포츠를 위한 마리너시설의 부족과 지역 제반여건 열악

- 천수만권에서 보령의 요트경기장 이외에 태안을 포함하여 해양레포츠를 위한 마리너시설이 부족하고, 주변의 마리너를 지원할 수 있는 제반시설들이 아직까지는 갖추어져 있지 않음

■ 기존항만과 해안관광지를 활용한 해양레포츠시설의 확충 필요

- 해양레포츠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반시설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항만과 해안관광지를 활용한 마리너 등의 레포츠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어항의 용도로만 이용되고 있음

■ 서해안에 해양레포츠 관련 축제 및 이벤트의 개최 실적 부족

- 보령시의 해양수산부장관배 국제요트대회와 태안군수배 전국바다낚시 대회 등을 제외하고는 해양레포츠를 위한 축제와 이벤트, 경기대회 등의 개최 실적이 매우 부족함.

③ 관련계획의 검토

■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에서는 체험과 학습이 있는 즐거운 바다관광을 주제로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테마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 확대’,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위상 제고 및 각종 대회 개최’, ‘레저낚시 대중화 기반조성’, ‘해중레저 대중화 기반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음
-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에서는 체험과 학습이 있는 즐거운 바다관광을 주제로 마리나 산업 고도화를 위한 테마로 ‘마리나산업 육성 기반 마련’, ‘한국형 레저선박 개발 지원’, ‘요트관광 콘텐츠 개발 및 이용편의 강화’, ‘마리나 항만 등 레저선반 계류시설 확충’ 등의 사업들이 있음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해양레저스포츠와 마리나 관련 연계 사업

주제	테마	항목	세부추진과제	비고
체험과 학습이 있는 즐거운 바다관광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수상레포츠센터 건립('17. 7개소) 수준별·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해양레저스포츠 시범학교 지정·운영 	-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위상 제고 및 각종 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회 개선방안 마련 신규 대회 지원 	보통
		레저낚시 대중화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낚시터 지정 및 지원 명예감시원제도 운영 어린이 낚시교실 개설·운영 	높음
		해중레저 대중화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중레저 활성화 법·제도 마련 해중경관 조성사업 해중레저거점마을 조성 	-
	마리나 산업 고도화	마리나산업 육성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지원 가이드북 제작·배포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 마리나 관련 규제 정비 	-
		한국형 레저선박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의 레저선박상 시상 레저선박 선체 식별번호 부여제도 개선 수출보증제도 도입 검토 	-
		요트관광 콘텐츠 개발 및 이용 편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트관광 콘텐츠 개발 요트 항해도 제작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
		마리나 항만 등 레저선박 계류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 마리나 개발 마리나 선박급유시설 설치기준 마련 주요 관광지내 소규모 계류시설 설치 어촌역 조성 	보통

■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에서는 바다와 교류하는 해양·레저 분야 추진 과제로 서해안권 해양레저 거점조성과 해외관광객 유치 확대 등의 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의 해양레저 관련 연계 사업

추진 분야	과제명	추진부서	주요 내용
서해안권 해양레저 거점 조성	서해 요트아일랜드 조성	해양정책과	요트 네트워크 조성, 해양레저 메가이벤트 개최, 해양레저 교육시설 확충 등
	홍원항 관광지 조성	해양정책과	춘장대~홍원항 해안 연결 도보코스 조성, 해상 산책로 설치, 가족형 호텔 유치 등
	해양관광 바다낚시공원 조성	해양정책과	낚시터 도교, 인공어초 조성, 낚시공원별 어종 정보 아카이브 구축 등(태안, 홍성, 당진, 보령)

			6개소 등)
	수도권 맞춤형 해중레저 관광여건 조성	해양정책과	우수 해중경관 포인트 지정, 해중레저 웹(Web) 안내소 구축,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등
	왜목 해양레저타운 조성	해양정책과	왜목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 방문자센터, 관광 숙박·휴양문화시설 유치, 스파시설 조성 등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	중간기착형 크루즈 관광지 개발	해양정책과	텐더보트 접안여건 조성, 보령~안면 투어버스 운행, 보령 하선~서울 이동~인천 승선 연계 관광 코스 기획 등
	대산항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외국인 수용태세 정비	해운항만과, 관광산업과	대산항 국제관광프라자 조성, 관광안내서비스 개선사업, 중국인 문화교류제 개최 등
	안흥 스토리텔링형 중국 역사자원 발굴	관광산업과	안흥항 역사자원 발굴 기획연구, 안흥 스토리 텔링형 역사자원 발굴, 홍보 및 외국인 수용태세 준비

④ 해양레포츠 활성화 방안

■ 중간경유형 크루즈 항만 개발과 운영

◎ 여건 및 사업추진 상황

- 세계 크루즈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와 중국 관광객들의 크루즈 관광 선호 증대 등으로 크루즈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크루즈 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적 관심 고조
 - 정부는 크루즈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7년 「해양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크루즈산업 육성을 정책적으로 추진
 - 국내에서는 부산, 제주, 인천이 크루즈 기항지로서 인지도가 높으며, 이외에 강원, 경북, 전남 등지에서 경쟁적으로 크루즈항만 확보를 추진
- 충청남도는 항만 배후도시 발달이 비교적 미흡하여 크루즈 관광의 기착지로서 매력도가 낮은 편이며,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보령 신행을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표 관광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의 상당수는 쇼핑 등을 이유로 서울, 부산 등 도시를 선호
 - 충청남도의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보령신행 및 보령시내의 숙박, 쇼핑, 관광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

- 세계 크루즈 관광객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까지 연평균 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
 - 2013년 세계 크루즈 관광객(모항기준) : 2,098만명, 시장규모 36조 2천억원
 - 아시아 시장의 경우, 2013년 크루즈 관광객 137만명, 시장규모 2조원으로 2020년까지 700만명으로 급성장 예측
- 국내 크루즈 관광객은 2012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크루즈 산업은 해운·조선·유통 등 관련 산업과 연계되어 높은 경제효과를 보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관광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충남지역에는 크루즈 선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여건이 마련되지 않음
- 중국과 가까운 이점 등을 살려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 크루즈 항만 개발이 우선 필요
- 2015년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완료 후 국가계획에 반영 추진할 계획임
-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5. 2), 2015년 8월 시행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보령신항 반영 요청 예정 (2015. 4)
 - 보령신항 구상 : 마리나, 크루즈, 화물, 여객, 해경함정부두 등 다기능 복합항

◎ 기존 사업추진 및 계획내용

- 제주, 중국, 일본 등 연안 및 주변국 연계 크루즈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 텐더보트(Tender Boat) 접안여건 조성
 - 보령~안면 투어버스 운행
 - 보령 하선~서울 이동~인천 승선 연계 관광코스 기획
- 북한을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통일 이후 장기과제)
-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개발
 -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일원을 대상으로 마리나, 크루즈, 화물, 여객 등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다기능 복합항 개발
 - 일반부두 2선석(3만톤급 2), 마리나·관리·여객부두 등 개발
 - 기간 및 예산 : 2017~2030년, 3,427억원(국비)

○ 크루즈 항만 개발

- 대산항(단기) : 국제여객선터미널이 2016년부터 운영 예정이라는 점에서 여객부두 및 관련 관광기반시설 등을 활용하여 크루즈항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 마련
- 당진항(장기) : 항만 다기능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석문지구 일반부두 건설 시 동 부두를 활용하여 크루즈선 유치
- 보령신항(장기) : 마리나, 크루즈 등이 포함된 다기능 복합항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크루즈 시설 개발

○ 크루즈 항만 개발 여건 마련

- 충남 크루즈 항만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 수립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크루즈 선사로의 홍보활동 등을 통해 크루즈선 유치
-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 시, 도내 크루즈 항만 개발 및 크루즈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 서해 요트아일랜드 조성 및 배후 지원사업 네트워크 구축

◎ 여건 및 사업추진 상황

- 국민소득 향상, 근로시간 단축, 자동차 보급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
 - 해양레저는 아직까지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생소한 경험이지만 새로운 관광·레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대중화가 될 것으로 전망
 - 충청남도는 2015년 현재 보령마리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7개 마리나항만 대상지(창리, 왜목, 안흥, 무창포, 장고, 원산도, 홍원)를 선정
- 수도권과의 접근성, 해수욕장의 발달과 복잡한 해안선 및 도서 등 충청남도는 특색 있는 해양레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지리·자연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도내 해양레저산업의 보급과 확산은 충청남도의 새로운 관광수익 기반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 다만, 서해바다가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인 낮은 탁도, 얕은 수심 등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 적절한 인프라의 확충과 해양문화자원의 적극적 개발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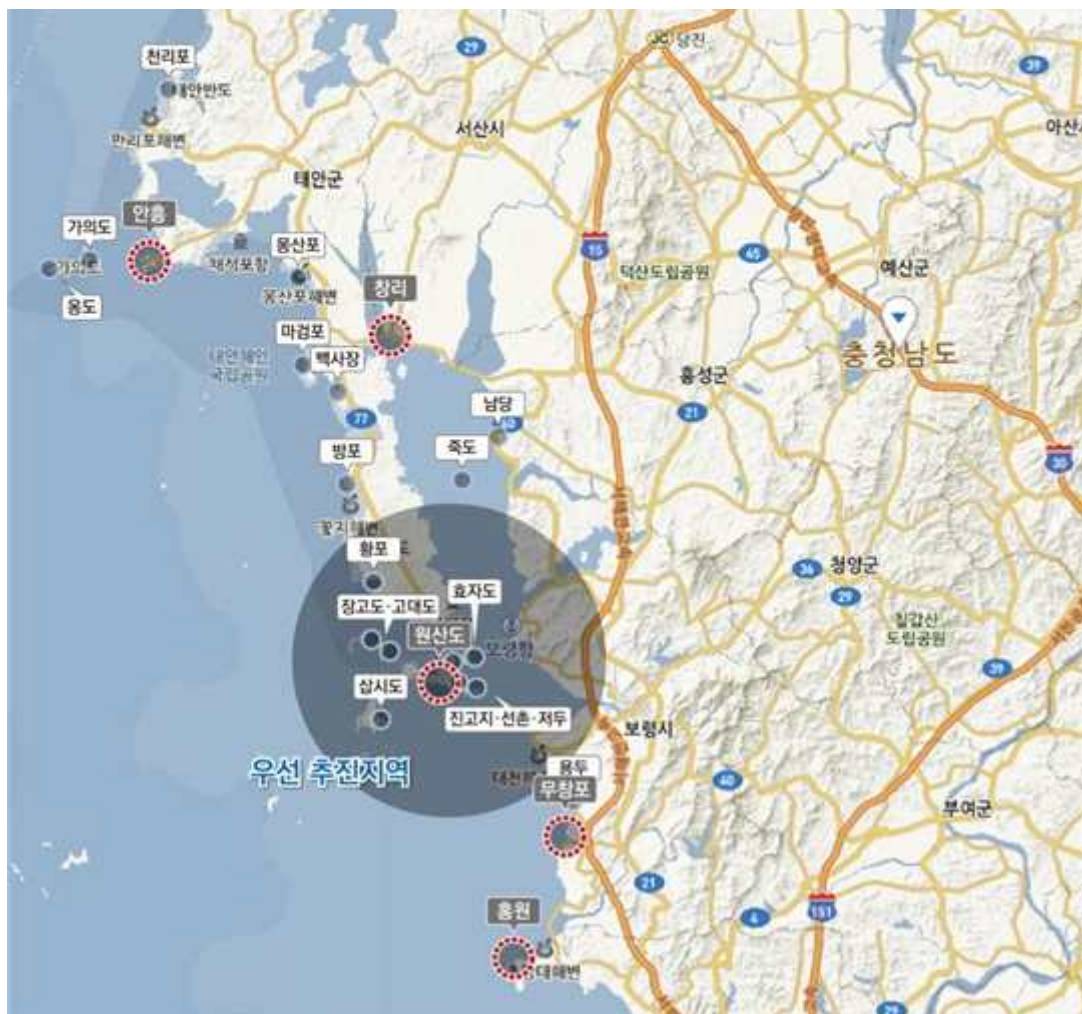
◎ 기존 사업추진 및 계획내용

○ 마리아항만 중심 요트 네트워크 조성(안)

- 마리아항만 대상지(추진전략5에서 별도 추진): 왜목, 장고, 안흥, 창리, 원산도, 무창포, 홍원
- 어촌마리나역 우선 추진지역(12개소): 난지도, 원산도(진고지, 선촌, 저두), 장고도, 고대도, 효자도, 삼시도, 한진포구, 벌천포, 방포, 황포

※ 남당, 삼길포는 현재 「국가어항 레저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어촌마리나역 추진 중

- 어촌마리나역 중장기 추진지역(9개소): 가의도, 용두해수욕장(충남요트협회), 죽도(천수만), 천리포, 웅도, 몽산포, 마검포, 백사장, 방포
- 보트 계류장 및 경사로 설치
- 세면장, 탑승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충남 천수만권역 마리아 요트네트워크 위치도

- 마리나 시설에는 요트학교 운영, 일반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요트교육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 해양레저 메가이벤트 개최
 - 전국해양레포츠제전 개최
 - 해양레포츠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제고 및 사업효과 증진을 통해 국내 최대의 해양레저스포츠 대회로서의 위상 제고
 - 시·도별 동호인 대회 지원을 통해 대회참가를 독려하고 경기력 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붐 조성에 활용
 - 국제요트대회, 파워보트 대회 등 개최 및 유치를 통한 국민 관심 제고
 - 한·중 국제요트대회
 - 2019년 클리퍼 더 라운드 더 월드
 - 2020년 국제해양레포츠제전 개최
 - 2025년 아메리카즈컵 세계요트대회 유치
- 마리나선박 대여업 및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에 대한 지원
 - 요트마리나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한 법적 지원 확립
 - 레저선박을 소유하지 않은 일반 도민 및 관광객들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
 - 레저선박을 빌려주거나, 대신 운항해주는 사업 및 태워주는 사업
 - 리조트, 펜션 등 연계사업 및 별도 주요 마리나항만내 운항서비스사업 운영
- 다양한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및 상품개발
 - 복합형 해양레포츠 시설 확충
 - 안면도 등 기주진 관광지에 복합형 해양레포츠 시설 확충
 - 보령 석문 등 복합 마리나항만 조성, 주거시설·이벤트 등 차별화 모색
 - 해양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강화
 - 비수기 타계를 위한 대표 해양관광축제 및 이벤트 육성
- 도내 해양레저 교육시설 확충 및 전문인력 육성
 - 해양레저 선수 육성 교육프로그램 발굴
 - 보령 해양스포츠학교 지원 확대 및 기능강화
 - 레저용 선박 전문인력 양성
- 중소조선업체 역량 강화 및 해양레저용 선박 건조로의 전환 지원

- 중소기업체들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
-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체계 강화
- 중소기업체 국내외 마케팅 지원
- 해양레저용 선박 건조 산업단지 조성
 - 선박 건조 산업단지 조성
 - 마양레저용 선박 수리역량의 증진 및 확산
 - 관련 부품업체 육성 및 수출지원
 - 레저용 선박 관련 기계부품박람회 개최

■ 거점 마리너항만과 연계 마니너항 조성

◎ 여건 및 사업추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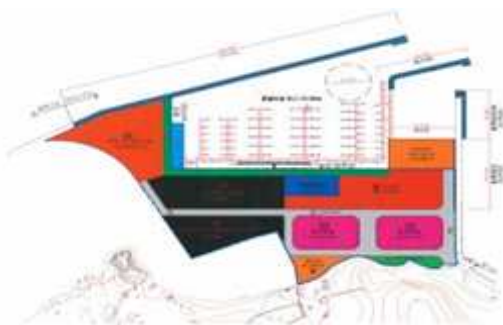
- 해양레저에 이용되는 선박(요트·보트)의 출입 및 보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시설을 갖추는 마리나항만에 대해 선진국들은 마리나의 대형화 및 관광거점화에 정책적 중점을 두고, 신흥 마리나국가들은 관광전략의 하나로 마리나시설 확충을 추진
- 국내의 경우, 최근 여가시간 확대 및 관광형태 다양화, 해양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요트·보트 및 조종면허 취득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나 마리나시설 확충 속도는 느린편
 - 현재 32개 마리나가 운영 중이며 1,750선석의 선박 계류규모를 보유
- 충청남도의 경우,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등 대도시로부터의 해양접근성 우수하지만, 마리나 시설로는 보령마리나만이 존재
- 증가하는 해양레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마리나 항만 개발을 통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고시(석문, 오천, 홍원, 보령) (2010. 1)
- 국가 수정계획 대비, 충남 마리나항만 계획 연구용역 수행(2013.11.~2014.12)
- 당진 왜목마리나 개발 기본구상 수립(당진시, 2014. 12)
-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연구용역 추진중(2014. 5 ~ 2015. 5)
-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투자유치 설명회(2014. 12, 해수부)
 - 당진 왜목,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의향서 제출(2015. 2)

- 거점형 마리나항만 대상지 4개소(당진 왜목 포함) 선정(2015. 7)

◎ 기존 사업추진 및 계획내용

○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 해양수산부는 동북아 해양 관광의 중심지,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및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국제수준의 서비스 편의시설 제공 등을 위해 주요 거점 지역에 국가지원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수행 중
- 충남에서의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유치를 위해 당진 왜목을 대상으로 거점형 마리나항만 선정, 개발을 추진하여 중부권 최고의 마리나 항만으로 육성
- 기간 및 사업비 : 2015~2019년, 614억원(국비 300, 지방비 114, 민자 200)
- 위치 :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왜목마을 전면해상
- 사업규모 : 방파제 615m, 호안 470m, 마리나 시설면적 60,794m², 어촌정주어항 3,600m²
- 도입시설
 - 기본시설 : 방파제, 도로, 호안, 부잔교, APRON
 - 기능시설 : 정비 및 육상계류장, 경사로, 자주식크레인, 클럽하우스(목욕장, 사무실, 휴게시설, 식음시설)
 - 서비스 편의시설 : 주차장, 공원시설, 녹지, 숙박 및 휴양지구, 상가시설
 - 어촌정주어항 : 육상기능시설, 물양장(80m), 부잔교(80m)



거점형 마리나항만 기본구상도 (당진 왜목)

○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개발사업 대상지 개발

- 해양수산부는 고부가가치 해양레저산업 및 마리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46개 항만을 대상으로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10~’19)을 수립하였으며, ‘14년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의 수정이 결정됨에 따라 수정계획을 수립

중

-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새로이 반영되는 창리, 안흥, 무창포, 장고항, 원산도, 홍원에 대하여 마리나 개발에 착수
- 충남 마리나항만 개발 대상후보지 19개소 중 기본계획 미반영 대상지에 대해 반영대상지의 개발 상황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기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순차 추진

※ 미반영 대상지 : 오천, 석문, 대산, 궁리, 마검포, 갈음이, 부남호, 라암도, 간월도, 남당, 모항

○ 마리나개발 대상후보지 등에 대한 민간투자 기반 조성

- 충남의 마리나개발 대상후보지에 대해 SPC 설립 조건 완화, 공유수면 점사용료·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등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 기존 항만 리모델링 및 신규 연안항 개발시 관광항 기능 강화

◎ 여건 및 사업추진 상황

- 전세계적으로 항만간 물동량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물처리 중심의 항만운영 방식에서 수요 창출 및 부가가치 증대 기능이 융합된 항만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
- 해외 주요 물류거점 항만은 항만물류산업 유치 및 확대를 위해 대규모 복합배후단지를 개발 및 운영 중임
 - 글로벌 기업들은 발달된 배후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항만을 중심으로 글로벌 SCM(공급사슬관리) 체계를 구축함
- 항만지역과 도시임해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항만기능을 강화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항만 워터프론트 개발이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항만과 도시가 연계된 공생발전을 도모하려 하고 있음
- 충남 항만의 경우 화물처리 중심으로 항만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람의 접근이 어렵고 도시와도 단절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항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람 및 도시와 연계된 항만 개발이 필요

◎ 기존 사업추진 및 계획내용

- 항만 및 연안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개선 및 개발 모델 제시
 - 항만 기본시설 중심의 공간 활용에서 이용자 중심의 Port City 모델 개발

- 항만 및 연안역 이용의 폐쇄성과 제한적 환경을 극복한 해양공간 조성 연구
- 연안지역의 개발현황 문제점 진단 및 환경친화적인 개발모델 연구
 - 항만기능, 연안환경, 도시개발 여건 등 사회·공간적 특성 분석
 - 연안지역의 환경영향 조사 및 문제점 도출
 - 환경파괴 최소화 및 친환경 개발 모델 제시
- 도시기능과 연계성을 강화한 친수공간 조성
 - 도시기능과 항만기능이 융합된 친수공간 설계
 - 휴식, 문화, 녹지 공간 등 해양관광과 연계한 공간 조성
 -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이 가능한 친환경적 개발 모델 제시

■ 해양관광 바다낚시공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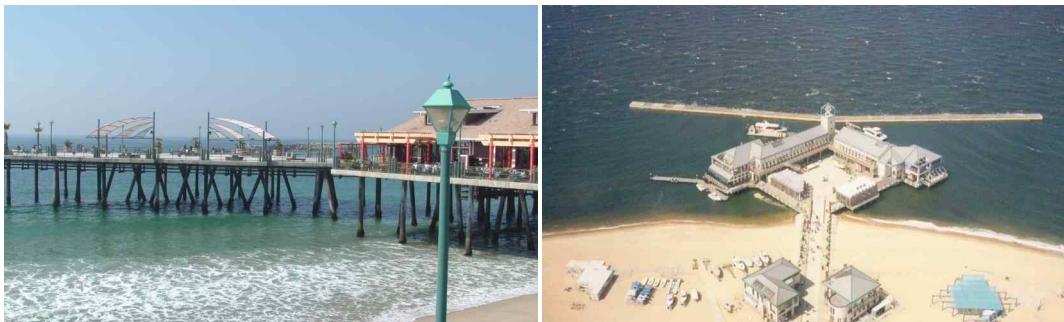
◎ 여건 및 사업추진 상황

- 충청남도는 연안지역 전체에 걸쳐 바다낚시객들이 매우 활발하게 방문하는 지역임
 - 태안군, 홍성군, 당진시 일원지역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다양한 어종들을 낚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바다낚시객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음
- 바다낚시는 다른 관광자원·관광객들을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해양레저활동으로 이에 대한 전략적인 육성과 타 자원 연계전략을 통해 인근 지역의 관광수입 창출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
 - 바다낚시는 어선 운항, 안내인 등에 있어 주요한 관광수익 기반이 되며, 낚시활동 후 인근 식당과의 연계 등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창출이 가능
 - 또한 대부분의 낚시 활동이 개인 또는 동호회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으나 숙박시설과 교육·체험프로그램등이 연계된 낚시공원 조성을 통해서도 가족단위의 해양레저활동으로 전환이 가능
- 태안군은 2015년 바다낚시공원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갈음이, 라향, 태배 3개 지역을 선정
- 홍성군은 어사지역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기존 사업추진 및 계획내용

- 바다낚시공원 조성
 - 단기 추진지역: 태안군, 홍성군 일원 4개소

- 중기 추진지역: 난지해수욕장 남측지역, 호도 등
- 낚시터 도교, 인공어초 조성 등 바다낚시 부대시설 확충
- 낚시공원별 주요 어종정보 아카이브 구축(웹, 키오스크 등)
- 바다낚시 연계 캠핑시설 확충(도서지역 제외)
- 바다낚시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 대상 바다낚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바다낚시 대회 연례 개최
- 이동식 바다좌대낚시터 및 바다낚시공원 조성.
 - 바다좌대낚시터는 바지선을 활용한 교절 형태의 이동식 해상(바다)낚시터 조성으로 가까운 근해로 이동해서 바다낚시를 할 수 있는 시설 마련
 - 바다낚시공원은 데크를 활용하여 조성해 주변 지역을 연계한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사업 검토



캘리포니아 접안시설 및 낚시 데크, 바다낚시 공원 전경

- 관광 및 레저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해상낚시펜션 등 관광숙박시설 및 공간을 조성
 - 해상낚시펜션은 숙식을 하면서 선상에서 낚시를 겸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로 제공



위치 : 의신면 접도리 781번지 접
도어촌체험마을
비용 : 주말(금,토,일) 15만원, 주중
13만원
시설 : 낚시터, 샤워실 등 상수도
시설 까지 갖추고 있음
수용시설 : 총 15명, 3동

해상펜션 사례(진도 접도)

○ 해양레저스포츠 전진기지사업을 추진하여 해양레포츠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곳 조성

- 비교적 물살이 약한 가까운 바다에 속해서 스쿠버다이빙 외에도 요트, 카누, 윈드서핑, 조정 등 해양레포츠 교육이 가능함
- 해양레저스포츠연수학교가 들어설 경우 영목항은 전국 각지의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 그리고 일반 기업을 상대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영목항을 더욱 더 홍보할 수 있으며, 특수한 교육기관 유치는 영목항의 또 다른 자량이 될 수 있음



스쿠버다이빙 교육 및 연수원 사례사진

⑤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 주요 추진사업 제안

■ 크루즈 경유 관광항만으로 보령신항의 개발 및 운영

- 보령신항 크루즈 및 마리나 다기능 복합항 개발
 - 연육교 주변 텐더보트 접안시설 조성 및 운영
 - 태안~보령~공주·부여·세종 관광버스 운영
 - 보령 하선 ~ 대산 또는 인천 승선 연계 관광코스 개발 및 운영(중국관광객)

■ 거점 마리나항과 네트워크 마리나항의 조성

- 천수만권 거점마리나항과 네트워크 항 조성
 - 거점마리나항 조성 : 창리, 원산도, 무창포
 - 거점 마리나항만 대상지 : 창리, 원산도, 오천, 궁리, 부담호, 간월도, 남당, 무창포 등
 - 어촌마리나역 추진 대상지 : 원산도, 장고도, 고대도, 효자도, 삼시도, 황포

* 남당항는 국가어항레저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추진 중.

■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각종 경기대회 및 이벤트의 개최

- 해양항공레저스포츠 경기대회 및 이벤트 정기 개최
 - 해양·항공레저스포츠는 천수만과 보령-안면연육교 주변의 안면도 앞바다를 행사장으로 하여 국제보트쇼, 세계요트대회, 국제경비행기쇼, 해양·항공스포츠산업전, 세계바다낚시대회 등을 개최
- 세계 해양·항공레저스포츠 제전 및 산업전
 - 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 국제경비행기쇼
 - 해양·항공스포츠산업전
 - 세계바다낚시대회
- 바다체험 및 해양관광 프로그램 운영
 - 해양스포츠, 항공레저, 갯벌 및 낚시체험관광 프로그램
 - 보트 및 경비행기에어쇼, 해상퍼레이드 이벤트
 - 서해안 해양출토유물전 등

■ 마리나항 배후 지역 조성 및 지원사업 추진

- 천수만 마리나 선박대여업 및 선박 보관·계류업 운영
 - 레저선박 대여 및 운항업
 - 마리나 리조트 및 펜션, 식음료점 등
 - 해양레저 교육장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보령 해양스포츠학교 기능확대)
 - 레저용 선박 제조업체 및 제작인력 양성 지원사업 추진

■ 바다목장 및 양식장 연계 바다낚시공원의 조성 및 운영

- 바다낚시 공원 조성 및 바다낚시대회 정기 개최
 - 태안 앞바다 바다목장 및 양식장 주변 바다낚시 공원 조성
 - 해상낚시 펜션 및 바다좌대 낚시터 조성 및 운영
 - 전국 및 국제 바다낚시 대회 정기 개최

참고문헌 및 자료

- 김성귀(2007), 어촌관광 진흥사업의 현황과 과제, 계간 한국관광정책 통권 제26호
- 김성귀(2007), 해양관광론.
- 김태영·김한도(2011), 거가대교·KTX 개통에 따른 경남관광활성화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국토해양부(2008),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방안.
- 문화체육관광부(2006),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기본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06),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기본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07),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2차 평가 연구
- 전북발전연구원(2008), 전라북도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 정대철(2011),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거제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충청남도(2010),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 태안군(2015),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거점 조성 타당성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2007),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보고서 국도77호선(보령-태안)건설사업.
- 해양수산부(2006), 해수욕장 유형별 관리·평가모델 개발연구
- 해양수산부(2014), 2013년 낚시어선업 운영현황
- 해양수산부(2000),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 해양수산부(2013),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안).